

리아호나



연차 대회 말씀

다섯 개의
새로운 성전이 발표 되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가르치시는 그리스도, 안톤 도르프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들을 들더니”(누가복음 10:38~39)



존 맥노튼 서명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존 맥노튼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 그는 … 위대하게 살다가 위대하게 죽었으니, 옛적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자기의 사명과 일을 자신의 피로 인봉하였고”(교리와 성약 135:3)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이 실제로 열려 있고, 오늘날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으며, 교회가 제시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제178차 반연차 대회를 마치며 이와 같이 말씀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계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정한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아호나

2 제178차 반연차 대회 요약

토요일 오전 모임

- 4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성실함으로 할 것이니라
엘 톰 페리 장로
- 1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자매
- 13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날 엘 앤더슨 장로
- 15 나의 아버지께서 물문경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트스 장로
- 17 성찬식과 성찬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21 무한한 소망의 힘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5 교회役員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26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조셉 비 위스린 장로
- 29 천사의 성역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32 어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느니라
제럴드 코세 장로
- 34 길
로렌스 이 코브리지 장로
- 37 시온에 오라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41 항상 기도하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신권 모임

- 44 신권을 존중하며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47 안전한 팔
제이 이 젠슨 장로
- 50 악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김
제임스 제이 해물러 장로
- 53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57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녀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0 배우고 행하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8 우리 마음을 하나로 결합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2 그리스도인의 용기: 제자로서의 대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75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도우심
키스 비 맥멀린 감독
- 78 덕으로의 회귀
일레인 에스 돌튼
- 81 하나님의 진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84 인생 여정에서 기쁨을 찾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88 시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92 해외 왕국의 결혼
러셀 엠 넬슨 장로
- 95 복음 교육-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름
윌리엄 디 오스월드
- 98 집으로 돌아옴
에두아르도 가바렛
- 100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간증을 얻음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 102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쿠엔틴 엘 쿡 장로
- 106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상호부조회 총회

- 108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달성함
줄리 비 벅
- 112 거룩한 성전, 신성한 성약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 114 이제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바라 톰슨
- 117 행복, 여러분의 유산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64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총관리役員
- 121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 122 그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 124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
- 125 교회 소식
- 128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제178차 반연차 대회

요약

2008년 10월 4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세인 엠 보웬 장로 폐회기도: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에드 톱슨;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찬슨과 앤드류 언스워스;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27장, 윌버그 편곡, Hinshaw 출판; “오 내 영혼 가슴 깊은 말”, 찬송가, 93장;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의의 일하세”, 찬송가, 177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O Thou Kind and Gracious Father”, 영문 찬송가, 150장; “늘 함께 합소서”, 찬송가, 97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2008년 10월 4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제임스 엠 던 장로. 폐회기도: 돈 알 클라크 장로. 음악 제공: 유타 케이시빌 및 프록 하이츠 초등학교 합창단; 지휘: 폴린 패덕;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게츠; “난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 노래책, 2쪽, 울포드/마가렛 편곡, 미출판; “거룩하신 주님의 빛”, 찬송가, 195장; “사랑의 빛 안에 걸여 가고”, 찬송가, 192장;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왓킨스, 미출판.

2008년 10월 4일 토요일 저녁 신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데이비드 에스 벡스터 장로. 폐회기도: 키스 알 에드워드 장로. 음악 제공: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의 신권 합창단; 지휘: 더글라스 브렌첼리;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찬슨; “주 섬기라”, 찬송가, 145장, 부스 편곡, 뉴 비전 뮤직 출판; “Lord, I Would Follow Thee”, 영문 찬송가, 220장, 데이레이 편곡, 잭맨 출판;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찬송가, 18장;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7장, 입슨 편곡, 미출판.

2008년 10월 5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개회 기도: 얼 시 텅기 장로. 폐회기도: 다니엘 엘 존슨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앤드류 언스워스 및 클레이 크리스찬슨;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내 구주 살아 계시다”, 찬송가, 68장; “Oh, What Songs of the Heart”, 영문 찬송가, 286장, 윌버그 편곡, 잭맨 출판;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주 사랑 느껴요”, 어린이 노래책, 42쪽, 카든 편곡, 미출판; “동트니 날이 밝는다”, 찬송가, 4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2008년 10월 5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폴 비 파이퍼 장로. 폐회기도: 마커스 비 네쉬 장로. 음악 제공: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에드 톱슨;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와 린다 마가렛;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윌버그 편곡, 잭맨 출판; “신앙의 발자취로”, 케이 뉴웰 데이레이, 데이레이 편곡, 잭맨 출판;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찬송가, 25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2008년 9월 27일 토요일 저녁 상호부조회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줄리 비 벡. 개회 기도: 앤 더블류 판즈워스 자매. 폐회기도: 자나 피 스테플스 자매. 음악 제공: 유타 알파인 및 하이랜드 지역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자매들; 지휘: 메릴리 웹;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게츠;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찬송가, 14장, 입슨 편곡, 미출판; “Lord, I Would Follow Thee.”, 영문 찬송가, 220장, 웹 편곡, 미출판;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카젠 편곡, 미출판.

연차 대회 녹화 자료

연차 대회 모임들의 녹화 자료들이 www.lds.org 에서 여러 언어로 이용 가능합니다. 녹화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대회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배부센터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 말씀 인터넷 게재

인터넷 상에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대회 말씀을 접하시려면 www.lds.org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Gospel Library와 General Conference를 클릭한 후 해당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앞 표지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뒤 표지 사진 촬영: 크리스 스미스

대회 사진들

연차 대회 장면들을 담은 사진 촬영: 솔트레이크시티: 크레이그 다이먼드, 웰던 시 앤더슨, 존 루크, 매튜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레스 닐슨, 스코트 데이비스, 린지 브릭스, 로드 보암, 알파 스무트, 코디 벨, 마크 웨인버그; 아르헨티나: 제이비어 코로나티, 마리아 가브리엘라 이가자발; 브라질: 이스라엘 앤툰스, 로레나이 아테마 포체토; 이탈리아: 제이슨 콜, 타이슨 롤린스; 몰도바: 데인 릭트; 나이지리아: 존 울루 파오세크; 우크라이나: 마리나 루카치.



2008년 11월호, 제45권, 제11호
리아호나 0229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 토마스 에스 문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신이사도 정회원: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런, 리처드 지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캔들

교문: 캐리 제이 코울먼, 케네시 존슨, 요시히코 가부찌, 더블유 더글라스 셴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하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통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매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포이 오데카크,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퍼카, 채드 패리스, 쟈우 민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설, 재니 토마스, 블렌덴버그, 줄리 워렐
산업 비서: 로렐 듀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오, 콜레트 네베커 오온, 허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자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킴 핀스터마커, 캐슬린 허워드, 예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킵트 엠 무어, 지니 제이 닐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미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12호, 제45권, 제1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8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완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박 환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당하지 않아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 편집진은 좋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 언어 외의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틴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November 2008 Vol. 32 No. 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연사들(가나다 순)

- 닐 엘 앤더슨, 13
- 달린 에이치 옥스, 17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41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37
-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21, 53, 117
- 러셀 엠 넬슨, 92
- 로렌스 이 코브리지, 34
- 로버트 디 헤일즈, 72
- 리처드 지스코트, 44
-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트스, 15
- 바바라 톰슨, 114
- 보이드 케이 패커, 88
-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10, 112
- 에두아르도 가바렛, 98
- 엘 톰 페리, 7
- 엠 러셀 벨라드, 81
- 윌리엄 디 오스월드, 95
- 일레인 에스 돌튼, 78
- 제럴드 코세, 32
- 제이 이 젠슨, 47
- 제임스 제이 해물러, 50
- 제프리 알 홀랜드, 29
- 조셉 비 위스런, 26
- 줄리 비 벡, 108
-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100
- 쿠엔틴 엘 쿡, 102
- 키스 비 맥멀런, 75
- 토마스 에스 문슨, 4, 60, 84, 106
- 헨리 비 아이어링, 25, 57, 68

주제 색인

- 가르침, 95, 114
- 가정, 98
- 가족, 92, 108
- 간증, 13, 15, 100
- 감사, 41, 84
- 개종, 10, 15
- 거룩함, 37
- 결혼, 44, 92
- 겸손, 68
- 경건, 17
- 경전, 95
- 계시, 68, 88
- 교회 성장, 4, 81
- 교회 역사, 81, 88
- 급식, 75
- 기도, 41, 50, 68, 75
- 기쁨, 68, 84
- 낙담, 117
- 낙천주의, 102
- 단순함, 7, 32
- 단합, 37, 68
- 덕, 78
- 동정심, 117
- 들어올림, 53
- 마지막 날, 50
- 모범, 60, 72, 114
- 몰몬경, 10, 15
- 배움, 60
- 변화, 84
- 보상, 26
- 보호, 29, 78
- 복지, 75
- 봉사, 53, 57, 75, 98, 106, 108, 114
- 부름, 53
- 빛, 7
- 사랑, 95
- 상호부조회, 108, 114
- 선교 사업, 10, 81, 98
- 성신, 34, 50, 100
- 성약, 112

- 성전, 4, 78, 92, 112
- 성찬, 17, 47
- 성찬식, 17, 47
- 속죄, 47
- 속고함, 95
- 순종, 34, 50
- 승영, 92
- 시각, 26
- 시운, 37
- 신권, 44, 53, 57, 60
- 신뢰, 26
- 신앙, 13, 21, 41, 102, 108
- 안전, 47
- 애국심, 88
- 어린이, 32
- 여성, 44
- 역경, 7, 13, 26, 72, 102
- 연차 대회, 106
- 영감, 72
- 영생, 106
- 예수 그리스도, 34, 75, 84, 106
- 용기, 72
- 웃음, 26
- 의로움, 102
- 의무, 60
- 자애, 21, 37
- 정숙함, 7
- 제자됨, 72
- 준비, 7
- 지식, 32
- 지혜의 말씀, 7
- 진지함, 50
- 창의성, 117
- 천사, 29, 57
- 축복, 75
- 친절, 68
- 편안함, 29, 102
- 하나님의 말씀, 32
- 합당함, 44, 112
- 행복, 26, 92, 117
- 활동화, 98
- 희망, 21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 대회에 참여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그분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명의 회원들이, 1,700명의 합창단과 더불어 노래와 춤과 비디오를 통해 가장 영감어린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행사가 열렸던 거대한 축구장은 관객들로 꽉 차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금방이라도 내릴 듯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비 바람이 불어온다면, 우리를 즐겁게 하고자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그들의 의상과 공연 발표가 망쳐질테니 그들을 자비롭게 굽어보시도록 조용히 간구했습니다. 그분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날 때까지 비는 오지 않았고 그날 저녁 늦게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사 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대회에서 만난 이후로 6개월이 마치 나는 듯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사업이 쉽 없이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보좌와 다른 총관리 역원들이 동행한 가운데 브라질의 쿠리티바, 파나마의 파나마시티, 그리고 아이다호의 트윈 폴스에서 세계의 새로운 성전을 헌납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큰 특권이었습니다. 이로써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성전은 128개가 되었습니다.

각 성전의 헌납식이 거행되기 전날 저녁에는, 멋진 문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브라질의 쿠리티바에서는 성전 구역에 거주하는 4,330

브라질의 교회 역사가 춤과 노래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1940년에 쿠리티바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와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장로를 묘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진이 대형 화면에 비춰지자, 관중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한 마디로 영광스러운 행사였습니다.

파나마의 파나마시티에서, 성전 헌납식이 있기 전날 저녁, 우리는 약 900명의 청소년들이 파나마 전역에서 운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채로운 민속 의상을 입고 가족과 우정, 신앙의 메시지를 담은 춤을 공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청소년들이 일년 동안 공연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멀리 파나마 동북 지역에 있는 산블라스 섬과 창귀놀라 등지에서도 왔습니다. 산블라스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수도까지 오기 위해 육지와 바다를 건너 꼬박 삼일 동안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 행사는 훌륭하고 영감적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아이다호 트윈폴스의 성전 헌납식 준비에서, 지역 교회 회원들은 아이다호 파일러 박람회장에다 대형 무대를 설치하고, 맨땅에는 잔디를 입혔으며, 새로운 성전에서 3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독특한 랜드마크인 슈순 폭포를 나타내기 위한 대

형 폭포를 포함하여, 여러 장식물을 설치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녁에는 3,200명의 청남 청년들이 푸른 색과 흰색의 리본을 흔들면서 공연장 안으로 들어와, 박람회장은 마치 물이 흐르는 거대한 강처럼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에 나오는 “생수”를 제목으

로 한 축하 공연에는 새로운 성전 구역 내의 열 네 개 관할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춤과 노래를 통해, 영적인 삶은 구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에 의존하고, 현실적 삶은 이 지역의 산에서 흘러나오는 시내와 강에 의존한다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 행사



이탈리아의 전임 선교사들과 교회 회원들이 로마에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있다.

를 관망하는 우리는 고양되고 교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사들을 지지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참으로 잊지 못할 뭔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맺는 우정과 추억은 영원토록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성전이 대대적인 수리를 거쳐 재헌납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 개월 내에 다른 여러 성전들이 완공될 것이며, 일반 공개와 헌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다섯 개의 새로운 성전에 대해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부지들은 이미 매입되었으며, 앞으로 다음 지역들, 즉 캐나다 앨버타 주 캘거리,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그레이트 캔자스시티 지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 건축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봉사하는 우리의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178년 전에 조직된 이래로 그래 왔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부 대표들을 만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은 교회와 우리 회원들에 대해 호감을 보였으며 협조적이고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여러 곳에는 우리의 영향이 잘 미치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32년 전에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이 그랬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역이 개방되어 그들과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김볼 회장의 간청에 따라 기도했을 때, 그 이전에는 교회에 대해 굳게 닫혀 있

던 나라들이 하나씩 열리는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일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과 영감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교회에 새로 온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문제들로, 도전들로, 실망과 상실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들 동안 많은 메시지가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연사들이 무엇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 기도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영감과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제178차 반연차 대회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 마음이 그분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진실된 간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한 집회소 밖에 성도들이 모여있다.

성실함으로 할 것이니라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삶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방법들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위 스린 장로님과 저는 세상을 참 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오래 산 사람들은 인생의 시험에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에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으며, 기쁠 때와 슬플 때가 있고, 넉넉할 때와 궁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상치도, 원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바뀔 때, 우리는 때때로 스트레스를 받고 번민하게 됩니다. 이 지상 생활의 과제 중 하나는 그러한 삶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파란 많은 인생의 시기를 긍정적으로, 즉 낙관적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려움과 도전이 올 때, 우리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희망에 찬 글귀, 즉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우리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찰스 더블류 엘리엇, “랍비 벤 에즈라”, *The Harvard Classics*, 50권 [1909~1910년], 42:1103)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폭풍을 미리 알 수 없으며, 심지어는 곧 일어날 일조차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과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 없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한 특별한 시기를 기억합니다. 취업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와 동시에 아내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진단 받았습니다. 이때는 마치 역경이 저와 제 가족을 향해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폭풍 같은 삶의 스트레스와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짓누르던 무렵, 제 아내와 저는 그것들을 떨쳐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우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를 타고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월든 호수라는, 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답고 작은 호수였습니다. 아내가 충분히 충전된 느낌을 갖게 되면, 우리는 호수 주변을 걷곤 했습니다. 아내가 걷고 싶지 않은 날에는 그냥 차에 앉아 이야기를 나

누곤 했습니다. 월든 호수는 우리가 잠시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치유를 받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월든 호수가 갖고 있는 역사, 즉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몇 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고자 했던 노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월든 호수는 우리에게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주었고, 지나치게 복잡한 삶으로부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로우가 월든 호수 독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에서 2년을 보내며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던 때는 1845년 3월이었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소유지 한쪽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철도 인부로부터 낡은 오두막을 하나 구입했는데, 그 오두막에 사용된 나무를 뜯어내고 숲에서 잘라낸 목재를 덧붙여 자신의 통나무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재정에 관해 세심하게 기록했는데, 자신이 집과 자유를 위해 단지 28달러 12센트만을 소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밭을 가꾸고 그곳에 완두콩, 감자, 옥수수, 콩, 무 등을 재배하여 간소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는 생계비를 충당할 작은 이윤을 내기 위해 2.5에이커의 땅에 콩을 심었습니다. 실로 그 이윤은 8달러 71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소로우는 시간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작은 통나무집에는 시계도 달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식물, 새, 동물들을 비롯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대한 글을 쓰고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은둔자처럼 생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날들을 콩코드 마을에 내려가거나,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통나무집으로 초대해서 계몽적인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그는 미련 없이 그 통나무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자신의 목적, 즉 단순한 생활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얻겠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앞에 인생의 다른 경험들이 놓여 있으며 이제 다른 기회들을 찾아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월든 호수에서의 경험을 통해, 소로우는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직 네 가지, 즉 음식, 의복, 거처, 그리고 연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삶의 기본적인 이 네 가지 필수 사항과 더불어 단순한 생활방식에서 오는 영적인 유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요건은 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육신과 영의 관계에 대해 계시된 진리를 통한 성스러운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 15절에는 “영과 몸이 곧 사람의 영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축복하기 위해, 주님은 어떤 음식과 물질이 우

리의 육신에 좋고 좋지 않은지를 말해 주는 건강의 율법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더불어 교리와 성약 89편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무릇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는 그들의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 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같이 그들을 지나칠 것이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18~21)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와 있는 지혜의 말씀에 관한 권고보다 더 훌륭한 권고는 없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잘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교리와 성약 89편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다면, 해로운 중독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여러분의 삶을 조절하게 됩니다. 건강한 육신과 기민한 정신과 성신의 인도라는 축복들을 얻게 됩니다.

“짜릿한 느낌이나 황홀감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어떠한 마약이나 화학 약품, 또는 위험한 습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안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불법 마약, 남용의 소지가 있는 처방 또는 비처방 약약품, 가정용 화학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2001년, 36~37쪽)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일부는 불멸의 육신과 영이 재결합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육신에 해가 되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또 다른 기본 요건은 의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단순한 삶은 검소하고 정숙한 의복을 입을 것을 요합니다. 우리의 복장과 몸차림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메시지이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정숙한 옷차림은 우리의 방패와 보호막이 될 주님의 영을 불러옵니다.

세상적인 여성 패션의 경향은 늘 극단적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성 패션 스타일을 보면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옷 한 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천으로 두세 벌의 옷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여성의 옷을 윗부분과 아랫부분에서 너무 많이 잘라냅니다. 때로는 중간 부분에서도 천을 많이 아끼려 합니다. 남성 패션도 극단적인 스타일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러한 옷들은 단정치 못하고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우 가벼운 복장에는 거의 항상 가벼운 태도가 뒤따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장과 몸차림에서 주의를 끌고 돋보이기 위해 힘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잘못된 종류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물몬경에서 생명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

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하였”습니다. 크고 넓은 건물에 있던 “유행에 민감한” 조롱하던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들은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니파이전서 8:27~28)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엔 엘돈 태너 회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정숙한 복장은 생각과 마음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또한 정숙한 복장은 자기 자신, 다른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창조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정숙함은 겸손, 점잖음,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원리의 일관성을 지키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부모, 교사 및 청소년들이 복장과 개인적인 외모에 관한 구체적인 것을 함께 토론하고, 이를 선택의지를 통해 책임으로 받아들이며, 그로써 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친구가 친구에게, 엔 엘돈 태너 회장, 친구들, 1971년 6월호, 2쪽)

이제 소로우의 세 번째 요건, 즉 거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신문은 온통 현대의 주택 위기에 대한 보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우리는 거의 교회의 연차 대회 때마다 수입의 범위를 벗어나서 생활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살 집을 결정하

는 것은 길 건너 이웃의 집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우리의 수입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 브리검 영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연단에 선 사람들이 회원들에게 빛을 지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을 들어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대부분이 그 권고를 소홀히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Conference Report, 1921년, 3쪽)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는 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부채를 지지 않으며 비상사를 위해 저축하라는 권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소, 근면, 절약, 검약 등의 습관을 실천하고 키워야 합니다. 관리를 잘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이자를 내지 않고, 이자를 벌어들입니다.

소로우의 마지막 필수 요건은 연료입니다. 우리는 연료와 에너지의 가격 상승, 그 제한된 공급량, 공급자에 대한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의존성, 그리고 지속적인 대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 많은 말들을 들어 왔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정부 및 산업계 지도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연료는 영적인 연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계획을 마련해 주셨지만, 필멸의 여정을 마치려면 영적인 연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왔을 때 그를 맞이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저장해 두었던 현명한 다섯 처녀를 본받기 원합니다.(마태복음 25:6~10 참조) 영적인 연료를 충분히 저장해 두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런 뒤 의롭게 생활하며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받습니다.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는 이 연단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의로움에는 위대한 단순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는 의로운 길이나 불의한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길을 택하면, 우리의 행위는 하늘로부터의 권능이 담겨 있는 의로움의 원리에 의해 지지받게 됩니다. 나쁜 길을 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하늘의 약속이나 권능은 주어지지 않으며 우리는 혼자가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의로움”,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103쪽)

소로우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논쟁한 기억이 없습니다.”(Mardy Grothe, comp., *Viva la Reptee*[2005], 181쪽)

삶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방법들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감에 찬 권고와 지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신의 동반을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이 필멸의 여정을 향하는 동안 영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필멸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를 준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우리는 모두 선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¹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²고 지시하셨습니다.

회복의 기간에 주님은 그 명을 반복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³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 사업의 기초이며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및 끝까지 견뎌를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⁴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의 의무입니다.

저는 개종자들과 미래의 세대들, 그리고 선교사들의 삶에 미치는 선교 사업의 놀라운 영향과 축복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과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열네 살이었던 어느 아름다운 8월의 아침에, 프리나 장로와 퍼킨스 장로가 저희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참된 본성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방문을 통해 그들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방문 이후에 열일곱 살이었던 다이나 언니와 저를 제외한 우리 가족들 대부분은 선교사들의 이야기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저는 마음속에서 성신의 증거를 느꼈고 그 메시지가 참되다는 영적인 확신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몰몬경 한 권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우리는 책을 먼저 읽기 위해 집까지 경주를 하곤 했습니다. 먼저 집에 도착한 사람이 몰몬경을 읽는 동안 다른 사람은 식사 시간까지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다가 급히 식사를 하고 나서야 몰몬경을 읽을 차례가 되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몰몬경 읽기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곧 침례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뜻 허락을 해주었지만 어머니는 주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하여 허가서에 사인을 받는 데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던 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물몬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유하고 있는 전임 선교사들.

어머니와 우리의 나머지 형제 자매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영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들으신 후에, 어머니는 선교사들에게 가서 다시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몇 주 후에 어머니와 여동생과 남동생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 삶에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우리 집에 보내 주신 선교사들에 대한 제 깊은 감사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회복된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고, 저는 이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몇 달 이 지나지 않아 다이나 언니와 저는 산살바도르에서 지역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통해 우리는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침례의 물가로 데려오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둘 다 중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저의 선교 사업은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

쳤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영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전에 대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이해가 커졌습니다. 순종하려는 소망과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열의도 커졌습니다. 구주와 그분의 무한한 속죄에 대한 간증이 강해졌습니다. 저의 선교사 경험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은 저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제 가족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은 선교 사업이 그분의 삶에 끼쳤던 영향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저의 선교 사업은 그 이후 47년 동안 제게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47년 동안 제가 저의 선교 사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날이 하루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날이 언제였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⁵

몇 년 전에 저의 손자 크리스천이 여덟 살이 되어 큰 기대를 안고 침례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기 어머니에게 제가 연사 중 한 분으로 개종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지 묻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아주 중요해요.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제가 침례를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아시겠어요? 지금의 제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을 할 때, 그 영향력이 이처럼 멀리까지 미친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가족에서 복음의 축복은 이제 4대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우리가 한 소녀를 구원할 때 우리는 여러 세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⁶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성전에서 결혼했고 여덟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로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 여섯은 결혼했고 모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은 34명이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남편과 저는 선교사로 봉사했고 우리 두 아들과 여섯 딸들 중 셋도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모두 합해서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도왔습니다. 그 개종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일부 또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선교 사업은 교회의 원동력입니다. 이보다



부부 선교사가 나이지리아의 한 지역 회원을 방문하고 있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사업은 없습니다. 선교 사업은 그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미래의 세대들도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자문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선교 사업을 도울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 사업에 참여할 때 마음에 새겨 둘 두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구원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8편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으로 인한 그의 기쁨은 얼마나 크고!” 둘째,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리라는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선교 사업은 네 가지 측면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가르칠 사람들을 찾음, 가르치고 침례를 줌, 새로운 회원을 위한 토론 및 우정 증진, 그리고 저활동 회원을 위한 토론 및 우정 증진입니다.⁷ 교회의 모든 회원,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들은 이러한 노력들 중 일부 또는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가 됨으로써 시작하십시오. 의로움과 친절의 모범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미소에서 사랑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보여주십시오. 복음에 중심을 둔 생활을 하

십시오.

그런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선교 사업의 노력을 하십시오.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두세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시키십시오.
- 여러분 자신이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교사 토론을 권유하거나 교회 모임과 활동에 참석하도록 초대하십시오.
- 선교사들과 동반하여 구도자의 집에 가거나 여러분의 집에서 선교사들이 비회원을 가르치도록 초대하십시오.
- 여러분의 집에서 하는 가정의 밤에 사람들을 초대하십시오.
- 사람들을 가족 역사 센터에 초대하거나 가족 역사 조사를 하도록 도우십시오.
- 선교사들에게 구도자를 소개하십시오. 회원들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소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간증을 나누십시오.
-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기회를 찾으십시오.
- 구도자와 새로운 개종자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 진리를 구하고 있는 자들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수고의 결과로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선교 사업에 대한 더 큰 열의는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 전체를 강화할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여러분의 수고의 효력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딸 마지는 2학년이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를 초등학교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성찬식 발표에서 일부분을 맡았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과거에 선교사들을 거절한 적이 있었지만 마지가 한 움큼의 교회 소책자들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조셉 스미스와 첫번째 시현에 대한 딸의 단순한 설명과 간증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딸이 계속해서 초등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선교사들의 복음 토론을 듣고 침례를 받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와 아내는 침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모든 나라에 전해져야 하며, 우리는 그분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크게 축복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3:5.
2. 마태복음 28:19~20.
3. 교리와 성약 18:14.
4.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년), 1쪽.
5. 제프리 알 홀랜드, “속죄”(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 2007년 6월 26일), 1쪽.
6. 고든 비 헝클리, “Our Responsibility to Our Young Women”, *엔사인*, 1988년 9월호, 10쪽.
7.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19쪽.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닐 엘 앤더슨
칠십인 회장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빛과 진리로 가득한 거대한 영적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임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몬슨 회장님께서 다섯 개의 새로운 성전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하셨을 때, 저는 전 세계 모든 대륙의 큰 도시와 작은 마을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하나의 큰 가족이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생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끝까지 그를 섬길 결심”¹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힘과 확신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있는 한편, 의혹과 혼란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면서 영적인 힘을 찾기 힘들거나 우리가 부적합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영광의 일부분은 이러한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의해 나타납니다.

40년쯤 전에 제가 선교 사업을 고려하고 있었을 때, 저는 매우 부적합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믿었지만 저의 영적인 지식이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하는 동안 이런 느낌이 왔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나 충분히 알고 있느니라” 이러한 확신은 저에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은 일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여정의 시작이나 중간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개종은 한걸음 한걸음씩 이뤄집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초를 세웁니다. 우리는 회개,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 원리와 의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계속해서 물몬경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몬경은 강력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후에 필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인내해야 합니다. 때때로 주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대답하실 것

입니다. 니파이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²

제가 유럽 남부의 한 선교부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한 날 한 새로운 선교사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요청하여 선교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떠날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부 회장님 집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는 저에게 학습장애와 입양으로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에는 무능력하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앤더슨 형제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자, 제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확신과 강한 느낌이 전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느니라. 그는 그것을 알고 있느니라.”

그에게 몇 분 동안 더 이야기하게 한 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의 말에 무척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정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 말을 하자, 저에게 말했던 그 영이 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앤더슨 형제님.”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귀중한 영적인 지식은 그의 의혹을 신앙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선교부에 남은 힘을 찾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영적인 힘을 받는 때, 영감과 계시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위한 영적인 힘을



비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하는 바를 명심하여 행하라”³고 말씀 하셨습니다.

몇 해 전, 제 친구는 비참한 사고로 어린 딸을 잃었습니다. 그가 품어 온 희망과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 친구는 슬픔을 견딜 수 없는 나머지 자신이 믿어 왔던 것에 대해 의혹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어머니가 제게 편지를 보내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신앙은 단지 느끼는 것일뿐만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 친구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 일이 있는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얼마 전 저는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그 친구의 아들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확신과 간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택한 아버지의 선택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크게 축복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역경, 고난, 의혹, 의심 - 이러한 것들은 필멸의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빛과 진리로 가득한 거대한 영적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신앙은 우리의 마음속에 동시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 속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 단계를 거둬서 밟게 됩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⁵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혹과 의심이 사라지거나 덜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수하고 순결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⁶

해들리 페이지는 현재 일곱 살입니다. 해들리

는 매우 심각한 청각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광범위한 수술이 필요했으나, 수술을 해도 제한적으로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해들리의 부모님은 아이가 말하는 것을 배우도록 꾸준히 훈련시켰습니다. 해들리와 그 가족은 청각 장애라는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한번은 해들리가 네 살 때, 어머니와 함께 식료품점의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해들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작은 소년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들리는 그 소년에게 다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해들리는 말하는 것을 배우기는 했으나 목소리의 크기를 잘 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들리는 큰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그 소년에게 다리가 없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리고 알기 쉽게 해들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모두 다르게 만드신단다”하고 설명했습니다. 해들리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해들리는 그 작은 소년을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내 귀가 들리지 않게 하신 걸 알고 있지? 그게 날 특별하게 한단다. 하나님은 널 다리가 없이 만드셨고, 그게 널 특별하게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 귀는 들리게 되고 너에게는 다리가 생길 거야.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들리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부활 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신권이 지상에서 회복되었고 오늘날 그분의 선지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입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주

1. 모로나에서 6:3
2. 니파이전서 11:17
3.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누가복음 14:28
4. 마가복음 5:36
5. 교리와 성약 50:24
6. 마태복음 18:3

나의 아버지께서 몰몬경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티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몰몬경을 읽고 그것이 담고 있는 약속을 적용해 보시길 권유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책이 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끼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할]”(교리와 성약 50:22)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940년 6월 2일을 저희 가족의 역사

에서 매우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이날 저희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침례 준 선교사 중 한 명이었던 잭 맥도널드 장로는 그의 부친에게 쓴 편지에서 그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지난 주 일요일은 특히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선교사인 저희들은 시외 강둑 가장자리를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존스 장로와 제 [맥도널드 장로]가 우리의 첫 번째 침례를 행했습니다. 안토니 아이두카이티스 형제는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고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늘은 매우 청명했고 들은 매우 평화롭고 푸르렀습니다. 우리 중 위대한 영향력의 잠재하심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이 신회원과 함께 걷는 동안, 그는 그날이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날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침례였지만, 저나 그 누구의 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개종했습니다.”

이 일이 제 인생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분의 행동에 대해 선견지명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날 아버지가 하셨던 일로 인해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30여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리고 축복할 것입니다.

리투아니아인인 아버지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브라질로 이주해 오셨습니다. 그의 영어 실력은 개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몰몬경이 포르투갈어로 제대로 번역되어 있지 않던 시기에 영어로 그 책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어머니는 몇 년 후에야 교회에 들어오셨지만, 교회 회원이 되신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서 타인에 대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강력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92세 되신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훌륭한 충실함으로 인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음은 제게 큰 기쁨을 줍니다. 저는 또한 어머니의 이름을 영원히 기리고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 당시 당면했던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침례 받기로 한 그분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침례받지 않으셨습니다. 음주와 흡연의 습관들은 그에게 있어 강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그가 침례 받으면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질에는 회원이 300명도 되지 않았고 예배당도 하나 없었지만, 저는 정말 아버지의 확고함과 용기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희 아버지는 그토록 많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몰몬경을 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은 회복된 메시지의 참됨을 알게 되셨습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개종에 있어서 영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자원이다.”(2004년, 104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학식이 많은 적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은 사람들은 그 책의 권능에 의해 발전했습니다. … 이전에 몇 번을 읽었든지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영이 임할 것임을 주저 없이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강화될 것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실재성에 대한 간증이 강화될 것입니다.” (‘몰몬경의 권능’, *엔사인*, 1988년 6월호, 6쪽; 또한 “몰몬경,” *Tambuli*, 1988년 10월호, 7쪽 참조)

이 약속은 저희 아버지와 가족에게도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르침 받은 대로, 가족으로서 매일 경전을 읽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에서 몰몬경을 여러 번 읽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약속된 바와 같이, 주님의 영이 우리 가족의 마음에 임했으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이 강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실재성에 대한 간증이 강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몰몬경이 참됨을 알 때에, 여러분은 조셉

스미스가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임을 압니다. 오늘날 지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있으며, 고대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모든 신권 열쇠와 그것들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이 올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의식을 행하고 계명대로 생활하며 끝까지 견디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몰몬경을 받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에도 읽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허락하고, 몰몬경에 대해 알아보기를 거절하며, 그 책이 제공하는 영적인 만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가치 없는 양 팽개쳐

두는 사람들을 볼 때 슬픕니다. 저에게 있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마치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뜯어 보지도 않은 채 읽으려 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는 버릇 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로나이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나온 모로나이의 권고를 따를 때 그분의 진리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모로나이의 지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 첫째, “몰몬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깊이 생각한다.
- 둘째,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과 조셉 스미스가 회복의 선지자라는 간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 셋째,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정한 의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

에 따라 행동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1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겸손해질 때 이런 것을 알 수 있다고 간증드립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시거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권능이 없으시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부가 이 책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공경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물몬경을 읽고 그 약속을 이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공경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조차도 자신이 받은 응답을 저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공경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대하신 것을 행할 용기를 가짐으로써 제 인생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물몬경을 읽고 그것이 담고 있는 약속을 적용해보시길 권유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책이 참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간증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가 물몬경을 저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오늘날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모든 신권 열쇠와 그것들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임을 압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성찬식과 성찬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찬의 의식을 통해 성찬식은 교회에서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모임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언한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1 참조)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처에서 유혹적인 우회로를 봅니다. 우리는 마음이 산란해지고, 퇴보하며, 의기소침해지거나 낙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인도해 주고 그 길을 계속 가도록 지켜주는 주님의 영을 어떻게 지닐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현대의 계시를 통해 다음의 계명에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교리와 성약 59:9~10)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매주 합당하게 성찬식에 참석함으로써 “항상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교리와 성약 20:77)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 간증의 토대입니다. 그 영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 영은 인생 행로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나침반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이 성신의 은사가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Deseret Weekly, 1889년 4월 6일, 451쪽).

I. 성찬의 의식을 통해 성찬식은 교회에서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모임이 됩니다. 이 모임은 모든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일 모임입니다. 성찬뿐 아니라 이 모임의 모든 순서는 항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가르침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찬식에 대해 생각하면 유타 주의 작은 마을에서 제가 집사에 성임되어 성찬 전달에 참여했던 때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 시절과 비교할 때, 오늘날 제가 여러 다른 와드에서



참석하는 성찬식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대체로, 회원들이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며 취합니다. 필요한 행사를 포함하여 모임의 사회는 간결하고 품위 있으며, 말씀은 내용과 전달 면에서 영적입니다. 음악은 적절하며,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표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어린 시절의 경험 이래로 크게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종종 예외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 자라나는 세대들과 심지어 일부 성인들도 아직 이 모임의 중요성과 이 모임에서 유지해야 하는 개인적인 경건과 예배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제 이 중요한 원리들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 분들에게, 또한 주님의 인도하는 영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된 영적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느낌을 받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I.

저는 먼저 교회 회원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넬슨 장로님은 교회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성찬식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셨

습니다. “우리는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속죄를 기념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찬식에 옵니다. 그것은 안식일 준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넬슨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 예배’,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12쪽)

우리는 모임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자리에 앉습니다. “그 정숙한 짧은 시간 동안, 전주 음악이 나직하게 울립니다. 이 시간은 대화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성찬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하는 시간입니다. (리아호나, 2004년 8월호, 13쪽)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피를 흘리는 것으로 바치는 희생을 멈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리라”(제3니파이 9:20)고 명하셨습니다. 그 계명은 우리에게 매주 성찬을 취하라고 명하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 다시 주어졌으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넬슨 장로님이 가르치셨듯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성찬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리아호나, 2004년 8월호, 14쪽)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자신의 저서 구

원의 교리에서 세상의 구속을 위한 구주의 죽음과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성찬을 취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의식이 주어진 이유는 주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미스 회장은 또한 “우리가 항상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을 지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3권[1954~1956년, 2:341])

III.

어떤 옷차림을 하느냐는 우리가 참여할 활동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준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가 수영이나 하이킹 또는 바닷가에 놀러 간다면, 우리의 복장과 양말 및 신발은 이러한 활동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때 우리의 복장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전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우리가 참여하는 의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존중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성찬식 동안-특히 성찬이 축복되고 전달되는 동안-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그 외의 다른 모든 행동, 특히 다른 사람의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심지어 조용히 조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성찬 모임은 책이나 잡지를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청소년 여러분, 성찬식은 속삭이는 목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항상 구주를 기억하겠다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습니다. 성약을 맺는 바로 그 모임에서 명백히 그 성약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찬식의 음악은 우리 예배에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전은 의인의 노래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가르칩니다.(교리와 성약 25:12 참조) 제일회장단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되기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찬송가, ix쪽) 모든 참석자가 함께 찬양드리는 것은 - 특히 우리가 성찬을 취할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찬송을 부르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모든 성찬식 음악은 주의 깊은 계획을 요하며, 이 음악은 예배를 위한 것이지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성찬식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구속주의 사명에 대해 숙고하고, 복음의 구원 교리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지 다른 목적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락, 웃음, 경박한 생각은 모두 후기 성도의 성찬식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성과 온유한 마음으로,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으로 모여야 합니다.”(구원의 교리, 2:342)

이렇게 할 때, 즉 우리가 성찬 의식과 이 모임의 예배에 항상 있어야 하는 엄숙함에 동참할 때, 우리는 영의 동반과 계시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인도를 받고 화평을 얻는 방법입니다.

IV.

부활하신 주님이 미대륙을 방문하여 충실한 니파이인들 가운데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그분은 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찬의 상징물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그분의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시며(제3니파이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한 청년이 대회 방송 시정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18:1~10 참조)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또 이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는 자들에게 항상 행할지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라.

“... 너희가 항상 이를 행할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지어졌음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보다 많거나 적게 행할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아니하였고, 모래의 기초 위에 지어졌나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에

게 부딪칠 때에, 그들이 넘어질 것이요,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 그들을 맞으리라.”(제3니파이 18:11~13)

성찬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피의 희생과 번제를 대체한 의식이며, 다음과 같은 구주의 약속을 수반합니다.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제3니파이 9:20)

V.

이제 저는 특별히 성찬을 집행하는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의식은 항상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회중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제



아르헨티나의 한 가족이 대회가 방송되는 동안 함께 모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들은 성약과 약속된 축복을 나타내는 기도를 천천히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교사들과 전달하는 집사들 역시 매우 성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12세의 집사였을 때 감독님의 부탁으로 침상에서 이 축복을 애타게 기다리던 형제에게 어떻게 성찬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분이 감사를 표할 때 압도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거룩한 땅에 서 있었습니다.”(Inspiring Experiences that Build Faith, [1994년], 188쪽) 이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찬 의식을 집행하는 청남들은 합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교리와 성약 38: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경고(고린도전서 11:29, 제3니파이 18:29 참조)는 또한 분명히 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심각한 죄를 범한 교회 회원들에게 선도 조치를 내릴 때, 감독은 성찬을 취하는 특권을 일시적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권세로 그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특권도 분명히 거두어 들일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적절한 복장의 중요성에 대해 제가 앞서 언급한 것은 당연히 어떤 부분이든 그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아론 신권 청남들에게는 특히 더 적용됩니다. 그들은 모두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정숙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끌게 하거나 또는 참석자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 성스러운 의식의 목적인 성약을 맺는 데 방해가 되는 모양새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님이 13년 전 연차 대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소중한 가르침을 주

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현재의 집사들은 대부분 태어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과 그들의 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유익을 위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찬을 다루는 집사, 교사, 그리고 제사들은 어디에서든 가능한 한 흰 셔츠를 입을 것을 권유합니다. 교회의 성스러운 의식들에서, 우리는 흔히 의식복을 입으며, 흰 셔츠는 여러분이 침례반에서 입었던 하얀 의복을 조용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지않아 여러분이 성전에서, 그리고 선교 사업을 할 때 흰 셔츠를 입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도의 벗, 1996년 1월호, 67쪽)

마지막으로, 성찬은 오직 이 신권 의식에 대한 열쇠를 가진 사람이 승인할 때만 집행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가족 모임에서 신권 소유자가 충분히 있더라도 성찬 의식을 갖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찬대에서 집행하는 사람들, 성찬을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회중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 의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행사하는 사람에 의해 지명 받아야 합니다. 감독단과 교사 정원회 회장단 및 집사 정원회 회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집은 질서의 집이요.”(교리와 성약 132:8)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선택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영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 [고]”(교리와 성약 59:9) 필멸의 삶에서 안전한 길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청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위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나아오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또한 그 훌륭한 모임에서 매주 성찬을 취하고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게 해 주시겠다는 소중한 약속에 합당하도록 성약을 맺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저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겸손히 기도드립니다. 속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무한한 소망의 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권능에 대한 소망은 어려운 도전의 시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를 통해 다섯 개의 새로운 성전이 발표되는 것을 본 이 얼마나 영광스런 날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저의 아버지는 독일 군대에 징집되어 서부 전선으로 보내졌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가족을 돌보셔야 했습니다. 제가 비록 세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당시의 공포와 배고픔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날이 지날수록 전쟁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결국, 1944년 추운 겨울에, 제 어머니는 그분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독일로 탈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겨울 옷으로 우

리를 감싸고 서쪽으로 향하는 마지막 난민 수송열차에 간신히 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폭발음과 근심에 찬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배고픔은 우리가 전쟁 지역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열차는 종종 보급품을 얻기 위해 정차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열차가 정차했을 때, 어머니는 네 명의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찾기 위해 서둘러 기차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열차와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근심으로 가득 찬 어머니의 마음은 동시에 필사적인 기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넓고 어두운 기차역을 미친 듯이 이리저리 살폈고, 수많은 열차 선로를 다급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차가 아직 떠나지 않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랐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 캄캄한 밤에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기 위해 음울한 기차역을 헤매는 동안 어머니가 마음 속에 느꼈던 그 절박한 감정들 모두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겁에 질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분명 열차를 찾지 못한다면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두려움을 이겨냈고, 어머니의 소망이 절망을 이겼음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아 비극을 슬퍼하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선로에서 저 선로로, 이 기차에서 저 기차로 뛰어다니셨고 마침내 우리가 탄 기차를 찾아내셨습니다. 그 열차는 역의 외진 곳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거기서 결국 어머니는 아이들을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 밤과 어머니가 감당해야 했던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로 돌아가 어머니 옆에 앉을 수만 있다면,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 여쭙볼 것입니다. 저는 신앙과 소망에 대해 그리고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여쭙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오늘 저는 여러분 곁에, 그리고 낙담해 있거나, 근심하고 있거나 혹은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한한 소망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망의 중요성

소망은 신앙과 사랑과 함께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에서 하나의 다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때때로 거칠거나 고르지 못한 표면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 줍니다.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 경전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경전이 쓰여진 목적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¹ 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 주는 힘이 있습니다.²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마음 속에 소망 갖기를 미룰 때, 소망의 부재는 “마음을 상하게”³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영의 은사입니다.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영생으로 부활한다는 소망이며, 이는 구주를 믿는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다.⁵ 이런 소망은 약속의 원리이자 계명이며,⁶ 우리는 모든 계명과 함께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하고 소망을 잃게 하는 유혹을 극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행복의 계획에 대한 소망은 평강,⁷ 자비,⁸ 기쁨⁹과 즐거움¹⁰으로 이어집니다. 구원에 대



한 소망은 보호해 주는 투구¹¹이며 신앙의 기초가 되고¹² 우리의 영혼에 닿아 됩니다.¹³

모로나이는 홀로 외로이-그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후 조차도-소망을 믿었습니다. 니파이 백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모로나이는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기록했습니다.¹⁴

그렇다면 왜 절망이 있는 것인가?

경전에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¹⁵ 있어 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원리는 신앙, 소망, 사랑에도 적용되며, 반대되는 것, 즉 의심, 절망, 그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어 우리의 선택과 소중한 축복들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숨막히는 어둠 속에 사로잡기 위해 절망을 이용합니다. 절망은 우리에게서 활기 있고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고갈시키고 공허한 삶의 자취만을 남기며 떠납니다.

절망은 의욕을 죽이고, 아픔을 촉진시키며, 영혼을 더럽히고, 가슴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절망은 영원히 아래로만 이끄는 계단과 같습니다.

반면 소망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는 한계

의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빛 줄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여명으로 어둠을 뚫습니다. 그것은 상대주의, 혼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준비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 어린 보살핌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고무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소망이란 무엇인가?

언어의 복잡성으로 인해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와 정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장아장 걷는 아이는 장난감 전화를 소망할 것이고, 청소년은 절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바랄 것이며, 어른은 단순히 전화가 전혀 울리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일상적인 소망을 뛰어넘어 이스라엘¹⁶의 소망, 인류의 위대한 소망, 곧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는 소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망은 아는 것이라기보다는,¹⁷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산다면 장래

에 바라는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¹⁸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 낙관, 열정, 그리고 끈기와 인내로 나타납니다.

복음의 언어에서, 이러한 소망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적극적인 것입니다. 고대의 선지자들은 “굳은 소망”¹⁹과 “산 소망”²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으로 기쁨과 행복이 옵니다.²¹ 소망으로 우리는 “인내를 갖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참을 수”²²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우리가 믿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종종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필멸의 삶의 경계를 넘어 이생 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며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될 것이므로²³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속죄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며 순결하고 거룩하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²⁴ 구주께서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화평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선물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식과 행복 안에서 진보하면서 우리는 무한한 기쁨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²⁵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삶이라는 책의 결말이 우리의 원대한 기대를 넘을 것임을 바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²⁶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것은 시련과 유혹, 슬픔 속

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모든 사람은 낙담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암흑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회복된 복음의 신성한 원리들이 다시 한 번 우리가 빛 안에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성신의 나타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충실히 지키셨으므로, 현재와 미래에도 그분께서 하시는 약속을 지킬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바라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비탄과 걱정과 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고를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²⁷는 소망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권능에 대한 이와 같은 소망은 어려운 도전의 시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두려움과 의심, 절망의 벽에 갇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소망은 선행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음마를 배우듯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소망을 키우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지혜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완전한 십일조를 낼 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²⁸ 우리가 “보다 온전히”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²⁹ 하는 우리의 능력은 커집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이 소망을 반대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위해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³⁰ 혹은 다른 저자가 표현했듯이 “한겨울에도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서 움추러들지 않는 여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³¹

신앙과 소망, 사랑은 서로를 보완해 주며,



그 중 하나가 커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커집니다. 신앙이 없이는 소망도 없기에,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³³ 마찬가지로, 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에, 신앙은 소망에서 비롯됩니다.³⁴

소망은 신앙과 사랑 모두에 중요한 것입니다. 불순종, 실망, 나태가 신앙을 갇아먹을 때,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시켜 줍니다. 좌절과 조바심이 사랑을 위협할 때, 소망은 우리의 결심을 강화시켜 주고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이웃을 보살피라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더 밝은 소망을 지닐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커집니다. 우리의 소망이 강해짐에 따라 우리의 사랑은 더 순결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며, 우리가 믿는 것들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신앙,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자질들은³⁵ 함께 작용하며, 진리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끕니다.³⁶



개인적으로 경험한 소망

소망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은 자신감을 일으키고 더 큰 소망으로 이끕니다. 저는 제 삶에서 소망의 힘을 직접 배웠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대전의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있었던 어린 시절과, 부족한 교육의 기회, 청소년기에 생명을 위협했던 건강 문제들, 그리고 피난민으로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조차도 걱정하거나 바라기만 하지 않으시고 전진하며 신앙과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셨던 어머니의 모범이 우리 가족과 저를 지탱해 주었으며, 현재의 상황이 미래의 축복에 이르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신앙을 강화시켜 주고, 밝은 소망을 주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소망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소망은 사방이 어두워 보일 때조차도 기뻐할 이유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호와의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³⁷고 선언합니다.

요엘과 마찬가지로 저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³⁸라고 증거합니다.

니파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나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 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뻑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 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³⁹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중히 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망의 자질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소망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이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구주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⁴⁰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심시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⁴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버리고 신앙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을 “영접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기다리실 것입니다.⁴²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낙담해 있거나, 걱정하고 있거나, 외로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저는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깊은 염려를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결코, 절망이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은 모든 암흑을 뚫고, 모든 슬픔을 털어 주며, 모든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증과 여러분에게 남기는 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

주

1. 로마서 15:4
2. 시편 146:5 참조.
3. 잠언 13:12.
4. 모로나이 8:26 참조.
5. 모로나이서 7:41 참조
6. 골로새서 1:21~23 참조.
7. 로마서 15:13 참조.
8. 시편 33:22 참조.
9. 로마서 12:12 참조.
10. 잠언 10:28 참조.
11. 데살로니가전서 5:8 참조.
12. 히브리서 11:1, 모로나이서 7:40 참조.
13. 히브리서 6:19, 이터서 12:4 참조.
14. 이터서 12:32; 또한 로마서 8:24 참조
15. 니파이후서 2:11
16. 예레미야 17:13 참조
17. 로마서 8:24 참조.
18. 교리와 성약 59:23 참조
19. 엘마서 34:41
20. 베드로전서 1:3
21. 시편 146:5 참조
22. 엘마서 34:41
23. 엘마서 11:45 참조.
24. 니파이후서 2:6~10 참조.
25. 히브리서 5:9 참조.
26. 고린도전서 2:9
27. 교리와 성약 90:24
28. 로마서 15:14 참조.
29. 로마서 15:13
30. 로마서 4:18
31. 알베르 카뮈, in John Bartlett 편, *Familiar Quotations*, 17판, (2002년), 790쪽.
32. 이터서 12:4 참조.
33. 모로나이서 7:42 참조.
34. 히브리서 11:1
35. 모로나이서 10:20 참조
36. 엘마서 7:24 참조.
37. 예레미야 17:7
38. 요엘 3:16
39. 니파이후서 31:20
40. 요한1서 3:3
41. 교리와 성약 6:34
42. 물몬서 6:17

교회 역원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또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그리고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제일회장단의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그리고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얼 시 텅기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과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해임하며, 셸던 에프 차일드 장로를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해임하고, 그들을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 지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제럴드 엔 린드 장로와 로버트 알 스투어

장로를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훌륭한 봉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2008년 11월 1일로 조지 에이 로자스 장로와 티 라 마 슬레이트 장로를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제이 이 젠슨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그리고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몬슨 회장님, 제가 지켜본 바,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모든 지지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신앙, 그리고 헌신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십시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역경 앞에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행복해지고 성공하느냐에 관한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 하는것을 좋아했고 그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억이 모두 즐거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풋볼 팀이 힘든 경기에서 진 후에, 저는 낙담한 채로 집에 왔던 일이 기억납니다. 어머니가 저를 맞아 주셨고, 어머니는 저의 슬픈 이야기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과 형제들을 서로 신뢰하고, 운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제게 주신 어머니의 충고가 전혀 의외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저를 받쳐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사랑하거라.”

저는 종종 그 충고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아마 어머니는 모든 삶에는 굴곡이 있고 세상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낙담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힘든 시간 속에서 배우고, 더 강해지며, 더 현명해지고, 결과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총관리 직원들은 고통이나 역경, 혹은 낙담과 같은 것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단상에 계신 분들 모두 풍성한 기쁨을 경험했지만, 또한 각자 커다란 실망과 슬픔, 그리고 상실을 겪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지혜로 어떤 사람이 비탄과 슬픔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제 경우, 주님은 하늘 문을 열고 저와 제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제 삶에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짐이 무겁게 느껴졌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풋볼 게임에 진 후 큰 슬픔에 빠졌던 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곤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이후에 제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슬픔과 비탄의 시기를 지날 때마다, 어머니가 해 주신 “어떤 일이 닥쳐 오든, 그것을 사랑하거라”는 말씀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한 날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겠지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럴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의 의미가 낙담한 것을 억지로 감추거나 고통의 실재를 부인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쾌한 진실을 거저된 행복의 가면 아래 숨기라고 하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경 앞에서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이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행복해지고 성공하느냐에 관한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역경에 대처한다면,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큰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가장 큰 행복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저는 시험과 시련의 날들에 저를 도와주었던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웃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웃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운전 중에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마치 자신의 명예와 가족, 개, 그리고 아답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들이 전부 모욕을 당한 것처럼 화를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찬장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 머리가 부딪혀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화풀이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때를 위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웃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우고 로스앤젤레스로 가던 때를 기억합니다. 차에는 아홉 명이 탔는데 길을 잃어버리기가 일수였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기보다는 웃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 어설 때마다, 우리는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길을 잃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은 유타 주 시더시티를 향해 남쪽으로 가는 도중 길을 잘못 들었는데, 두 시간 뒤 “네바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표지판을 보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웃었고, 그 결과 분노와 원망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웃음은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딸들 중 하나가 소개팅을 하러 나갔던 때가 기억납니다. 제 딸은 옷을 차려 입고 테이트 상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약간 나이 들어 보이는 한 남자가 걸어 들어 왔지만, 그녀는 그를 정중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딸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그 남자를 인사시킨 후,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차에 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다. 마침내, 제 딸이 얼굴이 빨개진 채로 차에서 내리더니 다시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 또 다른 딸 하나가 한 부부의 아기를 돌봐 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제 딸이 소개팅 상대로 생각했던 그 남자는 제 다른 딸이 돌봐 주기로 약속했던 그 아기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껏 웃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 딸의 진짜 소개팅 상대가 나타났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부엌에서 계속 배꼽을 잡고 웃느라

그를 만나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무안하고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딸도 우리와 함께 웃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즘도 그 일에 대해 얘기하며 웃곤 합니다.

다음 번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때가 왔을 때, 그렇게 하는 대신 웃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여러분의 삶을 연장시키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즐겁게 해 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역경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오직 자신에게만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흔들면서 “왜 하필 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슬픔의 시계바늘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순간에 반드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경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에서 아브라함, 사라, 예녹, 모세, 조셉, 에머 및 브리검 등과 같은 위대하고 숭고한 사람들의 모범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 그들의 성품을 시험하고, 강화하며, 정확시키는 역경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실망과 고통, 슬픔의 시간들을 견디는 방법

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실질적인 것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비록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지만, 우리들의 이해력을 넓혀 주고, 성품을 키우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키우게 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경험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해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의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통 받고 있을 때 그에게 주신 구주의 숭고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들이야,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너는 너의 모든 원수를 이기리라.”¹

그와 같은 영원한 안목을 가지고, 조셉은 그러한 말씀에서 위안을 얻었으며,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압도할 것 같은 바로 그 고통의 순간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보상의 원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번째 일은 보상의 원

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실한 자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취해진 것들은 그분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다시 더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랄 때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충실한 자들은 오늘 흘리는 눈물이 결국에는 백배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축복 중 하나는 죽음의 휘장이 우리의 필멸의 삶의 끝을 알릴 때, 휘장 저편에서도 삶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보상의 원리가 효력을 미칩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제 손자 조셉은 자폐증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폐증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은 아이의 부모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셉이 결코 다른 아이들처럼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조셉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자폐 아동은 흔히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조셉은 저를 볼 때마다 저를 꼭 안아 줍니다.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 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그가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야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는 외야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그는 볼을 잡기 위해 뛰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야구를 훨씬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공이 자기 방향으로 날아오면, 조셉은 그 공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 주머니에서 다른 공을 꺼내 투수에게 던졌습니다.

가족이 조셉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과 치러야 했던 희생은 열 배의 보상이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이 특별한 영으로 인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이웃, 친구들의 관대함과 따뜻한 마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조셉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선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번째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²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동료이자, 조력자이며,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분이 나서실 것입니다.

만물보다 낮아지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고난중에 우리를 강화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³

제 딸 중 하나가 아이를 낳은 후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딸을 위해 기도하고, 병자축복을 했으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치유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희망했지만, 날이 가고, 달이 바

뀌고 수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딸에게 이 역경이 그녀가 일생 동안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작은 카드를 꺼내 그것을 타자기에 넣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딸을 위해 적은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한 비밀은 이것이란다. 주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거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기거라.”

제 딸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수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지만 때가 이르자 주님께서 제 딸을 축복하셨고, 마침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저는, 비록 그녀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계속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나머지신 그분께 맡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

비록 제 어머니는 오래 전에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제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팀이 풋볼 경기에서 지던 날 어머니가 주신 충고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거라.”

저는 왜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지 압니다. 역경은, 올바르게 대처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머를 찾고, 영원한 안목을 추구하며, 보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간다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어떤 일이 닥쳐오든 그것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1:7~8.
2. 요한복음 3:16.
3. 이터서 12:27 참조.

천사의 성역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거나
도움 받지 못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기꺼이 필멸의 삶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들은 이
별의 왕국의 세상에는 가시덤불과
영정귀, 그리고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이 깨달은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이
앞으로 견뎌낼 고난과 위협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함께 견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직접
마주보고 권고를 주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것이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이러한 선택을 했고, 그 후 창조 기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 그를 밟지는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차단되었음이니라.”¹ 그들이 근심해야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분명 이 사실이 그들에게
가장 큰 근심 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직면해야 할 도전들

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종종 얼마나 외로워하고
괴로워할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지상 가족을 끊임없이 지켜보셨
고, 항상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선지자들
을(또 이후에는 사도들을) 보내어 그들을 가르
치고, 권고하며,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
한 도움이 필요한 때에, 그분은 신성한 사자들
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
시고, 하늘이 항상 가까이 있으며 그분의 도움
이 항상 그들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이
쓸쓸하고 황량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
을 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천사가 그들에
게 나타나² 그들이 드리는 희생의 의미와 지상
에 오실 약속된 구주께서 행하실 속죄의 역할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구주의 오심이 가
까웠을 때, 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
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임을 알렸습
니다.³ 그 후, 천군 천사들이 임명되어 아기 예
수가 태어난 밤에 찬송을 드렸습니다.⁴ 그 뒤에는
한 천사가 요셉에게 새로 태어난 아기가 위
험에 처했으며, 안전을 위해 가족을 이끌고 애
굽으로 피신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⁵ 돌아
오기에 안전하게 되었을 때, 한 천사가 그 가족
에게 그 소식을 전했으며, 세 사람은 그들의 상
속의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⁶

태초부터 그리고 이후 여러 경륜의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
과 관심을 전하기 위해 천사들을 대리인으로 부
르셨습니다. 제가 이 연단에서 있는 시간으로
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베풀었던

성역의 기사로 가득한 경전과 우리 후기 성도
역사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기에도 부족
합니다만, 천사의 성역의 교리는 매우 중요하며
역사상 그에 대한 예가 실로 많이 있습니다.

보통으로 그러한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
니다. 어떤 때에는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들은 항상 가까이에 있
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들의 임무가 매우 중대
하며 온 세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때때
로 그 메시지는 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천사는 경고하려는 목적을 지닙니
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안을 주며 어
려운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비로운 돌보
심과 인도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리하이가 꿈
에서 “어둡고 황량한 광야”라고 표현한 무서운
장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한 사
람이] … 흰 옷을 입었더니 … 그가 내게 말하
여, 나에게 그를 따라오라 하였느니라.”라고
말한 한 천사를 만났습니다.⁷ 리하이는 그를
따라 안전한 곳으로 갔으며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 때때로 “어
둡고 황량한” 광야 같은 곳에서 지내게 되거나
슬픔, 공포 혹은 절망의 여전 속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에너지
문제, 테러 공격 및 자연 재앙이 만연한 시대
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는
집과 먹을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안전과 복리 및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후기의 예언과도 관련이 있
는 것입니다. 이보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일
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나라 안팎에서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지역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영적인 부패입니다. 하지만 저는 천사가 아담
과 이브를 돕기 위해, 선지자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실제로 세상의 구주 바로 그분까지도
돕기 위해 지상에 보내졌듯이, 우리를 돕기 위
해 여전히 천사들이 보내진다는 사실을 간증합
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 사탄이 그리스도
를 유혹한 뒤, “천사들이 나아와서 [그에게] 수
종드니라.”⁸라고 기록했습니다. 신이었던 하나
님의 아들조차도 지상에서의 시간 동안 하늘의

위안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의로운 자들에게 그렇게 수종을 들 것입니다. 물론이 언젠가 천사가 될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말했습니다.

“기적의 날이 그쳤더냐?”

“또는 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그쳤느냐? 또는 그가 그들에게서 성신의 권능을 거두셨느냐? 또는 시간이 지속되거나, 땅이 존속하거나, 그 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 그가 그리하시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성역을 베푸는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보라,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그의 명하시는 말씀을 좇아 성역을 베풀며, 경건의 모든 모양 중에 강한 신앙과 굳건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스스로를 보임이니라.”⁹

저는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용기를 갖고, 신앙으로 충만하며, 주님께서 그가 [우리의] 싸움과, [우리] 자녀의 싸움과, [우리] 자녀의 자녀 싸움을 싸우[실]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¹⁰ 그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부지런히 찾고, 항상 기도하[며] 또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만일 [우리가] 올바르게 걸으며 [우리가] 서로 성약을 맺은 그 성약을 기억할진대, [우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 [할] 것입니다.”¹¹ 후기의 날들은 두려워하거나 떨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믿고 우리의 성약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하늘의 도움, 즉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보내지는 천사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된 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든 천사들이 휘장 저편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매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의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를 낳아 준 분들이고, 저의 경우에는 저와 결혼하도록 동의해 준 사람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너무도 선하고 순수해서

“천사 같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친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만큼 하늘이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일 때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 연단에서 개회 기도를 하였던 제임스 던 장로님도 이 자리에 있는 초등학교 합창단을 묘사하기 위해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합창단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눈에 그려진 그러한 어린 아이들의 영과 얼굴, 그리고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제 친구이자 BYU 동기인 고 클라인 디 베리스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의 아내 메릴린과 그의 가족의 승낙을 받아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베리스 형제는 아이다호 주에 있는 큰 농장에서 보낸 어린 시절, 우유를 짜는 시간에 소들을 동그란 원형으로 모이게 하는 그의 야간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들이 종종 범람하는 티톤 강을 경계로 하는 땅에서 방목되었기에, 베리스 가족에게는 봄 홍수철 동안에는 결코 소들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이는 소들이 때로는 위험하게도 강을 건너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집으로 돌아와 어른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의 일곱 번째 생일이 막 지난 어느 토요일,

일, 베리스 형제의 부모님은 집안 일들을 제시간에 마친다면 그날 밤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클라인이 목장에 도착했을 때, 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들은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밤에 영화를 보는 드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음을 안 그는 수 차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들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일곱 살 소년인 클라인 베리스 형제가 그의 늙은 말인 배너를 타고 차갑고 세차게 흐르는 강으로 들어갔을 때, 말의 머리가 겨우 물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만약 성인이 말에 타고 있었다면 안전했을 지 모르지만, 베리스 형제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는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으며, 말이 몇 차례 숨을 쉬기 위해 몸을 앞으로 밀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베리스 형제가 직접 했던 말을 읽겠습니다.

“배너가 마침내 반대편 독에 올랐을 때, 저는 제 목숨이 매우 위험했으며 제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 즉 임의로 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소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리고 가야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도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날은 저물고 있었으며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물에 젖어 있었고 추웠으며, 길을 잃었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말에서 내려 그 다리 옆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흐느껴 우는 중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 말을 하고 또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제 눈물 사이로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보내진 천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에 너무도 압도되었기에 그 사람이 다가올 때 움직이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저와 같이 순종하지 못한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그때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를 찾고 있었단다.’ 어둠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고 저에게 벌린 팔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저를 꼭 안으시고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했다. 너를 찾아서 기쁘구나.’

“저는 제가 얼마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하려고 했지만, 제 떨리는 입에서 나온 것은 연결이 안 되는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어둡고 … 무섭고 … 강 … 혼자서.” 그날 밤, 저는 제가 목장에서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가 저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소들이 보이지 않자, 아버지는 제가 강을 건넜고 위협에 처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날이 어둡고 시간이 촉박했기에, 아버지는 흰색 긴 팔 보온 속옷만 남기고는 옷을 다 벗고 신발은 끈으로 그의 목에 묶은 채, 순종하지 않았던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 위험한 강을 헤엄쳐 건너셨습니다.¹²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늘의 천사와 지상의 천사 모두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 간증과 더불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



려움을 겪을 때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며 도움 받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시간이 지속되거나, 땅이 존속하거나, 그 위에 단 한 사람 [또는 여인 혹은 어린이]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 그가 그리하시겠느냐?”¹³ 범세계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하늘이 닫혀 있으며 길을 잃고 어둡고 황량한 장소에 홀로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우리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인한 것일지라도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서는 돌보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주변에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필멸의 존재이든 불멸의 존재이든 간에, 오고 가는 그러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몬슨 회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경전 구절들 중 하나에 담겨 있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¹⁴ 그러한 천사들이 우리와 함

께하기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친절한 말과 도움을 주는 손길, 신앙의 고백과 “우리가 성약을 맺은 그 성약”을 지니고 좀 더 천사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¹⁵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초등학교 어린이 중 누군가가 “어둡고 … 무섭고 … 강 … 혼자서.”라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세서 5:4.
2. 모세서 5:6~8 참조.
3. 누가복음 1:26~38 참조.
4. 누가복음 2:8~14 참조.
5. 마태복음 2:13~15 참조.
6. 마태복음 2:19~23 참조.
7. 니파이전서 8:7, 5~6.
8. 마태복음 4:11.
9. 모로나이서 7:35~37, 30.
10. 교리와 성약 98:37 강조 추가.
11. 교리와 성약 90:24.
12. 클라인 디베리스, “집으로 돌아옴,” *리아호나*, 1995년 11월호, 진5~진7쪽 참조.
13. 모로나이서 7:36.
14. 교리와 성약 84:88.
15. 교리와 성약 90:24.

어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느니라

제럴드 코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하나님께서서는 교육 정도나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 모들은 종종 어른들의 질문에 답하는 자녀들의 말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느날 저녁 우리 부부가 외출 중이었을 때, 자녀들을 봐 주던 이웃이 아이들의 기도를 듣고 강한 호기심이 일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 종교와 우리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니?” 여덟 살 난 제 딸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거의 같아요. 우리가 훨씬 더 공부하고 있다는 거 빼고는요!” 제 어린 딸은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나름대로 후기 성도들은 항상 지식의 추구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음이 불가능하니라.”(교리와 성약 131:6) 그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식의 원리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을 얻지 못하는 자마다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교회사, 5:387) 이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우리가 그분들의 면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7:3)

지식이라는 원리를 사람들은 흔히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예시입니다.(교리와 성약 93:36 참조) 그것은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을 훨씬 능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지적으로 복잡한 개념 속에서 그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해 수준에 자신을 맞추십니다. “만일 그분께서 어린 아이에게 오신다면, 그분께서는 자신을 어린 아이의 언어와 이해력에 알맞게 자신을 맞추실 것입니다.”(조셉 스미스, 교회사, 3:392)

만일 엘리트 지성인에게만 유용한 것이 복

음이라면 하나님은 참으로 불공평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교육 정도나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를 어린이조차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지닌 힘을 증거해 줍니다. 존 테일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자체로 신비하고 심오한 주제를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참된 예지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Discourse,” *Deseret News*, 1857년 9월 30일, 238쪽) 간결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표현할 때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신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 더 확실하게 증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복잡한 논리와 자신의 간결하고 진실된 가르침을 자주 비교하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간교한 질문으로 그분을 시험했지만, 그분의 대답은 언제나 명명백백했고 그 간결함은 어린이의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의 제자들이 그분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태복음 18:1, 2~4)

또 예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누가복음 10:21)

성경은 아마도 다른 어떠한 책보다도 더 많이 해석과 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처음 읽는 어린이도 그가 경전의 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같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구주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맞게 주어집니다. 여덟 살의 어린이도 침례의 물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으며 완전한 이해와 함께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예수의 침례 이야기를 읽고 무엇을 이해하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에 의해 요단 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성신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에게 내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누가복음 3:22)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린이는 신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화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구성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독립된 세 분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간결함과 명백함의 원리를 배척함에 따라 수많은 배도가 집단적 또는 개인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경에서 선지자 야곱은 그러한 고대의 사람들을 향해 “명백함을

지닌 말씀을 경멸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였다. 그런즉 그들이 풋대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 눈이 멀게 되었으며, 그들이 눈멀게 됨으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의 명백함을 제하시고, 그들이 원했으므로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그들에게 내어 주셨음이라.”(야곱서 4:14)라고 비난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쉽다”는 생각에 빠지도록 유혹당할지도 모릅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한 엘리사의 권고가 너무나 간단해 보였던 나머지 자신의 자만심으로 인해 그 권고에 순종하기를 망설였던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의 종들은 나아만이 그 어려서움을 깨닫도록 인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

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열왕기하 5:13~14) 씻김을 받은 것은 단지 그의 육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겸손에 관한 이 아름다운 교훈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영혼 또한 씻김을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사를 완전히 신뢰하고 순수한 영을 지녔으며 대단히 겸손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성신이 오도록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영에 관한 지식을 얻도록 도와주는 통로 역할을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린도전서 2:11)

또한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린도전서 2:14)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육욕 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지] ... 아니하는 한 ...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해느[라]”(모사이야서 3:19)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철학적 단편 소설 “어린 왕자”에서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어린 소년이 장미가 만발한 정원을 발견하고 자신이 정성을 들인 그 꽃이 독특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겪는 혼란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장미가 독특한 것은 겉모양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돌보기 위해 정성을 기울인 자신의 시간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에 장미를 오천 송이나 가꾸죠 ... 그러고도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구하는 걸 찾지 못해요. 그들이 찾는 것은 장미꽃 한 송



이 또는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 하지만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마음으로 보아야만 해요.”(1943년, 79쪽)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축적하는 정보의 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에 중요한 모든 복음의 지식은 교리와 원리, 필수적인 계명 등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것은 침례 전 우리가 받는 선교사와의 토론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한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리의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의 진리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뜨거운 간증을 얻도록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하심에 대한 간증을 갖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 속에서 느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분을 더 잘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들은 우리가 와드나 지부에서 가르칠 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사 여러분, 여러분 공과의 주요 목표는 개심입니다. 공과의 질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반원들에게 전해주는가에 따라 평가되지 않습니다. 영이 함께 하도록 불러들이고 반원들이 결심하여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 평가됩니다. 그들은 공과 시간에 자신이 배운 교훈을 실천하여 자신의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영적인 지식을 키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고 간결함에 그 힘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듣고 실천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주는”(교리와 성약 42:61) 지식을 얻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길

로렌스 이 코브리지 장로
칠십인 정원희

행복과 성취를 위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¹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도 주니라. 그러하도다. 참으로 나는 그니, 시작과 끝이요, 세상의 구속주니라.”²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³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⁵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⁶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⁷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요 생명이며, 떡과 물이시고, 시작과 끝이시며, 부활과 생명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시며, 진리요 길이십니다.

행복과 성취를 위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분이 그 길이십니다. 다른 모든 길들은 그것이 어떤 길이건 무슨 길이건 간에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시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마시지 않아 어리석게도 목마른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더 이상 주리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어리석게도 먹지 않고 약하고 주린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명확히 보게 되거나, 아니면 어리석게도 눈먼 암흑의 상태에 계속 거하게 됩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⁸ 우리는 그분에 대해 배우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거나,⁹ 아니면 어리석게도 계속하여 죽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의 속죄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 그분의 영광 함께 하기에 합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어리석게도 계속하여 외롭고 더러운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분은 길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음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습니다.”¹⁰ 아버지의 계획이 아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수행됨으로써 우리는 성신의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아들의 길입니다. 그분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¹¹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지탱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며 숨길 수 있도록 하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삶의 짐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힘과 지식, 화평과 기쁨을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그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신성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며, 그분만이 우

리를 그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를 기억하여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 모든 일들과 그 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를 기억하여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현명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심

침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¹²

이 삶에 있어 성신이라는 하늘의 선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기쁨, 평화, 지식, 힘, 사랑 그리고 다른 모든 좋은 것의 원천입니다. 속죄와 더불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권과 더불어 그것을 통해 결혼과 가족이 영원히 함께 인봉될 수 있습니다.¹³ 성신의 권능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십니다.¹⁴ 모든 좋은 것은 우리가 삶에서 성신의 권능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것이 이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라 불리는 동산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잘못에 대한 형벌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배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다만 그분이 그러한 일들을 하셨고, 그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 용서는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¹⁵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이에 달려 있습니다.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매력적인 인간의 철학 가운데 하나는 네 방법대로 살고 너 자신만을 위해 일하고, 독립적이 되며,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곧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권고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우크라이나의 자매들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⁶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¹⁷ 그분은 또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⁸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삶의 표준이 너무도 놀라우리만큼 높아 달성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을 따를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현재는 그것이 너무 어렵고 높은 것이며, 너무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비록 주님의 표준은 가장 높은 것이지만, 절대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면에서 생각할 때, 삶의 경험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언제나 가장 어려운 것들이므로 단지 능력 있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달성할 수 있음을 인생에서 배우게 됩니다. 표준이 높아질수록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어진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경험과 원리는 여기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의 모든 다른 경험들과는 달리,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입니다.

"...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¹⁹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며 영광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말입니다. 절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 시작된 그 어떠한 일이나 제도, 계획이나 프로그램 또는 체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속 및 변화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주님의 권유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높고 고는 해도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능력 있으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²⁰

주님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삶은 힘들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²¹ 삶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지만 또한 단순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의 선택만이 있습니다.²²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권능을 부여 받아 화평, 빛, 힘, 지식, 자신감, 사랑과 기쁨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길이든 무슨 길이든 다른 어떤 길로 가 그분의 도움과 권능 및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어둠, 혼란, 의구심, 슬픔과 절망의 삶을 홀로

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길이 더 쉽습니까?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짐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²³

삶은 힘들지만 단순합니다. 그 길에 올라 결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전진하십시오. 그만 두지만 않는다면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행복과 성취를 위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입니다. 다른 모든 길들은 그것이 어떤 길이건 무슨 길이건 간에 무모한 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떡이시고, 진리이시며, 부활과 생명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자 빛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길,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겠다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현명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1:1, 4.
2. 교리와 성약 19:1.
3. 요한복음 4:14.
4. 요한복음 6:35.
5. 요한복음 8:12.
6. 요한복음 11:25~26.
7. 요한복음 14:6.
8. 요한복음 6:63.
9. 요한복음 10:10 참조.
10. 신앙개조 제1조.
11. 출애굽기 20:3.
12. 요한복음 1:33.
13. 교리와 성약 132:7, 19.
14. 니파이후서 26:13 참조.
15. 교리와 성약 20:77.
16. 요한복음 14:6.
17. 마가복음 8:34.
18. 제3니파이 27:27.
19. 모세서 1:39.
20. 신앙개조 제3조.
21. 니파이후서 2:11.
22. 모로나이서 7:15~17 참조.
23. 마태복음 11:28~30.

시온에 오라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새 예루살렘인 시온이 일어서는 위대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가정과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단합과 경건과 사랑으로 시온을 세우도록 노력합시다.



선 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 건설은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졌던 대업입니다. 이는 선지자들과 제사들, 또한 왕들이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이 날을 기쁨으로 고대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쁨에 찬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날을 노래하고 기록하며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후기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교재, 2007년, 186쪽)

시온은 장소이자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대홍수 이전 에녹의 고대 도시에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거룩한 성, 곧 시온이라 일컬어지는 한 성읍을 건설하였더라.”(모세서 7:19) 이 시온은 약 365년동안 지속되었습니다.(모세서 7:68 참조)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그의 모든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주는 시온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시온이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이 시온을 자기 품 안으로 받아들였음이라. 이에 그때로부터 시온이 도망하였다 하는 말이 퍼졌더라.”(모세서 7:69) 후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시온산으로 일컬어졌으며, 또한 경전은 “천 년 동안 [땅이] 안식을 누릴” 때(모세서 7:53, 64)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미래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에녹 백성을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모세서 7:18) 시온이라 일컬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은 “시온은 이것이니-마음이 청결한 자라”(교리와 성약 97:21)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의 반대이자 적수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시는 원래 바벨탑의 바벨이었으며, 나중에 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주요 건축물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성적 타락을 고려하여 “수치”라는 의미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언급한 우상인 벨 또는 바알 신전이었습니다.(Bible Dictionary, “Assyria and Babylonia,” 615~616쪽; “Baal,” 617~618쪽; “Babylon, 또는 Babel,” 618쪽 참조) 바벨론의 세속적인 속성과 악에 대한

숭배, 그리고 기원전 587년의 정복에 이은 유대인의 바벨론 유수 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바벨론은 퇴폐적인 사회 및 영적인 속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가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나와서 모이라.”(교리와 성약 133:7) 오늘날에도 왕성하게 계속되고 있는 노력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집합을 이루기 위해 그분은 교회의 장로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또 바라보라, 모든 백성들에게 고하는 그들의 외침과 주의 음성은 이러하리니, 너희는 시온 땅으로 나아가라. 그리하여 내 백성의 경계가 넓혀지게 하고, 또 시온의 스테이크들이 강화되게 하고, 또 시온이 그 주변 지역으로 나아가게 하라.”(교리와 성약 133:9)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이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시온의 스테이크와 단위 조직에 모이면서 “나라들 가운데서 나와” 모이고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 “다스림”은 작을 것이지만, 주님의 권능이 “온 지면에 흩어진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 위에 내려오고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 ... 로 무장 될” 것임을 예견했습니다.(니파이전서 14:12~14 참조)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시온의 안전과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의의 등대가 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 또 시온의 땅에 그리고 그 스테이크들에 집합하는 것이,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6)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지시하에, 초기 교회 회원들은 미주리 주에 시온의 중심지를 세우려고 시도했지만, 거룩한 도시를 세울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실패 이유들 중의 하나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가 그들 손에 요구한 것에 순종하기를 배우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모든 모양의 악이 가득하고 성도로서 합당하게 그들의 재물을 그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며,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일치단결의 정신에 따라 단합하지 아니하는도다.”(교리와 성약 105:3~4) “그들 가운데 알력과 다툼과 시기와 싸움과 욕욕과 탐욕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일로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더럽혔느니라.”(교리와 성약 101:6) 그러나, 이러한 초기 성도들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기보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온은 시온 백성들의 인격, 속성 및 충실함 때문에 시온이 됩니다. 이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모세서 7:18)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지부와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시온의 대업을 향해 나아가려면, 이러한 표준에 응해야 합니다. (1) 한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고, (2)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며, (3) 우리 가운데 가난을 없앨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시온이 올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합

우리가 시온이 번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알력, 다툼, 시기, 싸움”(교리와 성약 101:6 참조)을 극복했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한 무리로서 싸움과 다툼에서 자유로우며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일치단결의 정신에 따라”(교리와 성약 105:4) 단합되어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용서는 이러한 단합에 필수적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러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이 요구되느니라.”(교리와 성약 64:10)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구주를 초대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도록 명하신 분들을 따를 때 한마음과 한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 안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연차대회에서, 몬슨 회장님은 교회에서 멀어진 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양심이라는 성역 안에는 옛 사람을 버리고 진정한 잠재력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의, 그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권고를 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여러분께 손을 내밀며,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온전한 우정 안으로 환영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전합니다. 심령이 상한 분들, 또는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을 북돋우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두려움을 잠재울 기회를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드립니다.”(토마스 에스 몬슨,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감,”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89~90쪽)

올해 7월말에, 동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온 청년 독신 성인들이 한 대회를 위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외곽에 모였습니다. 이 그룹 가운데에는 여권과 비자를 받는 데 며칠을 보내고 이곳에 오기 위해 버스로 30시간 이상을 여행한 몰도바에서 온 20명의 젊은 남녀들이 있었습니다. 대회 프로그램은 약 15개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2개 또는 3개의 워크숍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몰도바에서 온 청년 독신 성인들은 각 워크숍마다 적어도 그들 그룹 중의 한 사람이 참여하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함께 계획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들이 배운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한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몰도바의 청년 독신 성인들과도 나중에 그것을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수천 번 반복된다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올”(이사야 52:8) 서로를 향한 우리의 단합과 사랑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함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이루어야 할 일들 중에 많은 부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교리와 성약 97:21)가 되려는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에 있습니다.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의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세워질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 [주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05:5)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해의 왕국의 율법은 우리가 항상 구주를 기억한다는 것과 순종, 희생, 헌신 및 충성에 대한 우리의 맹세를 포함하는 복음의 율법과 성약들입니다.

구주께서는 일부 초기 성도들의 “욕욕”에 대해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01:6; 또한 교리와 성약 88:121 참조) 이들은 TV, 영화, 인터넷, 아이팟이 없는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적인 동영상과 음악으로 가득찬 지금 세상에서, 우리는 욕욕과 이와 관련된 악에서 자유롭습니까? 정숙한 복장의 한도를 훨씬 넘거나 대리로 부도덕을



탐닉하는 외설물의 행위에 빠지기보다 우리는 의에 굽주리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시온에 오려면, 여러분이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덜 사악한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선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온에 영원히 거주할 우리의 거처를 세우고 바벨론의 여름 별장은 포기합시다.”(널 에이 맥스웰, *A Wonderful Flood of Light* [1990년], 47쪽 참조)

가난한 자들을 돌봄

역사를 통해 보면, 주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돌보았는지로 그 사회와 개인들을 평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땅은 충만하고 거기에는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그러하도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사람의 자녀에게 능력을 주어 자기 스스로의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풍성한 것을 취하고 나의 복음의 법에 따라 자기 몫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주

지 아니하면, 그는 악한 자와 더불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자기 눈을 들어 보리라.”(교리와 성약 104:17~18, 또한 교리와 성약 56:16~17 참조) 게다가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현세적인 일에 있어서 너희는 평등하게 되어야 하나니, 이를 마지못해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영의 풍성한 나타내심은 보류되리라.”(교리와 성약 70:14, 또한 교리와 성약 49:20, 78:5~7 참조)

우리는 우리의 부와 자원의 사용을 스스로 관리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리와 인도를 맡깁니다. 여러분이 금식 헌금과 인도주의 프로젝트에 공헌함으로써 여러분의 관용을 입증해 보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몇 년 동안, 수백만 명의 고통이 완화되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관용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온의 대업을 추구함에 따라, 우리 각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물과 쾌락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것들을 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초연한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물질주의는 바벨론을 형상화 하는 이상숭배와 교만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 사항이 충족되는 것으로 만족해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디모데전서 6:5)로 생각하는 백성들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디모데전서 6:7~8)

세상의 많은 곳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서로를 돌보도록 합시다. 저는 1975년 사이공을 탈출하여 유타 주 프로보에서 조그만 이동식 집에서 살게 된 어느 베트남 가족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피난민 가족의 한 청년이 근처에 대가족을 이루며



사는 존슨 형제의 가정 복음 교사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존슨 형제님은 우리 가족이 식탁이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다음날 좀 이상해 보이지만 아주 실용적이면서 부엌 싱크대 맞은 편 트레일러 벽에 잘 맞는 탁자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말한 이유는 그 탁자 다리 중 두 개는 탁자와 똑같은 무늬 및 색깔을 띠고 있었지만 나머지 두 개의 다리는 뭔가 어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몇 개의 작은 나무 말뚝들이 닳아진 표면의 한 쪽 끝에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곧 우리는 이 특이한 탁자를 음식 준비와 간단한 식사들을 위해 매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식사만큼은 이전처럼 진짜 베트남식으로 마루에 앉아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가정 복음 교육 약속 전에 존슨 형제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집 현관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은 부엌 근처에 놓여 있던 저의 가족에게 주었던 것과 거의 똑같은 탁자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 탁자는 나무 말뚝들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이고, 존슨 형제님의 탁자는 그 말뚝에 들어맞는 구멍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자비심 많은 분이 우리의 필요 사항을 보고 그의 반으로 분리되는 식탁을 분리하여 각각의 반쪽을 위해 2개의 새로운 다리를 만들어 붙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슨 가족에게 이 조그만 탁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마 그 탁자 전체를 사용했을 때도 그 가족에게는 돌려 샅기에 충분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 친절한 행위는 제 전 생애 동안 진정으로 주는 것이 무엇인지 강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손 쿠앙 레, 베스 엘리스 레에게 들려준 이야기, “두 개의 똑같은 테이블”, 리야호나, 2004년 7월호, 45쪽)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온 건설을 우리의 가장 위대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86쪽) 새 예루살렘인 시온이 일어서는 위대한 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가

정과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단합과 경건과 사랑으로 시온을 세우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것처럼, 기쁨에 찬 기대를 갖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애통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시네
바빌론도 무너지고
모든 탐도 헐리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시온에 모두 오라...*

*주의 재림 가까우니
시온에 모두 오라
(애통하는 이스라엘, 찬송가 10장)*

시온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항상 기도하라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주와 의논할 때, 마음에서 우리나라 오는 감사를 표현할 때, 진정한 의도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더욱 의미 있어 진다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의 저의 메시지는 기도를 통해 신앙으로 간구하는 복음 원리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도와주는 추가적인 세 가지 원리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성신의 도움을 간구하는 바입니다.

원리 1. 기도는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할 때 더욱 의미 있어 집니다.(엘마서 37:37 참조)

간단히 말해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지상의 아들과 딸들의 의사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관계(곧,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를 알게 되는 즉시, 기도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것이 됩니다.”(Bible Dictionary, “Prayer”, 752쪽) 우리는 이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제3니파이 18:19~20 참조) 우리가 옳고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축복과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습니다.(제3니파이 18:20; 교리와 성약 19:38 참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상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의사 소통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구한다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수 있고 기쁨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교리와 성약 42:61 참조) 여러 비밀이란 성신의 권능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해롤드 비 리, *Ye Are the Light of the World* [1974년], 211쪽 참조)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는 신화의 세 번째 일원, 즉, 성신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의 증인이자 사자입니다.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범은 우리로 하여금 의미있는 기도 방법을 이해하는데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모세서 3장에서 우리는 만물이 지상에 실재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 주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던 날에, 그것들이 창조될 때의 천지의 내력이 이러하니,
“곧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고

또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전이었느니라. 이는 내가 말한 만물이 지면에 육에 속하기 이전에 나 주 하나님이 그것들을 영적으로 창조하였음이니라.”(모세서 3:4~5)

이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영적 창조가 육의 창조보다 선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의미 있는 아침 기도는 하루 하루의 영적 창조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날의 육의 창조 또는 실제적인 실행보다 앞서 일어납니다. 육의 창조가 영적 창조와 연결되어 있고 영적 창조의 연장인듯이, 의미 있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연장입니다.

이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기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 행동, 또는 영적 성장에 관해 하나님 아버지와 의논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에 대해 적절한 감사를 표현 후, 우리는 이해와 인도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모질게 또는 부당하게 말했던 경우들을 생각해 봅니다.
- 우리는 그보다는 더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 우리의 약점과 육에 속한 사람을 더욱 진실되게 벗어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뉘우칩니다.
- 구주의 본을 따라 우리의 생활을 더욱 온전히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루를 영적으로 준비하는데 있어서 핵심 부분입니다.

하루를 지내는 동안 우리는 “네 모든 생각으로 주를 향하게 하라”(엘마서 37:36)는 엘마의 제안처럼 지속적인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마음 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한 날, 우리는 평소 거칠게 말했을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도움과 힘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겸손히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루가 끝날 때,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보고를 드립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며 우리가 받은 축복과 도움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의 영의 도움으로, 내일은 더 잘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저녁 기도는 아침 기도에 기초를 두며 아침 기도의 연장입니다. 또한 저녁 기도는 의미 있는 아침 기도를 위한 준비입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및 그 사이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서로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도들은 매일, 여러 날, 여러 주, 여러 달, 심지어 여러 해에 걸쳐 서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는 경전의 권고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일부입니다.(누가복음 21:36, 제3니파이 18:15, 18, 교리와 성약 31:12) 그러한 의미 있는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충실한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가장 높은 축복들을 얻는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고 다음의 권고에 귀 기울일 때 기도는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네 모든 도움을 구하라. 참으로 네 모든 행위로 주께 드리는 것이 되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서 행하도록 하라. 참으로 네 모든 생각으로 주를 향하게 하라. 참으로 네 마음의 사랑을 영원히 주께 두도록 하라.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네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워, 그로 네가 자는 동안 너를 지키시게 하고, 네가 아



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네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으리라.”(앨마서 37:36~37; 강조 추가)

원리 2.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할 때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총장 시절, 베드나 자매와 저는 총관리 직원들을 자주 집에 모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가족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의미 있는 기도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날 일찍 베드나 자매와 저는 사랑하는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소망은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사도님께서는, 그 비극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베드나 자매에게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만을 표하고 아무것도 간구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분의 권고는 앨마가 고대 교회의 회원들에게 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드리라!”(모사이

야서 26:39)는 가르침과 비슷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비극이 주어진 가운데, 당초 우리는 친구들을 위한 축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베드나 자매는 신앙으로 그 지시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랑하는 친구와 나누었던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경험들에 대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혜사인 성신과 역경에 맞서고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해 주는 영의 은사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나 자매는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 그분의 부활,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는 회복된 복음의 의식과 성약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 경험으로부터 의미 있는 기도 안의 감사의 힘에 대해 훌륭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은 우리의 생각을 짓누르고 마음을 휘젓는 수많은 문제들에 관해 영감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계획과 구주의 구원의 사명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재확신을 주었으며 사랑하는 친구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우리의 확신을 강화시켜 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여 신앙으로 합당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들에 관한 통찰력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의미 있고 영적인 기도는 감사는 많이 표현하되 간구는 거의 하지 않는 기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도 및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구주의 교회의 이 현대 지도자들 속에서 몰몬경에 나오는 모로나이 장군을 묘사하는 똑같은 특성을 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내려 주시는 많은 특권과 축복에 대해 그분께 드리는 감사로 그 마음이 충만한 분들입니다.(앨마서 48:12 참조) 또한 그분들은 자신에게 기도할 바가 주어졌고, 또 소망으로 가득찬지라, 많은 말을 더하지 않습니다.(제3니파이 19:24 참조) 선지자들의 기도는 그 단 순함이 어린 아이와 같고 그것이 지닌 진실성



으로 인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가 불붙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9:21)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직 감사만을 담은 기도를 정기적으로 드리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간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전심을 다해 감사만을 전하게 합시다.

원리 3. 기도는 진정한 의도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더욱 의미 있어 집니다.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를 더욱 자주 표현하는 것이 계시가 흐르는 도관을 넓혀 주는 것처럼, 영혼의 힘을 다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 줍니다.

우리는 물문경에 있는 리하이의 모범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리하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선지자의 가르침과 경고에 신앙으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의 백성을 위해”(니파이전서 1:5, 사체 추가)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리하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영광스러운 시현을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니파이전서 1:6~9, 13, 18 참조) 그 결과, 리하이는 기뻐했고 그의 온 마음은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신 것들로 인해 충만해졌습니다.(니파이전서 1:15 참조) 그 시현이 타인을 위한 기도의 응답으로 온 것이며 개인적인 교

화나 인도를 위한 요청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님을 주목해 주십시오.

구주께서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모범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드린 위대한 증보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한복음 17:9, 20, 26)

구주께서는 미 대륙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기록할 수

신권 모임
2008년 10월 4일

없을 정도로 크고 기이한 말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제3니파이 17:1~16 참조)
그분의 기도의 영향력은 “주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채웠던 그 기쁨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느니라”(제3니파이 17:17)고 기록될 만큼 컸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 및 다른 가족들도 우리가 그들의 특정한 필요사항과 소망을 위해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우리의 진지한 기도를 듣지 못했고 그 영향력을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구주의 모범을 열심히 따를 때, 우리의 기도는 진실로 더욱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니파이후서 32:9; 교리와 성약 10:5; 90:24)–“마음으로 할 뿐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도 하라 ... 은밀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하며, 혼자서 뿐만 아니라 회중 앞에서도 할지니라”(교리와 성약 19:28)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주와 의논할 때,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감사를 표현할 때, 진정한 의도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가 더욱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모든 진지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주요 중재자이십니다. 계시는 실재합니다. 복음의 충만함이 이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신권을 존중하며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리처드 지 스코트
십이사도 정원회

성 신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역할 모델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동정심, 자애를 가지고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신권 소유자들이 훌륭한 형제애로 전 세계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구주의 이름으로 그분의 신권을 의롭게 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속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는 것이 소중한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신권을 부여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권한을 주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극히 겸손해져야 하며 우리가 소유한 신권에 대해 가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지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신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의 일부를 위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충실할 때, 우리에게 성임된 신권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권세를 부여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직분에 속한 권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는 개인의 합당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확고한 복음 지식의 기초가 뒷받침 될 때 합당하게 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크게 강화됩니다.

성 신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역할 모델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랑과 동정심, 자애를 가지고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겸손과 권능에서 비할 데 없는 모범이었습니다.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겸손한 봉사를 베풀 때 신권을 사용함으로써 오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오게 됩니다. 충실하며 순종적인 신권 소유자로서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위대한 권능을 사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신의 속삭임을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필요할 때 치유와 축복, 위로 및 조언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과 제가 성신의 인도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의 조용한 곳에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개인의 합당성을 묻는 접견을 주기적으로 할 것이고 그런 접견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부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잠시 몇 분 동안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인 신권 접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이 소유한 그 신성한 권세를 사용하기에 개인적으로 합당한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얼마나 지속적으로 신권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의도는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권을 사용함으로써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생각들이 성신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영원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가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설물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지혜의 말씀에 위배되는 자극적인 음료나 물질들을 철저히 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예외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전전하고 고상한 것만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오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혼을 했다면, 최소한의 법적인 요구사항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에게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결혼한 상태라면, 여러분은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충실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가 듣지 않기를 바라는 종류의 대화를 다른 여성과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의 결혼에 충실합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친절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집안일을 거들면서 아내를 돕고 있습니까? 경전 공부, 가족 기도 및 가정의 밤과 같은 가족 활동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여러분이 마음 속으로 한 대답 중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합당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감독님이나 스테이크 회장단에게 말씀드릴 것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은 저절

로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신권 지도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르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저는 신권이 다른 사람들의 삶,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딸들을 축복하기 위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선언문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아내가 그러한 기회를 받고 또한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동등한 동반자가 되는 것의 여부는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배우자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동등한 동반자의 관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이루는 것을 주저하는 모든 남성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 권고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동등한 동반자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신권을 통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숭고한 특권을 사용함에 있어 성신의 속삭임에 민감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신권의 권능을 더 훌륭히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해심 많고 사랑에 찬 신권 소유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망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들 중 여러분이 도와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예를 들면 영감 받은 신권 축복을 통해 걱정을 덜어주고, 간단한 수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으로서, 워드 평의회에서 봉사하는 자매님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가정에서 신권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워드 내 자매님들의 필요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통해, 상호부조회는 필요사항들을 알아내고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로 정원회나 대제사 그룹에 요청하여 필요에 따라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독으로서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는 부부와 상담을 하게 될 때, 남편 쪽의 말 만큼이나 아내 쪽의 이야기도 신임하십니까? 저는 전 세계를 방문하면서, 신권 지도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 보다는 아들의 말에 더 잘 설득된다는 점에서, 일부 여성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균형은 절대 일어 나서는 안 됩니다.

독신 자매님들이 가족 워드에 참석할 때, 그들이 받아야 할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



우크라이나의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과 영적인 통찰력을 나누고 있다.

이 환영 받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부름에서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들이 신권 형제들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신권 권세의 목적은 봉사하고 들어올리며 영감을 주기 위한 것이지 의욕지 않은 통제나 힘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모든 가정 문제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처럼 거의 소유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루시퍼가 조장하는 결혼에 대한 잔인하고 비생애적인 잘못된 생각이며,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합니다. 그것은 엄연히 틀린 사실입니다. 경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절정의 창조물인 여성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된 후에야 여성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창조의 사업이 끝났으며 보기에 좋았다 고 선포되었습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아내와 어머니, 할머니, 여자 형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중요한 영향을

준 여성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 만큼이나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존재도 없습니다. 이들은 덕을 행하며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몸을 신성하게 여겨 존중하며,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끊임없이 이해력을 넓히며, 영원한 진리로 자신의 영혼을 양육합니다.”¹

성스러운 목적으로 인해, 여자는 여러 면에서 남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² 여자는 사랑이 많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런 특성 때문에 어떤 여성들은 구주의 도움을 받더라도 버거워 질 만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저는 많은 합당하고 유능하며 헌신적인 교회의 여성들이 이처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남편 혹은 아들 여러분, 아내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감사함을 종종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하는 수 많은 선한 일들에 대하여 칭찬의 말을 듣거나 감사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많은 딸들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즐거우며 더 뜻 깊게 될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여러분의 아내가 복돋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아내를 팔로 감싸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특별한 여성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어떤 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없어질 때에야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범법으로 인해 신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한 남자의 예를 들겠습니다. 나중에, 그는 완전한 회개를 통해, 이전에 받았던 의식의 회복의 일부로서 신권을 다시 받았습니다. 신권이 회복된 후, 저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녀는 열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신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그 남편을 보고 “아내에게 축복을 주고 싶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말로는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오는 심오한 감정과 그것이 만들어 내는 사랑과 신뢰, 감사함의 결속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신권을 잃어버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제 소중한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했을 때 제가 느낀 놀라운 기쁨과 행복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권을 사용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여성들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만족감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이 지상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15명의 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완벽하게 표현하신, 신권에 관한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우리들은 그분의 교회와 왕국의 일을 돌보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이 지상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성역을 베풀기 위해 놀라운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간증하고, 지도하며, 성역을 베풀어야 하는 부름 때문에, 우리는 나이와 부족함, 피로 및 부적합하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³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소중한 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딸들을 대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 영감 받고, 민감해지며 특히 하나님의 딸들에게 우리가 지닌 이 신권을 더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주

1. 고든 비 힐클리, “청녀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 *엔사인*, 1988년 9월호 11쪽
2. 모세서 4:17~19, 5:10~11 참조
3. 하워드 더블류 헌터, “교회의 여성들에게”,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95쪽

안전한 팔

제이 이 젠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겸손하고 온전히 회개하여 성찬식에 참석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안전을 제공하는] 팔을 거듭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옥스 장로님께서 오늘 아침에 매우 강력하고 아름답게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것이 아론 신권 소유자들의 성찬 집행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자비를 떠올릴 수 있는 짧은 성구 하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문구는 “안전한 팔”(앨마서 34:16 참조)입니다.

그분의 팔에서 안전함

한 가족이 그랜드 캐니언의 북쪽 가장자리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두 살배기 여자 아이가 난간 사이로 약 11미터 아래의 바위 턱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꼬마 아이는 도로 기어올라 가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멀리 미끄러져 급기

야 1.5미터만 더 가면 61미터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안이라는 19세의 청년이 아이가 있는 곳을 보았고 자신이 받은 응급 대처 훈련을 통해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상황 파악이 되었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저는 사진기를 내려놓고 그다지 가파르지 않은 오솔길로 올라가 난간을 넘어 무성한 바위와 덤불 아래로 신속히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찾았지요.” 한 시간 동안 그 아이를 팔에 안은 채, 이안은 응급 구조팀이 와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 밧줄을 내려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Save Her!” *New Era*, 2007년 9월호, 6쪽) “그 아이를 팔에 안은 채”라는 문구가 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팔, 즉 사랑의 팔, 자비의 팔, 안전의 팔에 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니파이후서 1:15, 모사이아서 16:12, 앨마서 5:33, 교리와 성약 6:20, 29:1 참조)

“안전한 팔 안에 감싸”인다는 성구는 앰올레크가 조람인들에게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에 관하여 말하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회개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리하여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그들을 안전한 팔 안에 감싸”준다고 가르쳤습니다.(앨마서 34:6, 또한 9~15절 참조)

유형의 것으로 무형의 것을 가르침

“안전한 팔”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구주께

서 동전, 씨앗, 양, 떡, 물고기, 신체의 각 부분과 같이 형태가 있는 것, 즉 유형의 것을 사용하여 복음 원리를 가르치셨음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팔은 유형의 것으로, 우리는 애정과 사랑을 표현할 때 팔을 사용합니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아내의 유형의 팔에 감싸입니다. 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곳의 일반적인 인사법인 “*un abrazo*”, 즉 포옹을 통해 사랑과 안전의 팔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속죄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 “안전한 팔”이란 문구는 유용했습니다. 우리가 침례 받고 안수례에 의해 성신을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안전한 팔로 안내하는 두 가지 의식을 받은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전히 회개하여 성찬식에 참석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팔을 거둬 느낄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우리 시대에 비유함

교리와 성약 110편의 머리말에는 안전한 팔을 누리는 것에 관하여 가장 적절한 구절 중 하나에 대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안식일에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하던 중, 자신과 다른 신권 소유자들이 교회 회원들에게 성찬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에 이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따로 기도하기 위해 물러났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구주께서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죄는 사함 받았으니, 너희는 내 앞에서 깨끗하도다. 그러므로 너희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교리와 성약 110:5)

1836년에 커틀랜드 성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시대와 우리에게 비유됩니다. 매주 안식일에 어린 신권 소유자 여러분은 영적 치유를 갈망하고, 생각과 마음 속에 “보라, 너희 죄는 사함 받았으니, 너희는 내 앞에서 깨끗하도다. 그러므로 너희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교리와 성약 110:5)는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식

에 오는 성도들에게 성찬을 집행합니다.

달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성찬과 관련된 영적 정화력 또는 치유력이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인 성찬은 침례 성약과 축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와 성찬을 취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빵을 취할 때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성약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청결하게 하는 침례의 효력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청결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를 함께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14쪽)

아른 신권 소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회원들이 그러한 정화력 또는 안전한 팔을 더욱 온전히 받고 느끼도록 돕기 위해, 권한을 주는 열쇠를 지닌 자들과 성찬을 집행하는 자들은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하는 것에 관하여 교회 지침서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지침들을 따라야 합니다. 각 신권 소유자는 자신이 주님을 대신하여 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건하며 엄숙해야 합니다. 대체로 우리의 청소년들은 모범적입니다. 그러나 성찬이 집행되는 중에, 이따금씩 우리는 복장과 용모를 지나치게 비격식적이고 약식으로 하려는 불온한 경향을 봅니다.

청남 여러분, 교회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모습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지 자문해 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은 부모와 같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한 번 더 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그들의 조언을 불쾌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항상 그분의 표준을 반영하고 약식적인 세상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복장과 용모가 단정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중을 기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영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성찬을 집행하는 자들의 복장이나 용모가 무한한 속죄의 축복을 진심으로 구하는 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슨 회장님이 신권 소유자들인 우리에게 주신 다음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는 신권을 소유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봉사할 임무이고, 들어올릴 특권이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기회입니다.”(우리의 성성한 신권 책임,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57쪽) 저는 이 말씀이 성찬 집행에 적용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안전한 팔을 경험함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저는 심각한 범법을 저지른 교회 회원들의 삶에서 속죄의 축복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판사로서 저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 주었고 필요할 경우,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성찬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와드의 한 청년 독신 성인이 젊은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애정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와서 조언과 도움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고백한 내용과 저에게 전해진 영의 느낌에 근거하여, 저는 그에게 일시적으로 성찬을 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회개가 되었는지 확인했으며 적절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그가 다시 성찬을 취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저는 성찬식 때 연단에 앉아, 이제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속죄의 치유가 그의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그의 짐을 들어올리며, 약속된 용서와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 때, 그를 둘러싸는 자비의 팔, 사랑의 팔, 그리고 안전의 팔을 목격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부모가 대회 모임 사이에 아이들을 한데 모았다.

속죄-항상 존재하는 권능

저는 패커 회장님이 가르치신 다음과 같은 진리를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생이 끝날 때 우리를 영적 사망인 타락으로부터 구속시켜 주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속죄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 불러올 수 있는, 항상 존재하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죄의 극심한 고통에 휩싸이고 슬픔의 무거운 짐을 질 때 그분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주님의 손길”,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26쪽)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신앙과 사랑과 충실함과 헌신을 그분들께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간증드립니다. 속죄가 실재하고 우리 삶에 힘을 미침을 간증드립니다. 회복된 복음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이러한 진리들은 거룩한 경전, 특히 물문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악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김”

제임스 제이 해물러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여러분은 이전에 여러분이 했던 것, 즉 악보다 선을 택하[는] ... 그 일을 다시 한 번 이루기 위해 이 마지막 날에 지상에 오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오 늘 저녁 저는 아론 신권 형제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인생에서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더 깊이 음미해 보도록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시대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세계 역사를 통하여 끔찍한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

사이의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¹

계시자 요한은 이 전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²

이 전세의 전쟁을 일으킨 자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모반함으로써,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임명된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삼분의 일이 사탄을 추종했습니다.³ 그러나 삼분의 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삼분의 이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하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불행히도, 사탄의 전쟁은 그가 하늘로부터 추방된 것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듯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땅으로 내쫓”⁴였으며 이곳에서 “크게 분내”⁵였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증거는 태초부터 인간을 괴롭힌 피와 공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겪는 그 고통이 매우 통렬하고 극심해서 하

나님조차도 인간들의 그 상황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현세적인 역사에서 마지막 날이라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가올 날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은 그분을 거절했던 지상으로 돌아오셔서 그분의 주권을 되찾으실 것입니다.⁸ 그날에, 그분은 사탄과 그의 군대를 정복하고 평화와 의의 천 년을 예고하실 것입니다.⁹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예고하시고 지상에 마지막으로 그분의 왕국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입니다.¹⁰ 그 전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졌지만, 그 왕국을 떠맡은 사람들은 왕국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언된 약속에 따라 이 하나님의 왕국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것의 궁극적인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하나님 왕국의 마지막 회복은 전례가 없는 영적 권능과 함께 시작되었으며,¹¹ 그와 동일한 영적 권능과 그 이상의 어떤 것에 의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과 딸들 중 가장 용감하고 고귀한 자들의 일부는 이 마지막 날에 나아와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위해 일하도록 예비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고귀함은 전세에서 사탄과 싸우는 가운데 증명되었습니다. “선이나 악을 택하도록 버려 둔 바 되었”¹²으며, 그들은 “선을 택”하고 “지극한 신앙”과 “선행”을 나타내 보였습니다.¹² 그러한 것들은 이제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지속하고, 격화되고 있는 악마의 분노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특성들입니다.

이제, 아론 신권을 지닌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용감하고 고귀한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집의 모든 군사 곧 그분의 전사들”¹³입니다. 여러분은 악보다 선을 택하고, “지극한 신앙”과 “선행”을 보였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그러했듯이, 여러분은 이전에 여러분이 했던 것—즉 악보다 선을 택하고, 지극한 신앙을 행사하며, 선을 행했던 과정을 다시 한 번 이루기 위해—그리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여러분의 동료들을 위해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마지막 날에 지상에 오도록 임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회복되었고 여러분이 이 지상에 오게 되면서,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¹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여러분이 범법하도록 유혹하기 위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범법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과 성전 결혼, 또한 미래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보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범법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왕국을 전복시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¹⁵ 이 점에 대해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의 전쟁의 초점은 이제 여러분,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기”¹⁶지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의 우리 시대와 우리 앞에 놓인 시대는 “고통하는 때”¹⁷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사에서, 또 세계사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과 비교할 만한 시대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현재 우리를 둘러싸는 불의와 악행을 능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¹⁸

우리 시대의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저는 두려움을 고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진지함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진지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상황을 평가할 때 성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이며,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고려할 때 신중하고 주의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지함에서 훌륭한 판단뿐만 아니라 신중한 행동도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젊은이들에게 진지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¹⁹ 힐라만의 이천 청년 병사들이 전쟁에서 그토록 효과적이었던 것은 단지 그들의 용기와 힘과 신뢰성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의 “진지함”²⁰때문이었다는, 몰몬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몰몬은 그 자신이 그러한 특성을 축복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겨우 열 살의 나이에 니파이 백성들의 성스러운 기록들을 맡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몰몬이었으며, 그 이유는 그가 “진지한 아이”이고 “보고 깨닫는 것이 [빨랐기] 때문이었습니다.”²¹ 그리고 바로 이 몰몬이 열다섯 살 때 “주의 방문을 받았”고 “예수의 선하심을 ...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성품이 진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²²

따라서, 사탄과의 전쟁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젊은 친구 여러분, 진지해지십시오. 여러분은 마약, 술, 또는 담배

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외설물이나 기타 부도덕한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거짓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또는 불결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문신과 기타 신체 부위를 뚫어 치장하는 것으로 육체를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우리 아버지의 나머지 모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한 대전투에서 용감한 병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²³

젊은 친구 여러분, 사탄과 별이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아십시오. 그것은 태초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천국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을 때,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는 도다. 이는 그들[즉,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1] 어린 양의 피와 [2]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써 그 [즉, 악마]를 이겼음이라. 이는 [3] 그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증거를 지켰음이라.”²⁴ 이 발표가 의미하는 바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탄은 태초에 (1)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한 신앙, (2)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유지하는, 그분에 대한 간



브라질의 전임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돕고 있다.

중, 그리고 (3)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헌신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그를 무찌른 방법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방법이 지금도 그를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²⁵

이제 여러분은 그 적을 이기는 데 필요한 신앙, 간증, 영의 헌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확신드리건대, 그러한 자질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내재

해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을 되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 조셉이 했던 방법대로 하십시오. 조용한 장소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²⁶ 정기적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십시오. 기도는 계시를 불러옵니다. 더 정기적으로, 그리고 더 진실되게 기도하면 더 자주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받게 된 계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또

는 확신을 주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²⁷

둘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분의 음성은 작고 조용하며 마치 속삭이는 소리와 같습니다.²⁸ 그것은 듣는다고보다는 느끼는 것에 가까운 음성이며, 생각, 느낌, 감동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런 음성을 들으려면 영혼이 평온하고 고요해야 하며, 경박한 웃음과 생각을 멀리해야 합니다.²⁹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단련하는 것이 쉬워 보일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소중하고 사랑이 깃든 음성을 듣게 되면 모든 상황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셋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은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사랑과 평온을 줄뿐만 아니라 언제나 교훈을 주고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고 지금 당장 행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그분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여러분은 더욱 더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바치며 그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³⁰

사랑하는 아론 신권 형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지하십시오. 신앙의 방패를 들어 악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십시오.³¹ 신앙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³² 모든 것을 다한 후에는, 굳건히 서서³³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십시오.³⁴ 그분의 구원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인도해 주리라는 것을 여러분께 확신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전서 14:10, 13("단지 두 개의 교회가 있을 따름이니,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요, 다른 하나는 악마의 교회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온 땅 위에 ... 허다한 무리를 함께 모으리라.")
2. 요한계시록 12:7~9.
3. 교리와 성약 29:36.
4. 요한계시록 12:9.
5. 요한계시록 12:12.
6. 모세서 7:29, 36~37.
7. 마태복음 21:33~44.

8. 교리와 성약 88:110; 모세서 7:64.
9. 브루스 알 맥콩키, “대상은 계속 전진합니다”, *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86쪽 참조.
10. 다니엘 2:44~45; 교리와 성약 38:9~15, 교리와 성약 82:24.
11. 조셉 스미스-역사 1:17~19(아버지와 아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것은 에텐 동산 이후로 처음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임); 조셉 스미스-역사 1:30~49(모로나이), 교리와 성약 27:7~8, 12~13(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및 요한), 교리와 성약 110:11~16(모세, 엘리야, 일라이어스), 교리와 성약 128:19~21(“미가엘 곧 아담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천사”) 참조.
12. 앨머서 13:3.
13. 교리와 성약 101:55, 105:16.
14. 요한계시록 12:12.
15. 모사이야서 27:13.
16. 요한계시록 12:17.
17. 디모데후서 3:1.
18. 보이드 케이 페커, “The One Pure Defense”, (CES 종교 교육자들에게 하신 말씀, 2004년 2월 6일).
19. 앨머가 아들들-힐라맨, 시블론, 및 코리엔톤-각자에게 “진지하라”고 조언했음. (앨머서 37:47, 38:15, 42:31) 바울 또한 젊은이들에게 “신중”하라고 권고했음. (디도서 2:6) 이 외에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감독들에게 신중하라고 권고했음. (로마서 12:3, 데살로니가전서 5:6, 8, 디모데전서 3:2, 11, 디도서 1:8, 2:2, 4, 12 참조)
20. 앨머서 53:20~21.
21. 물문서 1:2.
22. 물문서 1:15.
23. 고든 비 헝클리 회장, “끝없는 전투, 확실한 승리”,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2~7쪽.
24. 조셉 스미스 역 성경, 계시록 12:9, 11.
25. 교리와 성약 76:53 참조(해의 왕국을 상속받는 사람들은 “신앙으로써 승리[함]”); 요한1서 5:4~5(“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임).
26. 조셉 스미스-역사 1:11~15
27. 히브리서 11:1, 앨머서 32:21, 이더서 12:6
28. 영의 음성은 마치 속삭임과 같이 완벽하게 평온한, 작고 조용한 음성으로 묘사된다. 힐라맨서 5:30 참조; 열왕기상 19:12; 교리와 성약 85:6.
29. 교리와 성약 88:69, 121.
30. 마태복음 16:24~25, 요한복음 7:17.
31. 에베소서 6:16.
32. 디모데전서 6:12
33. 말라기 3:2 참조. “누가 능히 서리요?” (요한계시록 6:17).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모든 일을 행한” 자들(에베소서 6:13).
34. 출애굽기 14:13.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위치에서 있으며 그만이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전 세계적인 신권 모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이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 그리고 아이어링 회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충실함과 도덕적 굳건함에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형제애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

몇 해 전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집회소에서 한 무리의 형제님들이 음악 행사를 위해 그랜드 피아노를 예배실에서 옆에 붙어 있는 활

동실로 옮기도록 부탁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전문적인 이삿짐 운송자가 아니었고, 그 중력 친화적인 무거운 악기를 예배실을 지나 활동실까지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체력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게 함께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지만 그 중의 어느 것도 피아노가 똑바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힘, 키, 연령에 따라 형제들을 계속해서 재배치시켰지만 어느 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피아노 주위에서 있었을 때 저의 좋은 친구인 한노 루신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들, 함께 가까이 모여 선 다음에,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

그 방법은 너무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었을 때, 마치 피아노가 자기 힘으로 땅 위에서 들리워져서 활동실로 옮겨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까이 모여 서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저는 종종 루신 형제님의 간단한 생각에 대해 생각해보고는 그 심오한 진리에 감명을 받습니다. 오늘 밤 저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라는 그 간단한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앞장서기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숨기를 원함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는 것이 간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힘의 원리입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신권 소유자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생활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맡은 바가 무엇이든지 열성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러 나아갑니다. 그들은 충실하게 그들의 신권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주님께 봉사합니다. 그들은 함께 가까이 모여 서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립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은 두 무리 중 한 군데에 속하게 됩니다. 그들은 앞장서기를 원하거나 숨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왕관 혹은 동굴을 탐합니다.

앞장서기를 원하는 이들

앞장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현재 그들이 요청받은 일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만약 감독이라면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부름을 능가한다고 믿습니다. 아마 그들이 지도자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쳐우 가정

복음 교사나 정인회 회장단 보좌에 있는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라고 생각합니다.

숨기를 원하는 이들

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기에 너무 바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해야 할 때, 이사 가는 멘데즈 형제님 가족을 도와 주어야 할 때, 감독님이 공과를 가르치라는 부름을 줄 때, 그들은 항상 미리 준비된 변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년 전,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감독님들과 스테이크 회장님들로부터 받은 다음과 같은 보고를 전하셨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너무 바쁘”거나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봉사하라는 부름을 거절합니다. 또 다른 회원들은 부름을 받아들이지만 그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벤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가 그분의 교회에서 부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재능과 영향력으로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¹

앞장서기를 원하거나 숨기를 원하거나, 이 두 가지 성향의 주요 원인이 같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더 좋은 방법

구주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²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이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사신 방법이며,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이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인간의 명예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그분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 제의를 즉시 그리고 완전히 거절하셨습니다.³ 일생을 통해 분명히, 구주께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치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병자, 슬퍼하는 자, 그리고 못 보고 지나친 자들을 위해서 그분의 시간을 내셨습니다.

이 훌륭한 모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봉사하기보다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자주 사람의 명예를 구하는 데 몰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 섰을 때, 그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혹은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실까요? “남편”, “아버지”, 혹은 “신권 소유자”라는 직함 외에 우리가 가졌던 다른 직함들이 그분께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께서 우리의 스케줄이 얼마나 바빴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중요한 회의에 우리가 참석했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실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이 약속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이 아내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만 아는 귀족 보다는 고결한 종을 기뻐하십니다.

이 생에서 겸손하게 생활한 사람들은 다음 생애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거지 나사로가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맛보기를 갈망하는 동안 매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산해진미를 먹었던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교리를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다음 생애에서 부자는 지옥에 던져졌고 고통 속에 그의 눈을 들어올려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옆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⁴

존 로우 모일의 모범

올 해는 존 로우 모일의 탄생 200주년입니



다. 존은 그의 고향 영국을 떠나 손수레 부대의 일원으로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여행한 개종자였습니다. 그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한 계곡 떨어진 작은 마을에 그의 가족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존은 뛰어난 석수였는데 이 능력 덕분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일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존은 작업 현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새벽 두 시에 집을 떠나 여섯 시간을 걸었습니다. 금요일에는 저녁 다섯 시에 퇴근하여 자정까지 걸어 집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이같이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소가 그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복합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의료 방편 때문에 부러진 다리를 절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문에 가죽 끈으로 고정시키고 틀뚝으로 무릎 아래 몇 센티미터 부분을 잘라내었습니다.

미숙하고 거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존이 침대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자 그는 의족의 발목 역할을 할, 숨겨진 디자인 된 마다가 있는 나무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해서 걷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여 결국 솔트레이크

성전까지 22마일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솔트레이크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금색의 글자를 새겼습니다.⁵

존은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존의 손자, 헨리 디 모일이 십이살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고 결국에는 교회의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이 부름들에 대한 모일 회장의 봉사는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할아버지, 존의 봉사 또한 주님께는 똑같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존의 성품과 그의 희생의 유산은 충실함의 것발, 그리고 그의 가족과 교회에 대한 의무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존 로우 모일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라는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힐라맨의 이천 병사의 예

개인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 봉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힐라맨의 이천 병사 중 그 누구의 이름

도 모릅니다. 개개인으로서, 그들은 익명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한 무리로서 그들은 정직과 용기, 그리고 기꺼운 봉사의 표상으로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으로서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성취할 수 없었던 일을 함께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권 형제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까이 모여 서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릴 때, 자기 자신의 특권과 기쁨보다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에 더 마음을 쓰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름은 봉사와 성장을 위한 기회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낮은 부름이란 없습니다. 모든 부름은 봉사와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님은 모든 회원들이 개인적인 영의 성장으로 인도하는 봉사의 기회를 갖도록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름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강화하고 축복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권유드립니다.

스테이크 회장단을 재조직하기 위해 시온의 스테이크들을 방문할 때, 접견하는 동안 자신이 다음 스테이크 회장단이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는 형제님들이 계셔서 이따금씩 놀라곤 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이것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성신을 통해 이해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정한 부름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알려주는 영적인 느낌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친절한 자비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머지 부분을 듣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네가 이 직책에서 봉사하기에 합당할지라도, 지금 이 부름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네가 서 있는



벡타이 매는 것에 도움을 받고 있는 브라질의 미래의 선교사

곳에서 들어올리는 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만이 해낼 수 있는 과제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위치에 서 있으며 그만이 해낼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몬슨 회장님이 어떻게 노약자들을 방문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격려, 위안, 그리고 사랑을 가져다 주시는데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끼도록 만드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지니고 계십니다. 몬슨 회장님이 교회의 모든 가족을 방문하시고 돌보신다면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멋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그분에게 그 일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음 교사로서 우리가 맡은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주님은 몬슨 회장님께 우리의 가정의 밤을 준비하고 감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로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부름과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더 능력있고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은 책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닿을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과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의 삶을 축복함으로써 이 고결한 사업에서 우리가 그분을 대신하고 대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있는 신권의 권능으로 굳게 서서 우리가 지금 가진 부름에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라십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피아노를 들어올릴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혼자서는 주님의 사업을 전진시킬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자리에 함께 가까이 모여 서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린다면, 그 어느 것도 이 신성한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더 높은 부름을 동경하기를 그치고 봉사하기를 주저하지 마시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수들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탱되고 있음을, 끝까지 충실하고 진실함을, 각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시온의 대업에 헌신적임을, 함께 가까이 모여 서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기로 한 성약으로 맺어졌다는 이 뜻 깊은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이 모든 것을 저의 사랑과 축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년), 451~452쪽, 또한 *엔사인*, 1986년 12월호 70쪽.
2. 마태복음 20:27
3. 마태복음 4:8~10 참조
4. 누가복음 16:19~31 참조
5. In Gene A. Sessions, ed., “Biographies and Reminiscences from the James Henry Moyle Collection,” typescript, Church Archives,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03.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이”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그렇게 되면 짐을 지는 우리의 힘은 우리가 요청받게 될 더 큰 봉사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저는 때때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위압감을 느끼고 있는 신권 소유자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의 생활에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자신의 신권 의무를 생각할 때 내가 과연 거기까지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것이 폭넓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회중 앞에서 말씀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종한 분들에게는 처음으로 회중 앞에서 기도하거나 공과를 가르치라는 요청을 받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 훈련원에서 언어를 배우려고 노

력하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한계점까지 몰고 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선교부 회장이 여러분에게 낯선 도시의 길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와 복음의 회복에 관해 간증을 전하라고 명했을 때 분명 그런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다 끝내고 나면, 충실한 신권 소유자가 되는 것이 한결 쉬울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여러분은 아내와 갓난 아기를 부양하느라,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려 노력하느라, 서둘러 교육을 마치기 위해 애쓰느라, 장로 정원회 회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느라, 아마도 그들이 이사회할 때 가구 옮기는 일을 돕느라, 또 성전에서 조상들을 위해 봉사할 시간을 내려 애쓰느라 잠을 훨씬 덜 자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좀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충실한 신권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좀 더 쉬워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연로하신 분들은 신권 봉사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미소를 짓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충실하게 봉사를 할수록,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짐을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키워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의 미소는 행복한 미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그렇게 커진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봉사 정신과 신앙을 지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일단 근육을 파열시켜야 합니다. 근육을 극도의 피로 상태까지 몰아가면 그것은 스스로 힘을 되찾으면서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께 봉사하면서 우리의 한계치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의 영적인 힘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통해, 우리의 본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짐을 지는 우리의 힘은 우리가 요청 받게 될 더 큰 봉사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권 봉사를 쉬워 보이게 만드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이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거나, 아니면 그런 시험이 그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상황이 그들에게 더 힘들어질 때 그들을 도와줄 준비를 합니다. 이는 그 일이 분명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권 봉사에서 우리의 한계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 영광 중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도록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 그분은 우리에게 필멸의 육신과 죄에 대해 유혹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런 죄를 짓고 첫째 부활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일들이 가능하도록 그분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여호와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구주께서는 필멸의 세상에 태어나셔서 유혹을 받으셨으나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결국 겻세마네와 골고다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죄를 충분히 회개하고, 침례 의식을 통해 깨끗하게 되며, 그분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맺고 지키는 이들에게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사나운 적대자인 루시퍼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로잡아 영생의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친절과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구주와 함께 그분의 아들들 가운데 선택된 소수만이 지상에서 신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그 의식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권의 큰 중요성과 우리가 맞설 반대의 세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위압감을 느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라고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는 것의 본질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간적인 힘에 비해 책임은 너무 힘들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위대한 신권 봉사의 토대가 됩니다.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바로 구주를 기억할 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 거울에 붙여 놓고 기억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경전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어렵게만 보였던 제 부름 앞에 제가 두려움 없이 서도록 6개월 전 저를 축복하시면서, 구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내셨습니다. 선지자가 그의 손을 제 머리 위에 올려 놓았을 때, 이 경륜의 시대에 적은 무리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주신 구주의 말씀들이 그의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¹

몬슨 회장님께서 기억하여 인용하신 이 약속은 제게 성취되었습니다. 확신이 의심을 대신했으며, 영이 찾아오고, 의료진이 영감을 받고, 제 생명이 보존되었으며, 저는 견뎌냈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그 축복으로 인해, 구주를 기억하는 것과 구주께 봉사할 때 그분이 우리의 앞과 옆에서 나아가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은 제게 항상 쉬울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받쳐준다는 약속이 사실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겁먹은 사환에게 엘리사가 준 확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가 봉사하면서 압도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그 확신은 우리의 것입니다. 엘리사는 실제적이고 혹독한 대립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 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²

엘리사의 그 사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보이는 대적자들보다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들 중 일부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쳐 주실 것이며 때때로 여러분을 지원해 줄 다른 사람들을 부르심으로써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원회 지도자들이 정원회 모임에서 회원들의 얼굴과 눈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독이 제사 정원회에서 단지 감리하는 것 이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감독은 제사들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감독이나 장로 정원회 회장 또는 그런 선교부 회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와서 여러분을 돕고 또 여러분

을 지원할 다른 사람을 부를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기에 함께 봉사할 적절한 동반자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두 가지를 말해 줍니다. 하나는 우리를 돕기 위해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인식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임무지명에서 다른 사람을 강화시킬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한 선교부 회장은 그가 열두세 명의 동반자를 지명해 주었던 한 선교사에 관해 제게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명했던 그 동반자들 모두가 조기 귀환하려 했거나 귀가 조치되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동반자들을 잃을 수도 있던 시점에서 그들을 구해 낸 선교사에게 나중에 그 기적적인 사실을 언급했을 때, 그의 답변은 제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거나 실패하는 동반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선교부 회장이 문제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올바른 천사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영감을 계속해서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봉사하는 가운데 필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장점을 보고 우리를 들어 올려주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북돋아 주기 위해 보내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보내진 사람일 경우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제 경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 받은 직후, 저는 제일회장단의 보좌였던 파우스트 회장님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그분 사무실로 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일부러 방문을 요청하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며 갔습니다.

얼마간의 덕담 후에 그분은 저를 보며 “아직도 그렇습니까?”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그분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 모임에서 형제님을 꼭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름이 형제님 능력에 벅차다고, 그리고 자신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제 앞을 가로막는 듯한 의구심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제게 확신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저의 의구심을 알아 채고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도와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친절하지만 확고한 대답에 놀랐습니다. 그분은 “제게 부탁하지 말고, 그분께로 가십시오.”라고 대답하시면서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 제가 그 사무실의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실로 들어가 그분이 앉아계셨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분이 저에게 주님을 위한 봉사에서 중압감을 느끼는 사람을 돕는 방법에 관해 어떻게 모범으로 가르쳐주셨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분께 보내는 방법을 확신을 가지고 찾아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권고를 따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힘을, 그것도 아주 충분히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은 힘과 용기와 결의를 쌓는 경험을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주셨습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분은 아셨습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 중 어떤 것은 여러분이 다른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일어서서 다음의 말씀을

큰소리로 외쳤을 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삼가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³

여러분이 그런 높은 표준을 받아들이고 지켜왔을 때, 주님은 신뢰와 힘을 여러분 안에 쌓아 두고 여러분이 언제든 자신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대업에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을 때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저는 어느 화창한 봄날 잔디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게는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쟁터는 아니었지만 저는 알려지지 않은 임무를 앞두고 있었고, 그것은 제가 가진 모든 것, 어쩌면 제 목숨까지도 요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른손을 들고 “참된 애국심과 충성”으로 나라를 지키며, “이 책임을 어떠한 마음의 주저함이나 회피하려는 의도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시작하려는 임무에 따르는 의무를 충실하게 잘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⁴라고 서약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제가 집사였을 때부터 제 안에 쌓여져 왔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신권을 받고 처음 몇 년 동안 저는 당시에 “선교사 환송회”라 불리는 모임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떠나기 전에 성찬식

에서 간단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임 전체가 임지로 떠나는 선교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모임에는 항상 몇 가지 특별 음악이 포함되었습니다. 귀환 선교사들이 사중창으로 다음의 노래를 부를 때 느꼈던 감정을 저는 지금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주 원하면 내 가리랴” 그리고 가시는 “주께 대답하리니”라는 서약으로 이어져 마침내는 “주 뜻대로 되오리다”로 끝났습니다.⁵ 당시 저는 감동했고, 이제는 그 약속이 우리의 모든 신권 봉사에서 저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봉사하라 명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갈 때 우리는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속죄에 의해 변화되어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살기에 합당하게 될 것을 권유할 때 우리는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우리의 충실한 봉사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가 그분 곁에 함께하기에 합당해지고 그분을 영원히 섬기게 해 줄 것이라고 느꼈으며,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신권 봉사에 바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용기와 더불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며 천사가 우리를 받쳐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실 것이라고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참된 교회이며 여러분은 그분의 영원한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세상의 모든 신권 열쇠를 지니고 행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4:88.
2. 열왕기하 6:15~17.
3. 교리와 성약 4:2.
4. “Oaths of Enlistment and Oaths of Office”
5.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찬송가, 146장.

배우고 행하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됨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형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일회장단의 두 보좌장께서 가지고 계신 힘을 목격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제일회장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 하나로 단합되어 있음을 선언합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사 합창단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 가지 경험담을 말씀드리려 하는데, 다른 여러분들에게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수년 전에 선교사 훈련원 회장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몬슨 회장님, 훈련원에서 집으로 가려 하는 선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를 그만 두고 집에 가려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일이 처

음은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이번 선교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선교사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선교부로 부름받았는데, 그는 스페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에게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에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선교사를 일본어 학습반에 참석시키십시오. 그런 다음 정오에 그 선교사가 회장님께 보고하게 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열 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훈련원 회장이 말하길, “그 선교사가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그는 이제 두 말할 필요 없이 자신이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은, 비록 여러 장소에 모여 있지만 하나로 단합된 고귀한 신권 소유자들입니다.

아마도 이 모임은 신권 소유자들이 함께 모였던 것으로는 전례 없이 가장 큰 모임인 듯합니다. 신성한 부름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은 고무적입니다. 의무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순수한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과 가족을 천국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여러 사업체들이 도산했고,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투자는 위태로워졌



습니다. 우리는 함께 책임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헐벗거나 거할 곳이 없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할 때, 기적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든 후기 성도들에게 신중하게 계획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채를 피하도록 권고합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실무는 이러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모든 십일조와 기타 헌금이 희생을 통해 오는 신성한 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의로움이 깃드는 성소, 기도의 장소, 사랑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올 수 있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됩시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그분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모임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며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눌 신권의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자기 만족에 젖어 살거나 저할동인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손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신권의 부름에서 충실하게 봉사하여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서 생활하고 너

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죄의 늪을 피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큼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이러한 지식으로 무장된 고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있는 말씀은 이 신성한 사업에서 구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¹

우리는 이 약속에 얼마만큼 자격이 있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따라야 할 지침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의무를 제안합니다. 그것들은 대제사에게뿐만 아니라 집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노력할 때에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첫째,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십시오.**
둘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셋째,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유익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이 목표들을 하나씩 논의해 봅시다.

첫째,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십시오.** 사도 바울은 배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²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의 [본을] 바라보자”³

수년 동안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시고 후에 제일회장단에서 봉사하신 스티븐 엘 리차즈 회장님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종종 그에 대한 그분의 철학을 강조하셨습니다. “신권은 통상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관능’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목적으로 볼 때 저는 신권을 봉사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종종 ‘완전한 봉사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사

람들이 이 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고자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함으로써만 가능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봉사의 도구이며 ... 또한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를 통해 명백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합당한 자로 헤아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⁴

제11대 교회 회장이자 교회에서 위대한 교사 중 한 분이셨던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신권 소유자가 될 때, 그는 주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의 부름을 수행할 때 마치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⁵

여러분 가운데는 성격상 수줍음을 타거나 부름을 적극적으로 받기에는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이나 저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사업이며, 주님의 심부름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정식 공과 시간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반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은 예배당이나 공과 교실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래 전 아론 신권을 소유한 회원들이 아론 신권 회복을 기념하기 위한 연례 소풍을 손꼽아 고대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버스에 가득 탄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북쪽으로 15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클라크스 모지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몰몬경의 세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틴 해리스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의 무덤임을 표시해 주는 아름다운 화강암 묘비 주위에 모여 있는 동안 한 고등평의회가 마틴 해리스의 생애에 관한 배경을 언급한 뒤, 몰몬경에서 그의 간증을 읽고 나서 자신의 간증을 덧붙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열중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화강암 비석을 만져 보고, 그들이 방금 들은 말과 느낀 점들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그런 뒤 로간의 한 공원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청년들은 로간 성전에 있는 잔디에 누워 높이 솟은 첨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구름이 잔잔히 부는 바람을 따라 첨탑을 지나 급히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목적에 대해 배웠고, 성약과 약속은 말씀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에 성전 문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늘은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웠음이 분명했습니다.

둘째,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십시오.*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진 신권에 관한 계시에서 볼 수 있듯이, "배움"은 "행함"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⁶

오늘 저녁 이 모임에 참석한 각 신권 소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봉사해야 할 부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에서는 어떤 임무도 작은 것이 없습니다. 이는 각 임무가 영원한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테일러 회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무를 다했을 때 구원할 수도 있었을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⁷ 우리 중에 누가 인간 영혼의 영생을 지연시키는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그토록 큰 기쁨일진대 하나님의 자녀가 경고 받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종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태만함에 대한 후회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옛말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신권 소유자가 베푸는 대부분의 봉사는 소리 소문도 없이 조용히 끝납니다. 친절한 웃음과 따뜻한 악수와 진리에 대한 진실한 간증은 문자 그대로 삶을 고양시키고 인간의 속성을 변화시키며 소중한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의 한 예는 폴란드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던 줄리어츠와 도로시 후섹 부부의 경우입니다. 후섹 형제님은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폴란드 말을 사용하며, 폴란드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후섹 자매님은 영국인이며 폴란드와 폴란드 사람들에게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환경은 원시적이었으며, 일은 외로웠고, 임무는 막중했습니다. 그 당시에 폴란드에는 선교부가 없었습니다. 후섹 부부에게 주어진 임무는 선교부가 조직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여 다른 선교사들도 부름 받아 사람들을 가르치며 개종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지부를 세우며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섹 장로와 후섹 자매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의 막중함 때문에 낙담했을까요? 단 한 순간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도움을 간구했고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에 2년이 아니라 5년 동안이나 머물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목적들이 모두 실현되었습니다.

저와 러셀 엠 넬슨 장로님, 그리고 한스 비링거 장로님은 후섹 장로님과 함께 폴란드 정부의 아담 우파트카 총리를 만나서 그로부터 "여러분의 교회가 여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건물을 짓고 선교사를 보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제일회장단

2008년 10월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톰 토퍼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퀸스



엠 러셀 홀트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테이버트 에이 베이나



쿠엔틴 헵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칠십인 회장단



닐 앤더슨



로버트 에이 앤더슨



마크 앤드루 배크



스тивен 이 스노우



월터 로버트 브라운



멜 윌리엄 필립스



제이 이 켄슨

철십인 제일 정위원회



마크로스 에이 아이투카티니스



찰스 디디에이



데이비드 에스 바스러



세인 엠 보헤



제임스 코세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안슨



케빈 제이 코발란



스티브 제이 크로닌



로널드 이 크로닌지



벤야민 디 호요스



존 비 리안



데이비드 제프 에건즈



앤드류 제프 기퍼드



제임스 엠 기퍼드



캐롤로스 에이 크로이



크리스토펬 톨슨 이세



시 스코트 그라유



브루스 시 하펜



데이비드 엠 홀스트롬



제임스 제이 허틀러



리처드 제프 허틀러



윌리엄 제이 켄슨



데이비드 엠 존슨



케네스 존슨



폴 브이 존슨



조시 오키오셰아



폴 이 파커



앨버트 더블류 파파라도



존 엠 매드슨



로버트 시 마슨



제임스 비 매튜스



데니스 비 노크스뮐러



글렌 엠 맥에버스



앨런 에스 파커



제임스 더블류 파파스



앤소니 디 퍼킨스



폴 비 파파



로버트 제이 맥카나즈



제임스 디 포터



리처드 제프 맥카스



제임스 오 시뮤켄스 이세



윌리엄 에스 맥퀸스



케빈 이 스티븐슨



조시 에이 맥퀸러



윌리엄 제프 맥퀸러



윌리엄 제프 맥퀸러



토머스 제프 맥퀸러



제임스 엠 맥퀸



제임스 비 위크만



조시 예프 제블론스



윌리엄 제프 맥퀸



윌리엄 제프 맥퀸



윌리엄 제프 맥퀸



윌리엄 제프 맥퀸



윌리엄 제프 맥퀸

철십인 제이 정위원회



마빈 비 아담스



더블류스 엠 앤더슨



테드 엠 앤더슨



크레이그 에이 카톤



왈터 디 크리스티안슨



톰 암 클라크



제임스 엠 딘



크리스 엠 에드워즈



스텝던 제 엘리스



데이비드 에이저 갠



러리 더블류스 갠슨



스펜서 바이 존스



그레고리



로버트 시 오스



로버트 시 오스



윌리엄 더블류스 존슨



로버트 엠 오스



로버트 엠 오스



로버트 엠 오스



로버트 엠 오스



로버트 엠 오스



로버트 엠 오스



로버트 엠 오스



로버트 엠 오스

감리 감독단



리처드 시 에글리
제1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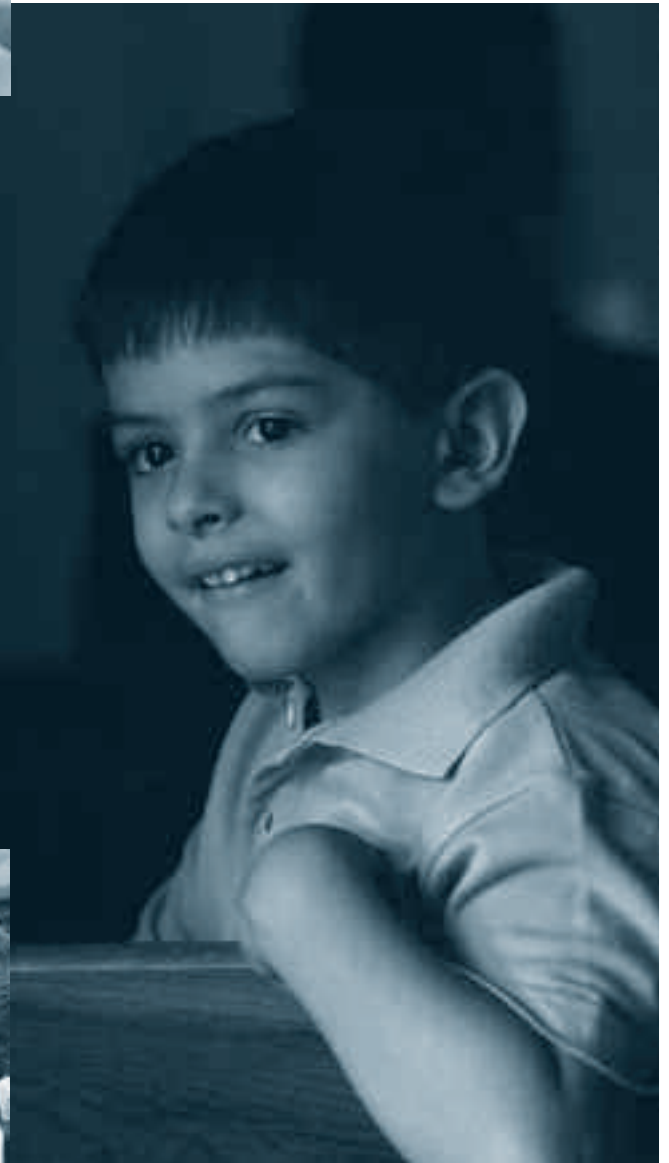
제임스 엠 에글리
제2보좌



제임스 엠 에글리
제3보좌



(위, 키에프 성전 건축 부지 앞에서)
우크라이나의 교회 회원들과(아래) 나이지리아의
회원들이 연차 대회 모임을 시청하기 위해
모였다.



(맨 위 왼쪽 및 오른쪽) 브라질의 후기 성도들은 대회 모임들
사이에 경전을 공부하고 방문한다. (위) 한 소년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폴란드에서 환영 받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그는 줄리어스 후섹 장로님을 가리키며 “이분은 당 신들의 교회를 위해 훌륭하게 봉사해 왔습 니다. 여러분은 그의 모범과 일에 대해 감사하셔 도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후섹 부부처럼 주님의 사업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줄리 어츠와 도로시 후섹 부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시편의 말씀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도 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⁸

셋째,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료인 디모데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⁹고 권고했습 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임무에 대해 기도 하고 우리가 수행하도록 받은 부름을 성공적으 로 성취하도록 하늘의 도움을 구할 것을 권고 합니다. 인간이 자신보다 더 높은 권능을 인정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¹⁰ 사람은 자신이 찾을 것을 구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소 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 음으로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의 본질입 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겸손히 구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물론경에는 이 모두를 말해 주는 권고가 나 옵니다. 주님은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¹¹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봉사하시면서 어떤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요한 복음 10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우 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 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



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 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 라”¹²

형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 을 배우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마 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 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혼자서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아셨던 주님 은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 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오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 다. 그는 편지에 그의 간증을 나누었 습니다. 오늘 저녁 그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배워야 할 것 을 배웠고, 행해야 할 것을 행했고,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늘 노력했던 사람 이 지닌 신권의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 다. 3년 전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저의 친구 테론 더블류 보루프의 편지에서 발췌된 내용을 읽겠습니다.

“여덟 살에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았을 때, 나는 선하게 사는 것과 평생토록 성신을 지니 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습니 다. 나는 성신은 오직 선한 사람에

게만 임한다는 것과 악이 우리 생활에 들어올 때 그가 떠난다는 것을 배웠습니 다. 그의 속삭임과 인도가 언제 필요한지도 모른 채, 나는 이 은사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번은 성신이 제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동안, 저는 남태평양에서 싸우는 B-24 전투기의 자동소총수였습니다. 하루는 한 정유공장을 폭파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폭격 운항 중 가장 긴 운항을 하게 되리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은 제가 이 비행에 지명될 것이 나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 습니다. 당시 저는 함께 모이던 후기 성도 그 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르네오로 날아가는 동안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우리의 비행기는 적기의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조종사는 우리 에게 낙하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우리가 낙하하는 동안에도 적군 조종사는 우리에게 사격을 가했 습니다. 저는 구멍 보트에 바람을 넣지 못했습 니다. 수면의 위 아래로 심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저는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고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이 돌아왔고, 저는 “하나님, 구해 주소서” 하고 외쳤습니 다. 저는 다시 구멍 보트에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 했으며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물에 떠 있을 만큼의 바람이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위로 올라 갔으나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기운이 빠져 있 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우리는 3일

우리 마음을 하나로 결합하여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의로움으로 완전히 단합될 때 성도들은 주님의 여하한 목적도 이룰 수 있습니다.

동안이나 사방에 적함이 에워싸고 머리에는 적기가 가득한 적지에서 표류했습니다. 그들이 푸른 물에 떠 있는 노란 구멍 보트들을 왜 볼 수 없었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폭풍이 몰려 왔으며 10미터나 되는 파도는 우리의 보트를 거의 산산조각냈습니다. 음식도 물도 없이 3일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게 기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를 했고 우리가 구조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는 우리를 구하러 온 잠수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지나쳐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그것은 우리를 지나쳤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지나면 잠수함이 그 지역에서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신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너는 신권을 지니고 있느니라. 잠수함이 너를 구조하도록 명하라.' 나는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권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돌아와 우리를 구조하라.' 몇 분 후, 그 잠수함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수함 위에서 선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거의 포기한 나머지 여러분들을 찾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¹³

저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사업이 참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주님이 이 사업을 감독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을 따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며,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에스겔 36:26~28.
2. 빌립보서 3:13~14.
3. 히브리서 12:1~2.
4. 스티븐 엘 리차즈, Conference Report, 1937년 4월, 46쪽.
5. 헤롤드 비 리, *Stand Ye In Holy Places* (1974년), 255쪽.
6. 교리와 성약 107:99.
7. 존 테일러, "Discourse," *Deseret News*, 1878년 8월 7일, 2쪽.
8. 시편 121:2~4.
9. 디모데전서 4:12.
10. Stephen L Richards, Conference Report, 1937년 10월, 10쪽.
11. 제3니파이 27:27.
12. 요한복음 10:11~15.
13. 개인 서한, 강조 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많은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나라에서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갖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집합은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사이에 대립이 점점 커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분열과 차이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위대한 단합의 날이 도래함에 대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이신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며, 그 백성이 그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단합된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단합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 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합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주님의 선지자들은 항상 단합을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사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도전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운명을 위해 하나의 백성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저의 메시지는 우리가 점점 더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단합을 간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어느 가정에 손님으로 초대되었던 적이 있는데, 취침 시간이 되자 그 가족은 제게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가 기도를 부탁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가족의 이름을 한 사람씩 불러가며 마치 축복사처럼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자녀들과 부모의 표정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 어린 아이의 기도에 자신들의 신앙과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몇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이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한 젊은 미망인을 처음으로 방문할 준비를 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장례식 때 올 가족과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알아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 각 자매님들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가 너무 빨리 끝난 나머지 일부 자매님들은 할 일이 더 없는 것을 서운해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위로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굳게 결합되어 주님의 봉사를 행했습니다.

제가 보았듯이,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단합의 기적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노력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합으로 굳게 결합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충실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배경이 아무리 다르고 주위에서 어떤 마찰이 일어나더라도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은 물론 우리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¹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단합을 이루는 축복

을 받을 때 기쁨이 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때 그분과 더불어 전세에서 누렸던 그 기쁨을 갈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단합에 대한 그 성스러운 소망을 부여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그것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단합의 기쁨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것을 구하고 또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모이라고 권고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족으로 모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공과 반, 와드 및 지부를 설립하셨으며 우리에게 자주 모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주신 그러한 모임에는 커다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단합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세 니파이인에게 그들이 충실하게 봉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받게 될 보상으로 그분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충만한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너희가 내 아버지 나라에 앉으리니, 참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충만한 기쁨을 주신 것같이 너희 기쁨이 충

만하리라. 또 너희는 나와 같이 되겠고, 나는 아버지와 같으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²

주님께서는 단합이 계속 증가하는 축복과 기쁨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물론경에는 그 성공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엘마 시대에 몰몬의 샘에서였습니다. 그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 백성들이 했던 일은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용기를 줍니다.

엘마와 그의 백성들이 행하도록 영감 받은 모든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사이사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또 그때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라 일컬어졌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침례를 받는 자는 그의 교회에 더하여지더라.

“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자기가 가르친 것과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하여 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참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회개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면, 아무 것도 전파하지 않게 하였더라.

“또 그가 그들에게 서로 다름이 없어야 할 것과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고, 한 신앙과 한 침례를 가지고 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것을 명하였더라.

“또 이같이 그가 그들을 명하여 전파하게 하였고, 이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³

그것이 엘마가 백성들에게 신앙과 회개를 가르치라고 명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매번 가정의 밤 공과에서 제가 자녀들에게 구주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 간증하도록 권유할 방법을 찾곤 했던 이유입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그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과를 하게 하거나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그 간증을 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찾았을 때가 가장 성공적인 가정의 밤이었습니다. 구주에 관해 간증을 전했을 때 성신이 그것을 확증해 주었고, 그러한 저녁이면 우리 마음이 굳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식 외에도 우리가 백성으로서 따르고 있는, 우리를 더 큰 단합으로 이끄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계시입니다. 계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함께 따를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하며, 성신이 우리 마음과 우리와 함께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는 두 번째 원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만심은 단합의 큰 적입니다. 여러분은 그 끔찍한 결과를 보았고 느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훌륭한 두 사람 사이에 가벼운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참된가 하는 토론으로 시작되었으나, 나중에는 누가 옳으나 하는 논쟁이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큰 능력과 배경을 밝히면서 왜 자신의 견해가 더 옳는지 이야기했고, 결국 그 논점이 아닌 자기 자신들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처럼 놀랐을 것입니다. 우

리는 그러한 비극적인 충돌이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보아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성도들을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해를 입기 전에 능숙하게 문제를 진정시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더욱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충돌 속에 있는 당사자이든 아니면 제 삼자이든,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 중의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아 온 것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일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완강한 입장을 취하든, 거기에는 진리의 요소가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위대한 자, 단합을 회복시키는 자는 사람들이 그 공통된 진리를 보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함께 나누는 그 진리는 항상 더 위대하고 그들의 차이점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에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 공통된 진리를 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 도와달라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는 우리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단합을 이룰 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조차도 하나의 기회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을 노여움의 원인이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없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경우, 주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기회를 주시면서 그 사람과 저의 차이점이 바로 제가 필요했던 도움이었음을 알게 해 주시는 친절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분을 더 잘 섬기도록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 주시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단합의 원리를 이끌어내는데, 또 다른 원리는 바로 서로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가정이나 교회에서 누군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에 저에게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점점 더 단합을 이루어갈 때, 또한 그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구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알고 있으면, 너희가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바로 그 판단으로 너희가 또한 판단을 받을 것이니라.”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조금 더 관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 성구 외에도, 제 어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좋은 점을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여러분이 감독의 행위와 인격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여러분의 재판관으로서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심판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경전의 말씀과 여러분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교훈은, 여러분이 감독의 행위와 선한 의도에 대해 가장 훌륭한 점을 말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관대하게 말할 때 평안과 기쁨을 느낄 것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그 감독과,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었던 사람과 더불어 하나가 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감독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든가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었던 사람이 여러분의 관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화의 씨앗을 뿌릴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감사를 느끼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므로, 우리는 이 동일한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지는 것은 속죄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쉽게 부탁을 받아들이며, 동시에 두려움을 모르고 매사에 충실한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교회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영의 은사에 의해 사도 바울이 본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⁵

단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님은 세상이 기적으로 여길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완전히 단합될 때 성도들은 주님의 여전한 목적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국가의 대통령, 통치자 및 세계적인 자선단체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다음과 같이 칭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하의 교회는 재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귀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텐트와 양식까지 갖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칠 줄 몰랐고 기운났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런 다음 대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 교회는 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이란 조직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아껴두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주셨을 도움을 주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택함 받은 지도자들의 지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건히 결합되었기 때문에 힘을 증폭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단합이 증가하리라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자비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참된 교회입니다. 몬슨 회장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기꺼운 마음으로 단합하여 몬슨 회장을 지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힘차게 함께 나아갈 것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되기를 바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서 단합을 누리시도록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단합의 기쁨에 대한 의로운 소망을 갖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17:21; 교리와 성약 50:43, 93:3 참조
2. 제3니파이 28:10.
3. 모사이야서 18:17, 19~22.
4. 모로나이서 7:18.
5. 에베소서 2:18~19.

그리스도인의 용기: 제자로서의 대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구주의 방법으로 대응함



우리는 함께 하나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주를 사랑하는 데도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총명하고 충실한 후기 성도 젊은이 그룹이 그들의 마음 속에 가장 궁금한 질문들을 적었습니다. 한 자매는 “교회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 왜 교회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저는, 이 생의 큰 시험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의심 받고 비난 받을 때 온다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주먹을 치켜들고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발 물러서서, 기도하고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세상으로부터 멀리 받고 거절 당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리하이의 꿈에서, 구주께 나아온 사람들 또한 “조롱과 … 손가락질” 견뎌왔습니다.(니파이전서 8:27) 예수께서는 “세상이 [내 제자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7:14)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대응한다면, 우리는 좀더 그리스도처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따르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미리 원고를 준비하거나 공식에 기초할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다르게 대응하셨습니다. 사악한 헤롯왕과 대면하셨을 때 그분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서셨을 때는 자신의 신성과 목적에 대해 간단하고도 강력하게 간증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돈 바꾸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는 성스러운 것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그분의 신성한 책임을 행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비할 데 없이 자비롭게 대응하셨습니다.(누가복음 23:34)

일부 사람들은 침묵, 은유함, 용서, 그리고 겸손하게 간증을 나누는 것과 같은 대응이 수동적이거나 나약하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무례하게 우리를 이용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마태복음 5:44 참조)은 신앙과 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을 막론하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 심한 핍박을 받았을 지라도”(조셉 스미스-역사 1: 27) 보복을 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참제자들과 같이, 그는 인내와 인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구주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을 때, 즉 다른 뺨을 돌려대고 화를 참을 때, 우리도 역시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비난을 돌리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인 그분의 사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용기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도전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제자들은 반대 속에서 기회를 봅니다.

물몬경에서 선지자 아빈아다이는 결박 당한 채 사악한 노아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왕이 아빈아다이에 심하게 반대하고 결국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아빈아다이는 개의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가르치고 자신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아빈아다이가 그 기회를 활용했기 때문에, 엘마라고 하는 한 제사가 복음으로 개종했으며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습니다. 아빈아다리와 엘마의 그 용기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흑색 선전이 있는 시기는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1983년 제일 회장단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반대는 그 자체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계속 직면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종교 문제와 우리의 메시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합니다. … 이것은 [회원들이]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¹

우리는 편집자에게 보내는 정성 어린 편지, 친구와의 대화, 블로그의 댓글, 또는 악플을 남긴 사람에게 위안의 글을 쓰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보나 편견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 즉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23:12)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결코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응할 때, 각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다행히도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다. **참제자들은 영의 인도를 구할 때 각 상**

황에 맞는 영감을 받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참제자들은 주님의 영을 불러오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고린도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4) 주님의 영에는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결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알게 되듯이, 성경에 대한 논쟁은 영을 물러가게 합니다. 구주께서는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제3니파이 11:29)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라 비난 받는 것보다 교회 회원들이 그런 비난에 대해 그리스도인 답지 않게 반응하는 것이 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항상 영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갈라디아서 5:22~23) 온유하다는 것은 웹스터 사전에 “인내와 끈기를 나타내 보임, 또는 노를 품지 않고 상처를 견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²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용기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특히 다른 기독교 종파의 회원들과 상대할 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리적 차이로 다투며 논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슬퍼하시고 악마는 웃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리를 타협하거나 믿음을 희석시키지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된 복음 교리를 가르치고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눈에 인기를 모으거나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도 우리의 교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느낄 때조차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사도행전 4:29, 31 참조) 우리는 결코 담대함과 사탄의 모조품인 위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엘머서 38:12 참조) 참제자들은 뽑내는 교만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참제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을 개인의 옹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두어야 합니다. 질문과 비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기회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거나 신학적 논쟁에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간증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은 오직 사랑과 온유함으로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에드워드 파트



리지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은 내 앞에서 순결[하니,] 이는 그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옛날의 나다나엘과 같음이니라.”(교리와 성약 41:11)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어린이 같이 같이 순결하며 화는 더디 내고 용서는 빨리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질은 가정과 가족 내에서 먼저 배우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때, 우리는 구주의 사도들이 “주여, 저 입니까?”라고 했던 것처럼 질문해야 합니다. 만일 영으로부터 응답을 듣는다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 바로잡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더 잘 해야 합니다.

간사함이 없는 *참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하는 것을 피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회원이 아닌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세계 전역의 친구 및 이웃들과 강한 우정을 쌓아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고, 그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배웁시다. … 우리 가운데 누구도 … 우리의 도시와 국가와 세계에서 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³라고 가

르치셨습니다.

구주께서 헤롯에게 하셨던 것처럼, 때때로 *참제자들은 침묵을 지키므로써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번은 제가 골프를 치고 있을 때 큰 선인장에 스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쓰는 듯했습니다. 겨우 선인장을 스치기만 했는데도 그 식물의 가시가 제 옷에 툇툇 달라붙었습니다. 어떤 상황들은 마치 그 식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거리를 두고 단순히 자리를 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자극하여 논쟁에 휘말리게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물문경에는 산에 진영을 친 리혼타이와 그의 부하들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반역자 아멜리카이는 리혼타이에게 산기슭으로 “내려와” 자기를 만나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리혼타이가 산에서 내려오자, 그에게 “점차로” 독약을 먹이게 하며 그가 죽었고 그의 군대는 아멜리카이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엘마서 47장 참조) 논쟁과 비난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내려오도록 유혹합니다. 유리한 고지는 빛이 있는 곳입니다. 그

곳은 우리가 아침에 첫 번째 빛을 보고 저녁에 마지막 빛을 보는 곳입니다. 그곳은 안전 지대입니다. 그곳은 참된 지식이 있는 곳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유리한 고지에서 내려와 진흙 속의 신학적 논쟁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논쟁을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서나 직접 만나 종교에 관한 싸움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호존중과 사랑이라는 더 유리한 고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쌓았던 선지자 느헤미야의 모범을 따릅니다. 느헤미야의 적들은 “[그를] 해하고자 [했던]” 평지에서 자신들을 만나 줄 것을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리혼타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말로 현명하게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느헤미야 6:2~3) 우리도 역시 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멈추어 논쟁하고 방해 받는다면 그 역사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를 모아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시편 37:1)

이 세상에서 악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필멸의 생에서 큰 시험의 일부는 세상과 같이 되지 않으면서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중보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간구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한복음 17:15) 그러나 구주께서는 핏박에 대해 경고하실 때조차 다음과 같이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축복과 더불어 “견디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는 반대 세력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축복이 될 것”⁴이라고 말씀하신 제일회장단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

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께, 그리고 저에게 질문하신 자매님께 저의 답을 드립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의 인종, 신념, 종교, 또는 정치적 당파가 무엇이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용기를 보이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더 나은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길은 침례의 문으로, 의롭게 생활하는 협착하고 좁은 길로,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끕니다. 그분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와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즉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건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용기로 대응함으로써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과 저, 즉 후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 자신의 간증이기도 한 물문의 간증을 나눔으로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나는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부름을 받았느니라.”(제3니파이 5:13) 저는 주님에 대한 저의 특별한 간증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과 나눌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제일회장단 서한, 1983년 12월 1일.
2.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86년.
3. 토마스 에스 몬슨, "In Quest of the Abundant Life," *엔사인*, 1998년 3월호, 3쪽.
4. 제일회장단 서한, 1983년 12월 1일.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도와심

키스 비 맥멀린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은 이웃을 위한 봉사와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회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진리의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늘에 거하시며, “살과 뼈”¹의 몸을 지니신 승영에 오르신 분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동일한 하나님이며,² 모든 덕과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지상에 온 그분의 첫째 필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창조에 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나

의 독생자의 형상대로 내가 그를 창조하였고, 남자와 여자로 내가 그들을 창조하리라.”³

이 진리는 인류를 교양시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성한 성품을 부여 받은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창조의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과 닮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각한 육신의 약점 및 결함과 싸워야만 합니다. 아무도 질병과 노화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번민은 인생 여정의 일부입니다. 인간적인 성향과 욕구 및 욕망이 끊임없이 아우성칩니다.

이 모든 이유들과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얻는 한 가지 중요한 원천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⁴ 이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이므로, 때로 거리, 문화, 종교 또는 인종에 의해 나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이웃”입니다. 선지자 조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만 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로 그 폭을 넓혀



온 인류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⁶ 주님은 다음과 같이 그 모범을 세우십니다.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선을 행하심이라. … 또 그는 그에게로 나오는 자는 검거나 회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 모두가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⁷

주님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자 희생하려 애써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받을 것을 위해 일하고 타인의 향상도 추구합니다.⁸ 이러한 방식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있어 왔습니다.⁹

교회의 복지 계획이 이 신성한 방식을 구체화하고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그것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헌금과 헌물은 미망인들을 돕고, 고아들을 돌보며, 고통 받는 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수년 전, 중국의 한 고위 관리가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고, 교회 유적지를 돌아본 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말씀했습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 관해 알게 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서로를 사랑

한다면, 세상은 좀 더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금식한 뒤 먹지 않은 끼니만큼의 값을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내는 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웰페어 스퀘어 방문을 마치며 그는 “붉은 주머니”라는 작은 붉은색 봉투 하나를 관리자에게 건넸습니다. 중국에서 “붉은 주머니”는 사랑, 축복 및 행운을 기원하는 표시로 주어집니다. “약소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아침을 거르고 모은 것입니다. 저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 저의 금식 헌금을 내고 싶습니다.”¹⁰라고 그 방문자는 말했습니다.

교회의 복지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받은 것입니다. 그 원리는 인간의 구원에 필수적입니다.¹¹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회복되었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봉사의 상징이 됩니다. 그것은 하늘이 실제적인 방법으로 돕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지 원리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원리들은 계시 받은 진리입니다.”¹²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¹³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선지자로서,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터널의 끝에 빛이 없어 보이고, 밤의 어둠을 깨뜨릴 새벽이 오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 우리는 버려지고, 상심하며, 혼자라고 느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저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늘에 계시 아버지께로 향하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들어올리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고난을 항상 없애 주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지 여러분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¹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성역을 행사할 권세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형태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아가사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

은 자를 일으키시며”,¹⁵ 절망에 빠진 영혼을 구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복음의 회복과 함께 신권의 권능과 권세가 부여되었습니다.¹⁶

누군가가 병들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¹⁷ 충실한 장로들은 만약 주님이 계셨더라면 하셨을 일을 행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¹⁸

만약 응답된 기도들을 기록해 왔더라면, 이 세상에는 그 많은 기록들을 돌 곳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명예 총관리 역원이며 사랑하는 친구인 글렌 엘 러드 장로님이 보낸 다음의 기록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 열두 살 된 소녀 제니스가 심각한 부상으로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제니스가 신권 축복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카울리 장로와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사고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니스는 시내버스에 치였습니다. 이중으로 된 뒷바퀴가 그녀의 머리와 몸 위로 지나갔습니다.

“카울리 장로와 저는 제니스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골반 뼈가 부러졌고, 어깨를 심하게 다쳤으며, 여러 곳의 뼈가 부러진데다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어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녀에게 의식을 행하고 축복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름을 붓고 카울리 장로가 기름부음을 인봉했습니다. 강하고 결연한 자세로, 그는 제니스가 완전히 잘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축복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무 후유증 없이 많은 부상들로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축복이었고, 진실로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러드 장로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니스는 한 달 이상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회복되고 장애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축복이 선언되었습니다.”

러드 장로님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 병원을 방문한 이래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최근 제니스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70세로 세 자녀의 어머니이며, 열한 명의 손자 손녀들을 둔 할머니입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사고로 인해 단 한 번의 후유증도 겪지 않았습니다.”¹⁹

그녀가 치유받은 것은 그러한 많은 치유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약 58년 전, 열두 살의 제니스와 두 명의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한 병실에서 겪은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통해 그녀의 자녀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한 더 큰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도움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²⁰

저는 커다란 존경심과 경외심을 지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그분의 영향, 가르침 그리고 구원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해 옆집에 사는 친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중 장자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도록 성미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증거합니다.²¹ 그분은 고대의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기록할지 말씀하셨으며, 오늘날에도 그분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²²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의 죄를 속죄하셨으며,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분은 사도들과 함께 물고기와 꿀을 드시고, 양 대륙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시어 모두가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요, 살아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두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²³

그분은 우리의 입법자요, 재판장이며, 세상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 “정사가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 이름은 경이로운 자라, 모사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²⁴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30:22.
2. 교리와 성약 20:17 참조.
3. 모세서 2:27; 또한 창세기 1:27 참조.
4. 모사이야서 2:17 참조.
5. 마태복음 22:39.
6. 교회사 4:227.
7. 니파이후서 26:33.
8. 교리와 성약 56:16~18, 78:13~14, 104:13~18 참조.
9. 창세기 3:19; 출애굽기 23:10~11; 레위기 19:9~10; 마태복음 25:40; 모사이야서 4:16~27; 모세서 4:25, 5:1 참조.
10. 닐 케이 뉴웰, “The Red Pocket”(미출간 원고, 1999년), 1쪽.
11. 모사이야서 4:16~27 참조.
12. 토마스 에스 몬슨, “Guiding Principles of Personal and Family Welfare,” *Tambuli*, 1987년 2월호, 2쪽; *엔사인*, 1986년 9월호, 3쪽.
13. 마태복음 7:7~8.
14. 토마스 에스 몬슨, “Looking Back and Moving Forward,”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0쪽
15. 모사이야서 3:5~6.
16. 교리와 성약 13, 27:12~13, 110:11~16, 128:20~21 참조.
17. 야고보서 5:14~15.
18. 요한복음 14:11~14; 신앙개조 1:7; 브루스 알 맥콩키, *Mormon Doctrine*, 2nd ed.(1966), 345쪽 참조.
19. 글렌 엘 러드, From a conversation with See Glen L. Rudd; Glen L. Rudd, Rudd, “Miraculous Event,” *Treasured Experiences of Glen L. Rudd*(self-published, unpublished manuscript, 1995), Church Archives,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270~272쪽 참조.
20. 요한복음 3:16.
21. 모세서 6:63 참조.
22. 아모스 3:7; 교리와 성약 1:38.
23. 요한복음 11:25~26.
24. 니파이후서 19:6; 또한 이사야 9:6 참조.

덕으로의 회귀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

지금 이 우리 각자가 일어나 세상에 덕으로의 회귀를 촉구하는 깃발을 휘날릴 때입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저는 몬슨 회장님으로부터 새로운 본부 청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

하나님의 선지자의 면전에 서서 이 신성한 신뢰를 받았을 때, 저는 제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봉사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부름을 받기 전, 저는 “나는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새겨진 작은 접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모토가 적힌 작은 접시는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그 모토를 바꿀 수 있다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성스러운 연단에 서서 의지하는 힘입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가 끝난 지 이틀 후에 새로 지지 받은 우리 회장단은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엔사인 피크 정상으로 등

산을 갔습니다. 계곡 아래를 바라보자 햇살에 반짝이는 모로나이 천사상이 있는 성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회장단이 보고 있는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 또한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각 청녀가 성전에서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준비시켜야”² 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이유입니다.”³ 성전은 우리의 개척자 선조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던 자기 고향을 떠나 서부로 이주한 이유였습니다. 성전은 그들이 가난과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내한 이유였습니다. 성전 성약은 그 개척자들이 서부로 이주하던 중에 죽은 아기들을 묻어야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⁴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모든 소유를 다 잃었지만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 즉 성전 의식과 성스러운 성약과 가족으로서 함께 할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이 계곡으로 왔습니다.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지 불과 이틀 후, 브리검 영과 그의 동료들은 엔사인 피크에 올랐습니다. 그 정상에서 그들은 노란색 사각 천을 지팡이에 묶어 깃발을 만들고 열국을 위한 기 또는 표준을 상징하는 깃발을 휘날렸습니다.⁵ 성도들은 빛과 표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난 4월 엔사인 피크 정상에서, 우리 세 자매는 금색 페루 솔로 깃발을 만들어 지팡이에 묶어 휘날렸습니다. 그것은 “덕으로의 회귀”를 촉구하는 열국을 위한 우리의 깃발이자 표준이었습니다.

덕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고,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덕은 높은 도덕적 표준에 기초한 생각과 행동의 규범입니다. 그것은 순결과 도덕적 순수성을 포함합니다. 덕은 마음과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은 수많은 작은 결정과 행동들이 축적되어 이루어집니다. 덕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자주 듣기 어려운 말이지만, 그 어원인 라틴어 *virtus*는 힘을 의미합니다. 덕스러운 여성과 남성은 고요한 위엄과 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신을 받고 그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⁶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여러분은 의를 수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빛이 되기 위해 도덕적인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깨끗한 양심이나 도덕적인 청결보다 더 가치 있는 우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정된 장소에서 깨끗한 상태로, 또 그렇게 되기에 합당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느낌입니까.”⁷

우리가 높은 도덕적 표준들은 구식이며 오늘날의 사회와 별 관계가 없거나 중요하지도 않다는 생각에 천천히 빠져들어가 수 있겠습니까? 헤일즈 장로님이 방금 상기시켜 주셨듯이, 몰몬경의 리혼타이는 산 정상에서 잘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가 이끄는 병사들은 산에서 내려가지 않기로 “그 마음에 굳은 결심으로 확고하고 있었[습니다].”⁸ 기만적인 아멜리카이아는 매번 강도를 높여 단지 네 번의 시도만에 리혼타이를 “산에서 떠나 내려오게 할 수”⁹ 있었습니다. 결국 아멜리카이아의 거짓 약속을 믿은 리혼타이는 “점차로 독약을 먹게 되어”⁹ 죽고 말았습니다. 그냥 단번에 독살된 것이 아니라 점차 조금씩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지 않겠습



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을 처음에는 참아 주다가, 다음에는 받아들이고, 결국은 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¹⁰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잊게 만드는 거짓된 역할 모델과 유혹적인 매체의 메시지에 속임을 당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독약에 의해 점차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고귀한 세대의 청소년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만 쉬지 않고 보내게 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시대를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인 몰몬경에 포함된 진리의 지식을 탐구하지 않게 유인하는 것보다 더 기만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젊거나 나이 든 여성들이 자기 자신과 외모와 옷

과 몸매와 치수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거룩한 신분과 덕의 영향을 통해 가정에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잊도록 우리를 유인하는 것보다 더 기만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거나 나이 들었거나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한 남성들이 외설물을 보고 그로 인해 신앙보다는 육체에 집중하게 만들고 덕의 수호자가 아니라 악의 소비자가 되도록 유인하는 것보다 더 기만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몰몬경은 자신의 덕과 순결함을 통해 부모님의 성약과 가족의 신앙을 수호할 힘을 얻은 2,000명의 젊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언제나 진실”하겠다는 그들의 덕과 헌신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¹¹



저는 영에 의해 인도된 한 사람의 덕스러운 청년 또는 청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덕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인 주마 이강가는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승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겠다는 의지는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¹² 지금이 바로 더욱 자기를 수련함으로써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왕국에 적합한 성품(을 더욱) 키울 때입니다.”¹³ 지금이 바로 우리의 경로와 초점을 결승선에 둘 때입니다. 덕으로의 회귀는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덕으로의 회귀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과 훈련 프로그램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저는 경전에서 찾은 다음 가르침들로부터 제 개인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¹⁴, “성약에 충실하라”¹⁵, “거룩한 곳에 서라”¹⁶,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 두라”¹⁷, “너희 죄를 회개(해야) … 함을 믿으라”¹⁸,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 주신 계명을 지키라”¹⁹,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²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모로나이의 다음 말씀에 응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나 … 일어나라” 그리고 “모든 선한 은사를 붙들고 악한 은사나 부정한 것은 손대지 말라.”²¹

얼마 전 저는 가장 최근에 태어난 손녀의 유아 축복에 참석했습니다. 남편과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작은 갓난 아기 주변에 둘러 모인 모습은 제게 거룩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손녀는 아주 우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그녀의 두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을 때 무척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 아이의 아빠인 제 아들 잭이 준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애나벨 일레인에게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기를, 어머니와 할머니와 언니의 모범을 따르기를, 그리고 덕스러운 인생을 사는 가운데 큰 기쁨을 찾고 거룩한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그 성스러운 순간에, 저는 모든 청년이 태어나서 유아 축복을 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전 인생에 걸쳐 의로운 신권의 권능이 그들을 둘러싸고 강화하며 보호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난 연차 대회 성회에서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이 새로운 선지자와 제일회장단을 지지하도록 요청하셨을 때 신권을 소유한 모든 회중이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힘과 신권의 권능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덕의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청년 여러분 일어서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를 때 저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제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일어나 함께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덕을 수호하기 위한 그보다 더 강한 힘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

러분은 자신의 의로운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덕으로의 회귀가 구주의 모범과 “속죄의 희생의 무한한 덕”²²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일어나 세상에 덕으로의 회귀를 촉구하는 깃발을 휘날릴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살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에 …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²³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열마서 20:4 참조.
2. 1996년 9월 25일자 제일회장단 서한.
3. 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7쪽 참조.
4.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5. 고든 비 힝클리, “만방에 기를 세움”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68쪽; 보이드 케이 패커, “보호와 피난처”,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85쪽 참조.
6. 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 물품번호 36617 320, 118쪽.
7. 토마스 에스 몬슨, “의로움의 모범”,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65쪽.
8. 열마서 46:4~12 참조.
9. 열마서 47:18 .
10. Alexander Pope, *An Essay on Man*, epistle 2, lines 217–220 참조.
11. 열마서 53:20, 또한 56장 참조.
12. Juma Ikangaa, Michael Sandrock, *Running with the Legends: Training and Racing Insights from 21 Great Runners* (1966), 415쪽.
13. “거룩함도 더욱”, *찬송가*, 60장.
14. 교리와 성약 121:45.
15. 교리와 성약 25:13 참조.
16. 교리와 성약 87:8.
17. 교리와 성약 25:10.
18. 모사야서 4:10.
19. 교리와 성약 20:77.
20. 신약개조 제13조, 또한 로마서 8:16, 고린도전서 3:16, 데살로니가전서 5:22, 야곱서 4:6, 열마서 37:36, 모로나이서 10:32 참조.
21. 모로나이서 10:30~31.
22.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쪽.
23. 모로나이서 7:48.

하나님의 진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은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형 제자매 여러분, 금년 7월 19일 유타 개척자의 아들들이라는 단체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유산 공원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후임자인 브리검 영 회장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서부를 향한 눈"이라는 이름의 이 동상은 미국 서부 지역의 지도와 함께 서 있는 훌륭한 두 선지자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후기 성도 회원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결국 미국의 대서부로 이주하리라는 것을 조셉 스미스가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1842년 8월,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성도들이 계속 고난을 당하고 로

키 산맥으로 쫓겨갈 것이며, 많은 사람이 배도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고, 또 일부는 살아남아 로키 산맥 한 가운데로 가서 정착하는 일을 돕고 도시를 세우며, 성도들이 강대한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교회사, 5:85)

그러한 초기 시절에 조셉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도 1800년대 초 소수로 시작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후기 성도들이 견뎌야 할 고난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셉 스미스는 어떠한 적군도 그때나 그 후에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멈추게 할 만한 힘을 결코 갖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음과 같은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의 표준은 세워졌습니다.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박해가 들끓고 폭도들이 연합하여 군대가 모이고 중상이 명예를 훼손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에 퍼지고 모든 지역을 찾아가고 모든 나라를 휩쓸며 모든 귀에 울릴 때 까지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전진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교회사, 4: 540)

1830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된 후로부터 거의 18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178년 동안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가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첫 십년간 소수의 회원만으로 시작했습니다.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830년대에 597명의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았으며 15,000명 이상의 개종자들이 침례를 받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이 북을 전파의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와 특히 선지자 조셉을 향한 박해가 계속되는 중에도 1840년대에 많은 개종자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또한 힘든 이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1840년대에 부름 받은 1,454명의 충실한 선교사들의 봉사를 통해 계속해서 더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교회의 회원수는 48,000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에 대한 박해는 1844년 6월 27일 그와 그의 형 하이럼이 카테지 감옥에서 폭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순교 후 머지 않아 조셉의 시현의 성취로서 브리검 영과 교회는 로키 산맥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죽음과 배도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전진했습니다. 1850년대 약 705명의 선교사들은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및 하와이를 포함한 지역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인도, 홍콩, 태국, 버마, 남아프리카 및 서인도 제도와 같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도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85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와 영국에서 개종한 충실한 성도들 가운데는 로키 산맥에 있는 이곳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 먼 여행길에 올라 육지와 바다에서 수난을 겪고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875년 일곱 명의 선교사들이 처음 멕시코로 부름을 받았고, 그곳에서의 사업은 혁명과 다른 어려움 속에서도 번창했습니다. 불과 4년 전이던 2004년, 멕시코의 교회는 백만 명의 회원이라는 중대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브리검 영의 인도로 성전들이 건축되고 서



부에 350개 이상의 도시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은 모든 발자취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1877년 브리검 영이 세상을 떠났을 당시, 전 세계 교회 회원의 수는 115,000 명 이상으로 증가해 있었습니다.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진리는 진실로 담대하고 고결하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후 몇 십년 동안의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와 그 교리가 공공연히 비판받고 있던 1890년부터 1930년까지의 40년 동안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리드 스무트 장로는 미 의회에 선출되었지만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참으로 많은 말들이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은 해로웠고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 기사들은 교회의 회원들을 유익하고 선한 시민들

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25년 9월 3일,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은 교회가 남미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회복된 복음을 온 나라에 전하는 주님의 방식에 따라, 저의 조부인 신 십이사도 정원회의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남미 땅을 헌납하도록 다른 분들과 함께 그곳에 가셨습니다.

1925년 아르헨티나의 크리스마스 아침에, 벨라드 장로님은 남미 국가들을 헌납하셨고 선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7월에 떠나기 전에, 그분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도토리가 서서히 참나무로 자라듯 주님의 사업은 당분간 이곳에서 서서히 성장할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빨리 자라 죽는 것 같이 교회는 하루 아침에 급격히 성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교회에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보다 많은 선교부로 나뉘어지며 이곳은 교회에서 가장 굳건한 곳 중 하나

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장 작은 시기에 불과합니다.(Melvin R. Ballard, *Melvin J. Ballard: Crusader for Righteousness* [1966], 84쪽)

남미의 교회 성장에 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브라질에만 백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습니다.

1930년부터 1970년까지 40년 동안 106,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교회 회원 수는 네 배가 증가해 2,800,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만 백만 명 이상의 새로운 회원들이 늘어났습니다. 1970년에 이르러 선교사들은 43개국 및 9개의 자치령에서 봉사했습니다. 이 40년의 기간 동안 칠레, 브라질, 우르과이, 파라과이,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및 베네수엘라의 남미 국가들이 선교 사업에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주님

의 종들이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니카라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에서 새로운 주요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어떠한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모든 귀에 울릴” 수 있도록 모든 대륙과 나라에 전하려는 모든 시도에는 어려움과 장애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들에 맞서고 장애를 극복하며 신앙으로 전진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복음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나누는 일에서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히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의 모든 스테이크에 선교사의 수를 증가시키라고 말씀하셨고 대중 매체를 이용해 교회가 지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이끄셨습니다.

교회 회장으로서 그분의 12년 임기 동안에 거의 200,000명에 달하는 전임 선교사들이 봉사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의 회원 수는 거의 두 배가 증가했고, 스테이크의 수도 거의 세 배가 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교 사업이 개방되었거나 재개방되었고,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주님의 일꾼들을 낙담시키려는 모든 적대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개종의 기적이 많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볼 회장이 이 지상에서 그의 봉사를 마친 지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전 세계 종교 가운데서 전례 없는 유명세를 경험했습니다. 우연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교리에 대해 유례 없는 이념적인 공격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교회 회원 수는 1985년 약 5백 9십만 명에서 오늘 날 천 삼백만 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백만 번째 선교사가 이 경륜의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교회의 운명에 관한 조셉의 예언적 시현과 여러 시대를 통해 그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간략하

게 살펴 본 목적은 우리에게 다음의 단순한 진리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으며, 허사가 될 수도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은 굽은 길로 걷지 아니하며, ... 말한 것을 변경하지도 아니함이니, 그러므로 그의 길은 곧고, 그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라.”

“좌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사람의 입임을 기억하라.”(교리와 성약 3:1~3)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진리의 표준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성하지 않은 손도 이 사업이 전진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도 논쟁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시대로부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시대까지 거듭된 시간 동안 직접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박해가 들끓었습니다. 중상과 거짓과 허위 진술이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때로부터 매 10년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고 고결하고 굳세게 전진했습니다. 1830년 소수의 회원들로 시작된 작은 교회는 전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에 후기 성도들이 천삼백만 명 이상에 이르도록 성장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대륙에 퍼지고 모든 지역을 찾아가고 모든 나라를 휩쓸며 모든 귀에 울리는 일에서 훌륭히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은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대중적인 명성을 얻게 해 준 충실한 성도들을 칭송하고 존경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안주하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175여 년 전에 개척자 성도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모든 세대의 충실한 성도들에 의해 수행되어 온 그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일했던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봉사했던 것처럼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극복했던 것처럼 극복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지니는 어려움은 다르지만 그 어려움이 덜하지는 않습니다. 성난 폭도들 대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자들과 직면합니다. 극한 체험이나 고난 대신 우리는 술, 마약, 외설물과 같은 모든 종류의 음란과 저속함, 욕심, 부도덕 및 영적인 공황에 직면합니다. 가족들이 완력에 의해 자신들의 집에서 내쫓기는 대신, 우리는 단체와 개인들이 사회 내에서 가족의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역할을 그릇되게 정의하려 함에 따라 신성한 결혼 제도를 포함한 가족 제도가 공격받고 있음을 보게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닌 어려움이 먼저 가신 분들이 직면했던 어려움보다 더 혹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수레에 짐을 실으라고 요구하시는 대신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륙을 횡단하라고 요구

하시는 대신 이웃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의 전 재산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대신 현대 생활에서 오는 중압감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이미 지어진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부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순교하라고 요구하시는 대신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며, 이전 세대 후기 성도들의 특징이었던 헌신적인 노력이라는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는 일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표면상으로만 의로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간증은 계시의 반석 안에 영적으로 굳건하게 깊이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모든 발자취에 신앙을 지닌 성약을 맺고 성별된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그 사업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인생 여정에서 기쁨을 찾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인생을 즐기고, 이 여정에서 기쁨을 찾으며, 친구와 가족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누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겸손하게 서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것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은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 때에 저를 위해 신앙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서의 가장 불가피한 국면 중 하나를 언급하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두에게 익숙한 격언과 같은 다음의 말을 들어 왔습니다. “변화만큼 변치 않는 것도 없다.”

전 생애에 걸쳐 우리는 변화를 겪고, 또 그에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변화들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변화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돌연한

죽음, 예기치 않았던 질병, 소중한 재산의 손실과 같은 갑작스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화들은 부지불식 중에 서서히 일어납니다.

이 대화는 제가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 받은 이래 45년을 맞는 대회입니다. 당시 십이사도의 후임 사도로서 저는 십이사도와 제일회장단에서 저의 선임자이셨던 특별한 열네 분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분들은 한 분 한 분 분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8개월 전에 헝클리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제가 선임 사도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45년의 기간에 걸쳐 일어난 그 변화들은 이제 기념비적인 것들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몬슨 자매와 저는 결혼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던 때를 되돌아보며 저는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해 왔는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 곁에 서 계셨던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너무나 완전히 채워주었던 우리의 세 자녀는 성장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손자 손녀들도 성장하여, 이제 우리는 4대 증손을 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때분, 때초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왔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삶은 비슷한 변경과 변화를 겪습니다. 제 삶과 여러분의 삶에서의 변화 간의 차이는 세부사항의 차이일 뿐입니다. 시간은 결코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

다. 시간은 끊임없이 전진해야 하며, 그렇게 전진할 때 변화가 옵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필멸의 삶은 우리가 가지는 단 한 번뿐인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래 살수록 우리는 이 삶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크게 실감합니다. 기회들은 왔다가 또 갑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짧은 여정 동안 배워야 하는 가장 큰 교훈 중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미래를 계획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을 지나치게 하지 않기를 간청드립니다.

저는 제 아내 프란시스가 “쇼 중독자”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많은 뮤지컬들을 철저히 즐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중 하나는 미국인 작곡가 메러디스 윌슨이 쓴 “뮤직맨(The Music Man)”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쇼의 주요 인물들 중 하나인 해럴드 힐 교수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과거가 공허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¹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면 기억할 내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전에 다음과 같은 철학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래 전, 아서 고든은 한 국내 잡지에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 그것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열세 살, 동생이 열 살이었을 때, 하루는 아버지께서 서커스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점심 때 한 전화가 걸려 왔다. 시내에 아버지가 해야 할 급한 업무가 생긴 것이다. 우리는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다려셔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했다. ‘서커스는 다음에 또 올 텐데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아이



들의 어린 시절은 그렇지 않아요.’”²

여러분에게 성장하여 가정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십중팔구 여러분은 종종 인생의 그 시기를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는 인식과 함께 상실의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대부분의 오늘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미래에 돌아볼 즐거운 추억들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새로 깨닫기 닦은 거의 모든 것들의 표면에 찍힌 그 작은 지문들, 집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장난감들, 빨아야 할 빨래 더미들은 너무나도 빨리 사라질 것이며, 놀랍게도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을 몸시도 그리워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우리의 환경과는



아버지로서의 기쁨을 느끼는 우크라이나의 세 젊은 아버지들.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스트레스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일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는 거의 언제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생각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사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³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친절한 말을 하거나 애정을 보인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것들을 생략한다면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홀히 해 왔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의 자녀를 안아 주고, 여러분의 부모를 안아 드리십시오. “사랑해요”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항상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친구들은 이사를 가고, 자녀들은 성장하며, 사랑하는 이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고 우리에게

는 “만일 ... 했더라면”, “단지 그랬더라면”의 감정만 남을 때까지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작가 해리엇 비처 스토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에서 흘리는 가장 비통한 눈물은 하지 못한 말과 하지 못한 행동 때문이다.”⁴

1960년대의 베트남 전쟁 동안에 교회 회원인 공군 제이 헤스는 북 베트남 상공에서 피격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그의 가족은 그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노이에서 그를 체포한 사람이 마침내 그에게 집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허락했으나 메시지는 25개 이내의 영문 단어로 제한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즉 2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고 그들을 다시 보게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자신임을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또 그들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헤스 형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사항은 중요함: 성전 결혼, 선교 사업, 대학교. 전진해 나아가고, 목표를 세우고, 역사를 기록하고, 일년에 두 번은 가족 사진을 찍을 것.”⁵

인생을 즐기고, 이 여정에서 기쁨을 찾으며, 친구와 가족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눕시다. 어느 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일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전서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중 몇몇은 소요튼 와일드의 고전 드라마인 “우리 읍네”를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로버 코너 읍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극중에 에밀리 웨브는 분만 중에 사망하고, 우리는 네 살 난 아들과 함께 남겨진 그녀의 젊은 남편 조지의 쓸쓸한 슬픔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에밀리는 평안히 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삶의 기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지상으로 되돌아오는 특권을 허락 받고 자신의 스무 번째 생일을 다시 체험합니다. 처음에는 다시 한 번 젊음을 누리는 것에 신이 낫으나 흥분은 금세 달아납니다. 생일의 기쁨은 없고, 이제 에밀리는 미래의 창고에 무엇이 있는지를 압니다.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얼마나 삶의 의미와 경이를 이해하지 못했는가를 깨닫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안식처로 돌아가기 전에 에밀리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인간들은 살아 있는 동안, 매 순간 인생을 깨닫거나 하는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가져옵니다.

한 저명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요와 부족은 평행선의 현실로서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가 그 둘 중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는 항상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지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랑, 건강, 가족, 친구, 일, 자연의 기쁨과 개인적인 추구라는 풍요에 대해 감사하는 쪽을 선택할 때, 불모지의 환영은 사라지고 우리는 지상의 천국을 경험한다.”⁶

교리와 성약 88편 3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어떤 사람에게 선물이 주어졌으나 그가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선물을 주는 자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고대 로마의 철학자 호라티우스는 다음과 같이 충고했습니다. “신께서 그대에게 축복해 준 시간이 얼마이든 그것을 감사하게 받고, 기쁨을 매년 미루지 말지어다. 그렇게 한다면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대는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으리.”

여러 해 전에, 저는 보르그힐드 달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890년 미네소타에서 노르웨이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심각한 시력 장애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생활에 참여하고 싶은 큰 소망을 가졌으며, 철저한 결심을 통해 자신이 맡은 거의 모든 것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장애가 매우 크다고 생각했던 교사들의 충고에 맞서 그녀는 대학에 들어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콜롬비아 대학교와 오슬로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네소타 서부와 노스다코타에 있는 여덟 개 학교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술한 17권의 책 중 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뿐이었고 그나마 모든 것을 보아야 했던 그 왼쪽 눈도 짙은 흉터에 덮여 있어서 조금밖에 뜨이지 않았다. 나는 얼굴 가까이로 책을 들어올려 왼쪽 눈을 최대한 긴장시켜야만 볼 수 있었다.”⁷

기적적으로, 그녀가 50세가 넘는 1943년에 혁신적인 방법이 개발되어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시력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 앞에 흥미진진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우리 대다수가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것들, 이를테면 날고 있는 새를 보는 것, 설거지 중에 거품에 반사된 빛을 주목하는 것, 또는 매일 밤 달의 위상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감사드립니다.”⁸

보르그힐드 달은 시력을 회복하기 전이나 후에나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9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982년에 그녀의 마지막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행복한 나의 인생(Happy All My Life)*입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태도를 지녔기에 자신이 받은 축복들에 감사했고 여러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신약전서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함께 열 명의 나병환자 이야기를 되새겨봅시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지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⁹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 … 는 자들 외에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진노가 불붙지 아니하느니라.”¹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자들 중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배은망덕이 중죄에 속한다면, 감사는 가장 고결한 미덕에 속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지니고 우리의 매일을 최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말과 행위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를 되새겨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즉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영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봉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사랑의 유산입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억압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으며,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홀로 서셨던 때가 왔습니다. 일부 사도들은 의심했고, 한 명은 배반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성난 군중은 그분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아직도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그분의 자비로운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¹¹

그분은 일찍이, 아마 자신의 지상에서의 사명이 절정에 달했음을 인식하시고 다음과 같이 슬퍼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¹²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¹³는 것은 유일한 거

시험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절의 표현이 아니었으며, 단지 처음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¹⁴

질고를 아는 이 슬픈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만군의 주시요, 영광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¹⁵고 손짓해 부르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¹⁶고 가르치십니다. 또 “나의 계명을 지키라”¹⁷고 간청하십니다.

그분을 따릅시다. 그분의 모범을 따릅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거룩한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의 진심을 다해 우리가 삶의 변화에 순응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항상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하여 이 여정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주

1. Meredith Willson and Franklin Lacey, *The Music Man*(1957년)
2. Arthur Gordon, *A Touch of Wonder*(1974년), 77~78쪽.
3. 윌리엄 셰익스피어, “베로나의 두 신사,” 제1장, 2막, 31행.
4. Harriet Beecher Stowe, in Gorton Carruth and Eugene Erlich 판, *The Harper Book of American Quotations*(1988년), 173쪽.
5. 개인 서한.
6. Sarah Ban Breathnach, 존 쿡 판, *The Book of Positive Quotations*, 재판.(2007년), 342쪽.
7. Borghild Dahl, *I Wanted to See*(1944년), 1쪽.
8. *I Wanted to See*, 210쪽
9. 누가복음 17:12~18.
10. 교리와 성약 59:21.
11. 누가복음 23:34.
12. 마태복음 8:20.
13. 누가복음 2:7.
14. 요한계시록 3:20.
15. 마가복음 2:14.
16. 누가복음 10:37.
17. 교리와 성약 11:6.

폭도들도 군인들도 성도들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돌아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항상 안전한 길을 앞서 마련하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후기에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고통하는 때”¹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서 안전하려면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² 해야 할 것입니다.

1849년 7월 24일은 성도들이 유타의 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한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수년간 계속되던 폭도들의 습격과 학대로부터 안전해졌습니다. 그것은 크게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혹독한 상황하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서 여러 달 동안 고통받고 있었으며, 폭도들은 성도들을 그들의

고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실로 자유라는 뜻을 가진 리버티와 감옥이라는 이 두 단어는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조셉은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어 계시며, 당신의 눈, 참으로 당신의 순결한 눈으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종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를 영원한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그들의 외침이 당신의 귀를 파고들게 하시겠나이까?”³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일찍이 주님의 지시를 구했었고, 주님은 성도들에게 재판관과 주지사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에게 부당한 처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도록 명하셨습니다.⁴

재판관들에게 낸 청원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일생 동안, 200번 이상의 각종 무고한 혐의로 법정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미주리주의 주지사 보그스에게 보상을 청구했을 때, 주지사는 “물론들은 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공익에 필요하다면 미주리주에서 멸절시키거나 쫓아내야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⁵ 그것은 끔찍한 만행과 악행을 초래했습니다.

성도들은 당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인 마틴 밴 부런에게 청원했으나, 그의 답변은 “청원은 정당하나, 당신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⁶는 것이었습니다.

미합중국 의회에 청원한 그들의 세 번째 탄

원서의 마지막 문단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서를 기초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서 불평 없이 견디기에는 너무 극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횡포의 철권과 억압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백만 달러에 이르는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우리는 숲 속의 들짐승처럼 포획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우리의 노인들과 우리의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이 박해자들에 의해 무참히 살육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미국의 딸들이 가장 비인간적인 태도로 모욕 받고 폭행당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철에 무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들의 성스러운 집과 벽난로로부터 안전이 위협받는 낯선 땅으로 내몰린 무일푼의 만 오천 명의 남녀와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최고 의결기관을 향해 애원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간청 드리며, 부당한 행위에 대한 보상과 안전을 위해, 위대한 자유 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옵는 상하원 의원님들께 겸손하게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쫓겨나 탄식하고 있는 수천 미국 시민의 탄원의 음성을 제발 들어주십시오! 자유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 잔혹하게 희생된 남편과 아버지를 둔 과부와 고아들의 울음 소리와 비통에 찬 탄식을 들어주십시오! 쫓겨난 자들이 국가에 보호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국가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미주리 주에서 벌어진 유혈의 잔인한 참극의 반복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구할 수 있고, 그리하여 학대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거두어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⁷

그러나 일말의 동정도 없었으며, 그들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1844년, 일리노이 주의 주지사 토마스 포드의 보호 선언 중에 선지자 조셉과 그의 형 하이럼은 카티지 감옥에서 총에 맞아 순교했습



니다. 어떤 단어로도 성도들이 견뎌낸 야만성과 고통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1849년 7월 24일, 마침내 폭도의 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성도들은 이를 축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⁸

성도들은 소유한 모든 것을 손수레와 포장마차에 싣고 1,600킬로미터의 사막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까지 기차길이 놓이기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할 물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느낌을 마음껏 표현하는 축하 행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템플 스퀘어에 나무 정자를 만들었

습니다. 그들은 32미터 높이의 기대를 세웠고, 길이가 20미터나 되는 큰 국기를 만들어 이 자유의 기대 위에서 펄럭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첫 번째 위대한 경축일의 주제로, 그들을 돕지 못하고 거절했던 그 정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을 선택한 것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이 그 이유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리검 영 회장이 대규모 행렬을 템플 스퀘어로 이끌고 갈 때, 밴드가 연주를 했습니

다. 그의 뒤를 십이사도와 칠십인들이 따랐습니다.

그 뒤를 하얀색 바지와 검은색 상의를 입고, 오른쪽 어깨에 하얀색 스카프를 둘렀으며,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왼편에 칼이 꼽힌 칼집을 찬 24명의 젊은이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오른손에는 모두 독립선언문과 미합중국의 헌법 복사본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 중 한 명이 독립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어깨에 하얀색과 파란색의 스카프를 두르고, 하얀색 장미로 머리를 장식한 24명의 젊은 여성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경과 몰몬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국심을 주제로 선택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번에 등장한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은 축복사인 아이작 몰리가 이끈 24명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발의 노인들”로 알려져 있었으며 모두 6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빨간색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그 지팡이의 끝에는 하얀색 리본이 달려있었습니다. 한 분은 별과 줄무늬가 있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있기 전 태초부터 있었고”,⁹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신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하고]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¹⁰ 했습니다. 그 때 계시된 그 계명은 지금 모든 나라의 우리 회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합당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 땅의 헌법을 제정하되 바로 이 목적으로 내가 일으켜 세운 현명한 자들의 손을 빌어 그리 하였느니라.”¹¹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박됨은 옳지 아니하니라.”¹²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노예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미주리 주 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1849년 그 경축일에 “피네스 리처즈 장로는 24명의 나이든 원로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나와 충성스럽고 애국적인 연설문을 읽었습니다.”¹³ 그는 자녀들에게 애국심을 가르치고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겪어온 고통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60년 동안 살아온 우리들은 미국 정부가 그 절정에 있는 것을 보았으며, 명예로운 헌법의 순수한 원칙들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지만, 우리가 받았던 무자비한 학대는 부정하고 타락한 정부로부터 유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자유의 영과 애국심의 열정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도록 합시다.”¹⁴

성도들이 인간적인 본성에 사로잡혀 보복을 꾀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보다 더욱 강한 그 어떤 것이 성도들을 압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¹⁵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 초기 교회 회원들을 특징지어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초를 겪고 난 후에도 그렇게 오래 참고, 그렇게 너그러우며, 그렇게

관대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백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후기 성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기보다, 그들은 계시에 맞을 내렸습니다. 신약과 구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배울 수 있는 가르침들이 그들의 행동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성도들이 것처럼 경축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곧 복음의 원리들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몰몬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¹⁶

그래서 오늘날 이 낮은 고통의 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¹⁷ 우리는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그 원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1849년의 기념일에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청남들이 헌법과 독립 선언문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둘째, 청년들은 성경과 몰몬경을 들고 행진했으며, 마지막으로 은발의 노인들로 불리던 이들이 그 퍼레이드에 참가했습니다.

그 순서가 끝난 후에, 그들은 임시로 만든 식탁에서 축하연을 가졌으며, 당시 금광을 찾아 그곳을 지나던 수백 명의 여행자와 60명의 인디언이 초청되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미국인들이 우리를 10년 동안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¹⁸ 이라고 말했습니다.

1849년 경축일 이후 8년이 지난 그날에, 성도들은 빅 코튼우드 캐년에서 7월 24일을 다시 경축했습니다. 그 때 네 명의 기마병이 2,500명 상당의 군인들이 진군 중임을 알려

왔습니다. 앨버트 시드니 존슨톤 대령이 지휘하는 미합중국의 군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물론 반란을 진압하라는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성도들은 경축을 마치고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영 회장은 도망가기보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법률도 어기지 않았으며 법을 어길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멀하고자 오는 사람들에 관해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그들은 이곳에 올 수 없을 것입니다.”¹⁹

저의 증조부모님은 미주리 파웨스트에서 나부로 쫓겨가는 도중에 한 명의 아이를 땅에 묻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부로 쫓겨갈 때 윈터쿼터스에 또 한 아이를 묻으셨습니다.

또 다른 증조모님은 당시 십대였고, 플래터강의 남쪽 폭방을 따라 손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준비한
그 땅에 가리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리
성도들 복된 곳²⁰

강 건너에서, 그들은 군인들의 총검에 반사된 햇빛의 눈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²¹

세인트루이스에서 제 증조모님은 성조기 모양의 작은 에나멜 핀을 사셨는데, 그분은 그 핀을 평생 동안 옷에 다셨습니다.

폭도들도 군인들도 성도들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돌아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었고, (부캐넌의 큰 과오라 불리게 된) 유타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계시에 의해 인도되며 선지자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죽었을 때, 다른 이가 그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계승의 규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연차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그분의 81번째 생일을 5개월 앞두



고 교회의 16대 회장으로 지지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98세의 일기로 생을 마치신 고든 비헝클리 회장님을 계승했습니다.

교회의 선임 지도자들은 거의 항상, 수십년의 과정을 거쳐 준비됩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 시대의 각종 도전에 가장 이상적으로 적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두 명의 보좌와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해, 즉 모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 의해 지지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쫓겨난 루시퍼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서 이 원리와 의식들에 맞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들이 있더라도, 실제로 많은 시련들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충실하고 진실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예언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으셨습니다. 진리의 표준은 세워졌습니다. 신성하지 않은 그 어떤 손도 이 사업이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교회

사, 4:540) 오늘날 지구상의 서반구와 북반구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 후기 성도들이 퍼져 있기에 성도들이 모이는 곳 어딘가에는 항상 태양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디모데후서 3:1~7 참조.
2. 신앙개조 제3조.
3. 교리와 성약 121:1~2
4. 교리와 성약 101: 86~88 참조.
5. *교회사* 3:175.
6. Martin Van Buren, Eliza R. Snow, *Biography and Family Records of Lorenzo Snow*(1884년), 77쪽에서 인용됨.
7. 전기, 152~153쪽에서 인용됨.
8. 전기, 95~107쪽 참조.
9. 교리와 성약 76:13.
10. 신앙개조 제12조.
11. 교리와 성약 101:80.
12. 교리와 성약 101:79.
13. 전기, Snow, 100쪽.
14. Phineas Richards, 전기, 102~104쪽.
15. 고린도전서 2:14,16.
16. 니파이후서 25:26.
17. 교리와 성약 1:30 참조.
18. 브리검 영, "Remarks," *Deseret News*, 1857년 9월 23일, 228쪽.
19. *Deseret News*, 1857년 9월 23일, 228쪽.
20. 찬송가 16장.
21. "By Handcart to Utah: The Account of C.C.A. Christensen," *Nebraska History*, 겨울, 1985년, 342쪽 참조.

해의 왕국의 결혼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족에 대한 이 선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해의 왕국의 결혼이 그 어느 관계보다 더 큰 행복에 대한 가능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느낍니다.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해 감사드립니다.¹ 그분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기쁨을 갖기 위해” 존재한다고 선언합니다.²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살겠다고 선택할 때 오게 됩니다.

선택의 중요성은 어느 날 제가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을 때 문득 떠오른 한 간단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을 듯합니다. 저는 그것을 “소비자의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사는 일이 일상 생활의 일부이듯이, 이 패턴들도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소비자들은 선택을 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권들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그들은 주로 원하는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구매합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에 비해, 어떤 소비자들은 할인 특가품을 찾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결만 화려한 것에 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의 선택이 옳바르지 않았음을 깨닫고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개인적인 고결성을 저버리고 원하는 것을 훔치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우리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물건을 훔치는 그들을 줌도둑이라 부릅니다.

소비자의 패턴은 결혼이라는 주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의 남녀는 최상의 특성을 지닌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그보다 못한 형태의 지속되지 못할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둘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결혼한 남녀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을 뻔뻔하게 훔치고 탐닉하는 “결혼 관제의 줌도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주제는 결혼 생활에 대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전 세계에 걸쳐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목적은 주님의 사도로서³,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신성한 것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⁴ 저는 또한 성전 결혼의 미덕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높고 가장 지속적인 형태의 결혼

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승영은 가족의 문제입니다.⁵ 성전에서 결혼하여 그들의 결혼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사람들만이 죽음 이후에도 배우자로 지속되며⁶ 해의 영광의 가장 높은 등급, 즉 승영을 받을 것입니다. 성전 결혼은 해의 왕국의 결혼이라고도 불립니다. 해의 왕국에는 세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어야 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켜야 합니다.⁷

인간의 마음의 가장 고귀한 열망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지속될 수 있는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 결혼에 충실히 임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 줍니다. 성전 결혼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목적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교회 활동과 진급, 정원회 및 공과 받은 승영하는 가족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⁸

이 목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 경륜의 시대에 신권 열쇠들을 회복하셨으며, 이로 인해 그분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의식들이 합당한 권세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침례요한,⁹ 베드로, 야고보, 요한,¹⁰ 모세, 일라이어스 및 엘리야¹¹를 포함한 하늘의 사자들이 이 회복에 참여했습니다.¹²

이 계시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¹³ 우리는 주님의 선지자와 사도로서, 다시 한 번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¹⁴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 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입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고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 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¹⁵

가족에 대한 이 선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해의 왕국의 결혼이 그 어느 관계보다 더 큰 행복에 대한 가능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¹⁶ 이 지구가 창조되고 이 교회가 회복된 것은 가족이 형성되고, 인봉되고, 영원히 승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¹⁷

경전은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여 그들 둘이 한 몸을 이룸은 적법한 일이니, 이 모든 것은 땅이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함이요.”¹⁸라고 선언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¹⁹라고 확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승영을 가져오는 복음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신성한 계명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

요, 나의 영광이니라.”²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속죄는 이 두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속죄로 인해 불멸, 혹은 죽음에서의 부활이 모두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²¹ 또한 속죄로 인해 영생,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²² 영생을 위한 자격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하고 영속적인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²³ 이것은 성전 결혼이 단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의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²⁴

가족 선언문은 또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²⁵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여호와와의 기업”²⁶입니다.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될 때 가족은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만큼이나 영원할 수 있게 됩니다.²⁷

그러한 보상은 기대에 찬 바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따금씩 저는 신문의 부고란을 읽을 때 사망과 죽음을 통해 그 고인이 이전에 사망한 자신의 배우자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영원한 선택권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그들은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결혼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 천상의 선물을 제안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물을 거절함으로써 그 선물을 주시는 분까지도 거절했습니다.²⁸

경전의 한 강력한 구절은 희망에 찬 소망과 영원한 진리를 명확히 구분해 줍니다. “모든 성약, 계약, ... 의무, 맹세, 서약, ... 또는 기대는 맺어지고 세워지고 나서, 기쁨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현세뿐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인봉되...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나 그 이후에 아무런 효과나 효능이나 효력이 없으니, 이는 이 결과에 이르도록 맺어지지 아니한 모든 계약은 사람이 죽을 때 끝이 남이니라.”²⁹

이 진리들은 절대적입니다. 이 교회의 회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들을 배우고 영생을 위한 자격을 얻도록 권유합니다.³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도록, 회개하도록, 성신을 받도록, 성전의 축복을 얻도록,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그리고 끝까지 견디도록 권유합니다.



자비롭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과 그 영원한 축복들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자들에게까지 베풀어 집니다. 그들을 위한 성전 의식들이 대리로 행해 질 수 있습니다.³¹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은 교회의 많은 성인 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의 시련을 혼자서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방법과 시간에서 그의 충실한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³² 주님은 각 개인을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고 보상하실 것입니다.³³

한편, 세상의 오해는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결혼은 두 가지 문제를 내재한 채 시작됩니다. 그것은 두 명의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행복은 그들의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만 그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단결된 노력을 할 경우에만이 화음을 낼 수 있듯이, 결혼생활에서의 조화도 단결된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 노력은 각 동반자가 개인적인 요구를 최소화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이타적인 행동들을 최대화할 때 성공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보다 주변에 있는 타인들에게 중점을 두고 그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험 없이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³⁴

결혼생활에서의 조화는 한 사람이 그 배우자의 행복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여길 때만 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해의 왕국의 결혼은 현실이 되며, 이 삶과 앞으로 올 삶에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소비자의 패턴에서 처럼, 우리는 해의 왕국의 결혼을 선택하거나 혹은 그보다 못한 차선책들을 선택할 것입니다.³⁵ 결혼에 관한 어떤 선택은 저렴하고, 어떤 선택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떤 것들은 적에 의해 교묘히 꾸며져 있습니다. 그가 내놓는 선택에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언제나 비참함을 가져옵니다!³⁶

가장 좋은 선택은 해의 왕국의 결혼입니다.

감사할 것은, 만약 그보다 못한 선택을 이미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장 좋은 선택으로 격상시키도록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나큰 마음의 변화³⁷와 영구적인 개인적 진보를 요구합니다.³⁸ 이것을 통해 오는 축복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³⁹

성전 결혼의 축복들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결혼 형태는 해의 왕국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⁴⁰ 예수님께서 결국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으셨듯이,⁴¹ 우리도 “아버지께 오[고] … 또 때가 되면 그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⁴²

해의 왕국의 결혼은 영생을 위한 준비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권세에 의해 결혼할 것과, 그 신성한 성약에 충실히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⁴³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앨머서 42:8.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 계획”(니파이후서 9:13, 앨머서 34:9 참조), “구속의 계획”(아람서 6:8, 앨머서 12:26, 30, 32~33, 29:2, 42:13 참조), “구원의 계획”(앨머서 24:14, 42:5 참조) 및 “자비의 계획”(앨머서 42:15, 31 참조)으로도 알려져 있다.
2. 니파이후서 2:25.
3. 교리와 성약 107:35 참조.
4. 교리와 성약 49:15~17 참조.
5. 러셀 엠 넬슨, “구원과 승영”,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7~10쪽.
6. 교리와 성약 76:53, 132:7 참조.
7. 교리와 성약 131:1~3 참조.
8. 이 목적의 한 가지 예는 “네 의무는 영원히 교회에 있나니, 이는 네 가족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경전 상의 선언이다.(교리와 성약 23:3; 강조 추가)
9. 교리와 성약 13편 참조.
10. 마태복음 16:18~19, 교리와 성약 27:12~13, 조셀 스미스-역사 1:72 참조.
11. 교리와 성약 110:11~16 참조.
12. 교리와 성약 128:8, 18, 132:45~46 참조.
13. 니파이후서 10:2, 30:8 참조.
1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15.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16. 이에 앞서 나는 “결혼은 사회 질서가 만들어지는 곳이고, 미덕의 샘이며, 영원한 승영의 기초입니다.”라고 말했다. (“결혼생활을 보살핌,”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6쪽)
17. 경전이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라고 경고할 때마다, 그 경고는 거룩한 성전에서 가족을 함께 인봉하기 위한 신권 권세의 필요성과 연결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 2:1~3; 138:48; 조셉 스미스-역사 1:38~39 참조)
18. 교리와 성약 49:16; 또한 창세기 2:24; 마태복음 19:5; 마가복음 10:7~9; 모세서 3:24; 아브라함서 5:18; 교리와 성약 42:22 참조.
19. 고린도전서 11:11.
20. 모세서 1:39.
21. 니파이후서 9:22, 엘마서 12:8, 33:22, 힐라맨서 14:17, 물몬서 9:13, 모세서 7:62,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창세기 7:69 참조.
22. 교리와 성약 14:7.
23. 교리와 성약 132:19 참조.
24. 마태복음 19:6 참조.
25.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6. 시편 127:3.
27. 교리와 성약 132:19~20 참조.
28. 교리와 성약 88:33 참조.
29. 교리와 성약 132:7; 강조 추가.
30. 예수님은 고대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이 개념을 가르치셨다. (제3니파이 27:16~20 참조) 또한 니파이후서 33:4; 교리와 성약 42:61;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요한 1서 5:13 참조.
31. 교리와 성약 128:1~18; 137:7~8 참조.
32.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롱키 편, 3권(1954~1956년), 2:76~77 참조.
33. 엘마서 41:3, 교리와 성약 137:9 참조.
34. Church News, 2008년 7월 5일자, 2쪽.
35. 니파이후서 2:27, 야곱서 6:8 참조.
36. 사람은 우리가 그와 같이 비참해지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 12:9, 니파이후서 2:18, 모세서 4:6, 교리와 성약 10:22~27 참조)
37. 엘마서 5:12~14 참조. 그와 같은 크나큰 변화는 회개, 용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겠다]” (모로나이서 10:32)는 새로운 결심을 포함한다.
38. “우리는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둘째 회개, 셋째 죄 사함을 위한 침수교례의 침례, 넷째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임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4조) 회개는 더 나아가기 위한 완전한 변화, 즉 전체적인 개인적 진보를 요구한다.
39. 교리와 성약 93:1 참조.
40. 모로나이서 10:32 참조.
41. 교리와 성약 93:13~14 참조.
42. 교리와 성약 93:19, 또한 교리와 성약 66:2, 132:5~6 참조.
43. 브루스 알 맥롱키, Mormon Doctrine 제2판(1966년), 118쪽 참조.

복음 교육 -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름

윌리엄 디 오스월드

본부 주일 학교 회장단 제2보좌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본다면, 우리 모두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최 근에 오스월드 자매와 저는 다섯 살 난 쌍둥이 손녀들에게 단체 줄넘기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단체 줄넘기는 두 명 이상이 함께 서서 줄이 머리 위를 지나 발 아래로 지나갈 때 그것을 뛰어넘는 어린이 놀이입니다. 두 손녀는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배운 다음 몇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연거푸 실패했습니다. 막 포기하려던 순간, 좀 더 나이가 많은 이웃 아이들 두 명이 지나갔고,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 이웃 소녀 모두 줄넘기를 해 본 적이 있었으므로 우리 손녀들에게 줄

넘기하는 법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줄을 뛰어넘을 때, 저는 이웃 소녀들이 움직이는 줄의 리듬에 맞춰 뛸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일단 손녀들이 줄넘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줄을 뛰어넘는지 보고 나니, 그 나머지는 가르치기가 쉬웠습니다. 약간의 연습으로, 두 쌍둥이들은 줄넘기의 기본을 통달했습니다.

줄넘기를 가르치는 동안, 세 살밖에 안된 또 다른 손녀가 잔디에 조용히 앉아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에게 줄넘기를 해보고 싶냐고 묻자 아이는 머리를 끄덕이고는 앞으로 나와 줄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줄을 돌리자, 너무나 놀랍게도 그 아이는 언니들이 하는 것을 본 대로 뛰어넘었습니다. 큰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를 똑같이 큰소리로 부르면서, 한 번 뛰고, 그 다음엔 두 번, 그리고는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세 명의 손녀 모두가 줄을 뛰어넘는 데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몇 가지 기본 원리를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를 본 후에 그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본다면, 우리 모두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브의 두 형제가 신권 모임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고 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종종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지도자, 교사, 선교사, 그리고 부모로서 복음의 교리를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가르치고 배우라는 평생의 목표를 받았습시다.”¹ 엘 톱 페리 장로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교회의 모든 직책에는 유능한 교사가 필요합니다.”²

모든 회원은 교사이며 “가르침은 우리가 행하는 바의 중심이”³ 되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가르침의 원리를 배울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는 많으며, 우리가 그 원리들에 관해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둘째, 성공적인 교사들이 어떻게 그 원리들을 사용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와드 및 지부에서 유능한 교사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교회 웹사이트

트 혹은 교회 잡지에 나와 있는 가르침과 배움에 관한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을 복습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⁴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적용할 기본적인 원리들은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원리들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류⁵이라는 훌륭한 하지만 간혹 경시되고 있는 교수법 자료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될 이상적인 교사를 찾을 때, 우리는 항상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랍오니라고 칭했는데, 그것은 “선생님” 혹은 “교사”⁶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교사이셨으며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와 같이”⁷ 가르치셨기에 그 시대의 다른 교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가르치고 성직을 수행하는 권위는 하나

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⁸ 때문입니다.

요한이 기록했듯이, 예수님은 이 방식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⁹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¹⁰셨습니다.

경전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성공적인 복음 교사들의 다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쳤던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들을 구했습니다. 물론경에서 예를 들자면 니파이¹¹, 엘마¹², 그리고 모사이아의 아들들¹³이 쉽게 떠오릅니다.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라.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더라.”¹⁴

또 다른 유능한 복음 교사는 모로나이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그에게] 보내진 천사”¹⁵로 선택받았습니다. 조셉은 우리에게 모로나이가 언제 자신을 가르쳤고,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 간략하지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¹⁶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조셉은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조셉은 자신을 “세상에서 보잘 것 없는 이름없는 소년”¹⁷으로 묘사했으며, 이후에 한 친구는 그를 “교육 받지 못하 [고] 배우지 못한”¹⁸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모로나이와, 그를 가르치기 위해 보내심을 받

은 다른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교사의 인내와 관심을 통해서, 이 젊은이는 주님께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¹⁹이라고 언급하신 사업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를 가르쳤던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있지만, 훌륭한 가르침에 필수적인 세 가지 기본 원리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원리 1: 가르치는 자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

조셉 스미스는 천사 모로나이가 처음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였으나 곧 두려움은 내게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물러가도록 모로나이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나의 이름을 [불렀다]”²⁰라고 조셉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교사는 하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²¹

최근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가진 모임에서, 저는 그분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반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소년 시절에 주일 학교 교사였던, 루시



게르치 자매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녀는 각 반원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교사였다고 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그 자매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일에 빠지거나 자주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을 꼭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분이나 그분이 가르쳤던 교훈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²²

원리 2: 경전에서 가르친다

모로나이가 실행했던 또 다른 가르침의 원리는 그가 경전을 알고 있었고 경전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이가 자신과의 첫 만남에서 “구약전서의 예언들을 인용하기 시작하였[으며] ... 다른 많은 경전 구절을 인용하고 많은 설명을 해 주었다”²³고 말했습니다. 모로나이가 인용한 여러 경전구절을 통하여 조셉은 몰몬경을 출현시키고 지상에 참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배웠습니다.²⁴

원리 3: 복음 진리에 대해 상고하도록 격려한다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를 가르칠 때 사용했던 세 번째 원리는 가르침 받은 것에 대해 상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셉은 모로나리와 세 번째로 만나고 나서 “다시 [자신이] 방금 겪은 기이한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²⁵고 말했습니다. 유능한 교사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군중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것을 “집으로 가서 깊이 생각하여” “깨달을”²⁶수 있게 하라고 하였던 그 방법을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니파이는 상고하는 행위가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몰두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나의 마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²⁷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전구절과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상고하는 행위는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계시를 불러옵니다.

저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신성하고 거룩한 부름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반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경전을 펴고

그 말씀에서 가르칠 때, 그리고 반원들에게 회복된 복음의 진리에 대해 상고하고 그것을 적용하라고 격려할 때,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며, 여러분의 반원들의 삶은 더욱 더 풍성하게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²⁸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및 엘 톰 페리,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7년 2월,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0쪽.
2.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2쪽; 또한 고린도전서 12:28; 에베소서 4:11~14 참조.
3. 보이드 케이 패커,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54쪽.
4.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7년 2월,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49~80쪽, 이 전세계 훈련 모임의 자료는 www.lds.org에서도 이용 가능함.
5.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물품 번호 36123 320.
6. 요한복음 20:16.
7. 마태복음 7:29; 또한 마가복음 1:22 참조.
8. 사도행전 10:38.
9. 요한복음 8:28.
10. 요한복음 5:19~20.
11. 니파이후서 33:1~13 참조.
12. 모사이야서 27:32~37, 엘마서 17:1~12 참조.
13. 엘마서 17:1~12 참조.
14. 엘마서 17:2~3.
15. 조셉 스미스-역사 1:33.
16. 조셉 스미스-역사 1:27~54 참조.
17. 조셉 스미스-역사 1:22.
18. Orson Pratt, “Discourse,” *Deseret News*, 1880년 7월 21일, 386쪽.
19. 이사야 29:14, 니파이후서 25:17, 27:26, 또한 제3니파이 21:0~10 참조.
20. 조셉 스미스-역사 1:32~33, 또한 49절 참조.
21. 마태복음 3:17; 제3니파이 11:7; 모로나이서 2:1~2; 조셉 스미스-역사 1:17 참조.
22. 토마스 에스 문슨, “위대한 교사들의 모범”, *리아호나*, 2007년 6월호, 77쪽.
23. 조셉 스미스-역사 1:36, 41.
24. 조셉 스미스-역사 1:33~54, 또한 교리와 성약 20:8~9 참조.
25. 조셉 스미스-역사 1:47.
26. 제3니파이 17:3; 또한 교리와 성약 138:1, 6, 11, 29 참조.
27. 니파이후서 4:16, 또한 모로나이서 10:3 참조.
28. 요한복음 3:2.

집으로 돌아옴

에두아르도 가바렛
칠십인 정원회

우리가 그분의 양을 치라는 구주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영향력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 고향 우루과이 미나스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해질녘이면 어머니께서는 거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벽난로에 장작을 지피셨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부모님과 누이들, 그리고 저는 차례로 한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벽난로의 따뜻함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어우러진 아늑한 거실은 제가 영원토록 소중하게 간직할 느낌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우리의 가정을 꾸린 후에도, 우리 모두는 벽난로 주변이나 또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할 때마다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느낌을 지닌 곳으로 자주 함께 모이곤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느낌입니까! 우리의 집, 가정, 피난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곳입니까!

여러 해 동안 우리 가족은 여러 나라에서 살았는데, 그 각각의 나라에서 지내는 동안 참석한 모든 와드에 있는 회원들에게서 우리는 똑같은 따뜻한 느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각 회원들은 그런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들은 재활동화 및 선교 사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페루에 있는 몇몇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몇 가족의 이름을 언급할 것입니다. 카우소 가족, 밴다 가족, 발가스 가족, 그리고... 이 목록은 계속되며, 그 속에는 교회로 다시 돌아온 천칠백 명이 넘는 회원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테이크 회장, 감독, 정원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로부터 교회로 돌아오라는 권고를 받은, 페루 전역에 있는 각기 다른 와드, 지부, 스테이크, 지방부의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돕는 책임을 맡은 전임 선교사들과 다른 사람들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분들 모두에게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돌아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년 동안 재활동화 및 침례와 확인 의식을 통해 이분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한 14개 스테이크와 한 선교부내 4개 지방부의 협력이었습니니다.

구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이러한 노력에 영감을 더해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내 양을 치라”(요한복음 21:16)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가르침에서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저활동 회원 및 감정이 상하고, 비판적이고, 죄를 지은 분들에게 돌아오라고 간청해 왔습니다. ‘돌아와 주님의 식탁에서 향연을 즐기고 성도들과의 우정을 통해 오는 감미롭고 만족스러운 열매를 맛보십시오.’”(“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감,”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89쪽)

엘마는 그의 형제들의 영혼에 대해 큰 괴로움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함에 있어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시겠나이까.

“주여, 보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은 귀하며, 저들 중 많은 자가 우리의 형제들이오니,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사, 우리로 이들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엘마서 31:34~35)

페루, 리마, 푸엔테 피에트라 스테이크의 양헬 알라콘 회장은 제게 다음과 같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선교사, 감독, 보조조직의 몇몇 지도자, 그리고 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저활동 회원과 몇몇 비회원, 그리고 신회원들을 방문합니다.”

그의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 제 마음속에는 찬송가 한 소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해 목자의 마음

귀여운 어린 양들

그 중 한 마리 길 잃어

추우고 굶주리네

보아라 선한 목자는

잃은 양 찾아가서

기쁨으로 데려와서

보호를 간직하네”

(“사랑해 목자의 마음,” 찬송가, 144장)



몰도바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매 선교사들이 연차 대회 모임을 사이에 침례를 받은 한 구도자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왕래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던 발가스 형제는 어느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도착을 알리는 알라콘 회장의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발가스 형제가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저희 집까지 오기란 매우 힘든 일인데요.”

알라콘 회장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글쎄요, 전 지금 형제님의 집 문 앞에서 있고 형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형제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제님을 내일 교회 모임에 오시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가 대답했습니다.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돌아오는 그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35~36, 40)

몇 주 전 어느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저는 저활동이 된 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한 형제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그의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왜 돌아올 결심을 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 페르난도와 이 훌륭한 감독님이 제게 돌아올 것을 권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교회를 찾았고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타고 있는 조그마한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이 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로서, 그 불꽃이 계속 살아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불꽃을 피웁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 보살핌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가 봉사하고 이러한 봉사가 우리 이웃의 복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나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모사이야서 2:17)

우리가 그분의 양을 치라는 구주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도울 때 수많은 저활동 가족들, 그리고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영향력은 얼마나 위대할까!

이러한 경험들은 그분의 양을 치라는 주님의 권고를 조용히 받아들인 수천 명의 형제들의 경험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사랑과 봉사는 서로의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는 쌍둥이와 같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으로서, 우리와 이곳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이들을 찾아 나섭시다. 이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지니고 있는 책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봉사를 통해 단 한 영혼이라도 교회로 데려온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이들에게 가져다 줄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들어라 오늘도 내게
간절히 하시는 말
“나의 품 안에서 떠날
양 찾지 않겠느냐?”
(찬송가, 144장)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에 대한 제 간증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저의 구주이자 주님이자 스승이자 구속주이신, 그분에 대한 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간증을 얻음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칠십인 정원회

때때로 ‘작은 음성’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이 천사의 방문보다 우리의 간증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브라질에서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할 때, 저와 제 가족은 플로리아노폴리스라는 아름다운 도시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일요일에 어느 때처럼 저희는 저희가 찾을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교회로 갔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큰 딸이 주일학교 반에 참석했는데 그들은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공과 도중에, 교사는 반원들에게 교회에 대한 간증을 발전시키는 동안 겪었던 강력하면서도 영적인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몇 형제와 자매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

안, 저는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개종자로서의 제 경험들을 마음속으로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증을 얻는 과정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생각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에 잠겨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경청하는 동안, 저는 교사가 저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게 특별한 경험을 나누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역 칠십인이었고 뭔가 감동적인 경험을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녀가 기다리는 것을 느끼면서, 이 상황에 적합한 강력한 사건을 찾아내려 더욱 애썼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저는 그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이 금식 간증 일요일이었으므로, 저는 성찬식 동안 회중에게 특히 주일학교 반의 교사와 반원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나누었던 것은 팔복할 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제가 지닌 회복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진솔한 간증이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에 관하여 뭔가 위대하고 강력한 경험이나, 응답이나 확인을 받아 한 치의 의심마저 지워 버릴 단 하나의 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서 성령의 음성은 ‘크지도’ 그리고 ‘거칠지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리도 아니요 크게 떠드는 소란한 음성’도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며, 그것은 ‘영혼에까지 꿰뚫으며,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제3니파이 11:3, 힐라맨서 5:30, 교리와 성약85: 6~7) 엘리야는 주님의 음성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열왕기상 19:12)임을 알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팩커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소리치거나 큰 손으로 악수를 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속삭입니다. 성령은 극히 부드럽게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에 충분하도록 성령의 음성이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령이 떠나가서 우리가 찾고 귀 기울이며 고대의 사무엘과 똑같은 태도로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까 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의 등불”, 성도의 빛, 1983년 10월호, 31쪽)

위대한 사건들이 우리의 간증을 강화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레이먼과 레뮤엘은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됩니다. 그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나, 그 후에 단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주님의 뜻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후기의 몇몇 위대한 지도자들 또한 이 원리에 관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회복의 초창기 동안 높은 곳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끝까지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작고 세미한 음성’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이 때때로 천사의 방문보다 우리의 간증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저는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 사는 한 청년으로서 두 자매 선교사로부터 교회에 관해 배우며 제 기도에 대해 의심의 여지없는 확실



한 응답을 기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회복된 교회에 가입하기에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엘마는 간증을 키우는 과정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구도자로서 저도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곧 너희가 믿어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기까지 그리하라.” (엘마서 32:27)

그때 이래로, 교회의 구도자로서, 후에는 전임 선교사로서, 그 후에는 아버지와 지도자로서 가졌던 모든 경험들은 함께, 대부분은 작

으나, “씨앗이 좋다”(엘마서 32:30 참조)는 의심 없는 일련의 경험들과 느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마는 계속해서 간증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리라. 이제 만일 너희가 자리를 내주어 씨앗 하나가 너희 마음에 심어졌다면, 보라 그것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이라면, 너희가 너희의 믿지 않음으로 그것을 내어 버려, 주의 영을 물리치지 아니할진대, 보라, 그것은 너희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하리니, 이 부푸는 움직임을 너희가 느낄 때에, 너희가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이것은 좋은 씨앗임에, 곧 그 말씀은 선함에 틀림없도다. 이는 이것이 내 영혼을 크게 하기 시작함이라. 참으로 이것은 나의 이해력을 밝혀 주기 시작하니, 참으로 이것은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도다 하리라.” (엘마서

32:28)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의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 간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놀랄 만한 것은 아니나 경험들을 쌓는 과정을 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이 연합할 때에는 우리가 배워왔고 살아 왔던 것이 참되다는 것을 명백한 방법으로 입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 저는 제 간증에 영향을 주었던 대부분의 경험들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모든 경험들은 회복된 교회에 대한 저의 간증에 영향을 끼쳤으며 기억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반을 가르쳤던 그 자매님뿐 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한 이 간증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제 삶의 모든 날은 그분의 속죄를 통해 축복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 후기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살아있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모세나 아브라함, 이사야가 그들의 시대를 위한 선지자였던 것처럼 몬슨 회장님이 우리 시대를 위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경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주에 대한 또 하나의 간증입니다. 저는 신권의 권능이 회복되었으며 세상의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경전을 통해, 어떤 시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개인적인 발전에 적합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제 딸 아이가 심한 눈보라 속에서 운전을 하다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딸 아이는 오래 전에 제가 두 아들과 함께 겪었던 비슷한 상황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그 당시 막내 아들 조가 세 살이었고, 래리는 여섯 살이었습니다. 우리는 6월에, 함께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타 주로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날씨는 아주 화창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있는 도너패스 정상으로 가는 오르막길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아무런 기상 경보도 없이 엄청난 눈보라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어떤 운전자도 대비가 되어 있

지 않았습다. 우리 앞의 한 트럭은 찌그러져 차선 두 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른 트럭과 차들은 도로 위에서 쪽쪽 미끄러졌습니다. 차선 하나만 통행이 가능했고 우리 차를 포함해 많은 차량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충돌을 피하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모든 교통은 마비되었습니다.

6월에 발생한 이런 심한 눈보라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서 따뜻한 옷도 없었고 연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다. 저는 온기를 유지할 요량으로 두 아들과 꼭 붙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전 차량과 제설차, 견인 트럭들이 와서 정체되어 있는 많은 차량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견인 트럭이 우리 차를 반대편에 있는 차량 정비소까지 끌어주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우리의 안부 전화를 기다렸을 아내가 걱정하고 있으리라 생각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두 아들과 통화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세 살배기 아들 차례가 되자 그 아이는 떨리는 음성으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세 살 배기 아이가 엄마와 통화하면서 ‘힘든 시간’에 대해 말할 때, 그 아이가 위안과 기운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를 보살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생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을 것임

제가 앞서 말씀 드린 사건이 비록 어려운 여행 상황이긴 했지만, 단시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결과는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에서 마주치는 시련과 고난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극심하고 또 지속적인 결과를 갖는 듯합니다. 우리 각자는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이 가운데 몇몇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화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도 본질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이 무고하게 기소되어 여러 달 동안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었던 후에 드렸던 그의 탄원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기운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¹

회복에 의해 분명해진 핵심 교리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의로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²

이 생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생은 시험 받고 증명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³ 고 적혀 있습니다. 해롤드 비 리 장로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 때로는 그 순간에 가장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어떤 때에는 금지된 것이 가장 멋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의 앞 부분에는 자주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가장 좋은 시기였고, 또 가장 힘든 시기였

다.”⁵ 경전은 각 세대에는 그 나침의 가장 좋은 세월과 나쁜 세월이 있음을 분명히 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선과 악 사이의 다름,⁶ 그리고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의 대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경험하는 것은 이 짧은 지상 생활을 마감하기까지 꼭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⁷ 우리는 선이 악을 이기리라는 것과,⁸ 회개하고 성결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교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⁹

디킨스가 그의 소설을 쓰고 있을 무렵, 서부 산간에 정착한 초기 성도들은 영웅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나부를 떠나는 일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낙관적으로 앞날을 내다본 사람도 있었고, 근심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개의 전형적인 예를 헬렌 마 휘트니와 바세바 스미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느낌에 관한 감동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휘트니 자매는 나무를 떠나면서 자신의 기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작은 리본과 옷깃, 레이스 등 모든 물건을 꾸릴 것이다. 그런 것들을 살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어느 누구도 가지 원하지 않는 로키 산맥 너머로 갈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을 것이며, 다만 정직한 자와 덕스러운 자가 있을 것이다.”¹⁰ 휘트니 자매의 표현은 이상적인 낙관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세바 스미스 자매가 기록한 느낌 또한 신앙으로 가득하지만, 약간의 혼란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성도들을 반대하는 폭도가 일어나는 것을 미주리 주에서 본 적이 있었고,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 사도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무에서 떠나야 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소중한 곳에서 내가 한 마지막 일들은 방을 청소하고, 마루를 쓸고, 빗자루를 평소애 놓아 두던 자리인 문 뒤에 놓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복잡한 심경으로 문을 조용히 닫고는 미지의 앞날을 마주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리고 미주리 주에서 그 힘들었던 시절에 내가 이미 느꼈던 확신, 즉 복음이 결국 서부에 뿌리내릴 것이며 복음 안의 원리들이 참되고 영원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날을 마주했다.”¹¹

이들 두 후기 성도 개척자들은 인생 내내 복음 속에 굳건히 남아서 시온을 세우는 일에 훌륭하게 봉사했지만 이후로도 많은 시련과 고난에 직면했고, 두 사람 모두 그것들을 충실하게 견뎌냈습니다.¹² 휘트니 자매의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첫 번째 세 자녀는 출생 시 또는 그 직후에 사망했는데, 그 중 둘은 나무에서 솔트레이크로 오는 여행 중에 그렇게 되었습니다.¹³ 휘트니 자매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관한 기록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었으며, 율슨 에프 휘트니 사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스미스 자매는 성도들이 서부로 향해 가면서 겪었던 가난과 질병과 궁핍함에 관한 기록

했습니다.¹⁴ 1847년 3월에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며, 그 다음 달에는 둘째 아들 존이 태어났습니다. 그에 관한 그녀의 기록은 짧막합니다. “그 아이는 나의 마지막 아이로, 겨우 네 시간 동안 살았다.”¹⁵ 나중에 그녀는 인생에서 솔트레이크 성전의 메이트론과 제4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우리는 초기 성도들이 견뎌던 고난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1856년 2월에 다음과 같은 말로 이런 고난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라도 굶어 죽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풍족한 곳으로 가도록 보내 주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노새의 귀 끝에서 꼬리 끝까지 먹어 치울 때까지는 굶어 죽는 것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굶주림에 대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곧 봄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이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¹⁶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은 그 나름대로 과거의 고난에 필적할 만합니다. 최근의 경제 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상당한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취업난과 재정난은 이제 유별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문제나 탈선한 자녀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중독, 그리고 부적절하거나 해로운 성향은 마음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시련의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사람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에게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어떤 시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개인적인 발전에 적합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¹⁷ 또한 우리는 비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내린다는 것도 압니다.¹⁸ 모든 구름이 비를 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견

디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에 관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위안을 주는 교리는 구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실 것이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¹⁹ 도우실 것이라는 엘마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경전과 현대의 선지자들은 흥년과 풍년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²⁰ 주님은 우리가 닥쳐올 많은 어려움에 대비할 것을 바라십니다. 그분은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²¹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래 전 시에라 산맥을 넘으면서 그 심한 눈보라를 만났을 때 느낀 심적 충격의 일부는 제가 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사건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경전이 주는 커다란 축복들 가운데 하나는 예기치 않게, 하지만 종종 일어나는 어려움에 관해 경고해 준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에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의 한 가지 형태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몰몬경의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진대”²²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에는 종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분의 면전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뒤따릅니다.²³ 영의 축복 곧 성신의 성역을 지니는 것은 분명, 땅에서 진실로 번성하고 준비를 갖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시련에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가 지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축복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개척자들이 경험하고 있던 고난이 지닌 분명한 본질에도 불구하고, 브리검 영 회장은 감사의 중요성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제외하고는 배은망덕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알지 못합니다.”²⁴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감사함

우리는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가장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대화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사옵니다' 라는 느낌이 그들 마음에 기본적으로 떠오를 정도로 큰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타 주 그랜즈빌의 엘렌 야츠 자매에 관한 실화를 여러분께 들려 드리겠습니다. 십 년 전 10월 초, 그녀는 남편인 레온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직장으로 떠날 때 그를 배웅하며 입맞춤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가 본 레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한 20세 젊은이가 첫 직장에 늦었다는 이유로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려던 순간, 그 차량은 레온의 차와 충돌했고, 그 사고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즉사했습니다. 야츠 자매는 동정심을 지닌 두 명의 순찰 경관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뒤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인생의 앞날에 대해 생각할 때, 보이는 것은 온통 어둠과 고통뿐이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사고를 낸 젊은이의 워드 감독이었습니다. 그 감독은 야츠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낸 젊은이의 어머니인 조레인 월모어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온통 내 자신의 슬픔과 고통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이와 그 가족에 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보다 더 크나큰 고통에 빠져 있는 한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 방문하셔도 좋다고 재빨리 말했습니다."

월모어 부부가 도착하자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레온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큰 유감을 표하고는 팔에 어린 소녀를 안고 있는 구주의 그림을 한 장 선물했습니다. 야츠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하기 너무 힘들 때가 오면,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저의 외로움과 시련을 알고 계십니다." 다음 성구는 야츠 자매에게 위안을 줍니다.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서 있을 것임이니"²⁵(오늘 이곳 컨퍼런스 센터에 함께 계신 두 분.) 야츠 자매와



월모어 자매는 매년 10월에 함께 성전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의 계획, 영원한 가족, 그리고 휘장의 양쪽 편에서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함께 묶어 주는 성약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야츠 자매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구주에 대한 사랑을 이전에 제가 느꼈던 어떤 때보다 더 풍성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치유하지 못할 슬픔과 고통과 질병은 없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²⁶ 이 두 자매가 보여준 사랑과 용서가 갖는 모범은 얼마나 훌륭한지! 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들의 생활에 큰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속죄의 과정 동안 갯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릴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계셨던 구주를 생각해 보십시오.²⁷ 아버지를 향한 그분의 외침에는 *아바*²⁸ 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탄에 빠진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다음과 같은 외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

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²⁹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 중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생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에 적용될 것임을 간증 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사랑의 팔 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생신을 맞으신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전 세계의 회원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한치의 머뭇거리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주십시오."³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주요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21:1, 7~8.
2. 니파이후서 2:11 참조.
3. 아브라함서 3:25.
4. 해롤드 비 리, *The Fall of Man*(address delivered at a meeting for seminary and institute teachers, 1954년 6월 23일).
5.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Signet Classic, 1997년), 13쪽.
6. 니파이후서 2:15~16 참조.
7. 닐 에이 맥스웰, "잘 견뎌, 리아호나, 1999년 4월호, 12쪽.
8. 교리와 성약 19:2~3 참조; 교리와 성약 133:64.
9. 교리와 성약 133:62 참조; 교리와 성약 14:7; 요한복음 17:3.
10. *A Woman's View: Helen Mar Whitney's Reminiscences of Early Church History*, ed. Jeni Broberg Holzapfel and Richard Neitzel Holzapfel(1997년), 329~330쪽.
11. Bathsheba W. Smith, *Autobiography*, ed. Alice Merrill Horne, typescript, 15, Maurine Jensen Proctor and Scot Facer Proctor, photo essay, "Joseph, Joseph, Joseph: The Temple Has Returned to Nauvoo, Part 4, 'Lift Up Thine Eyes,'" *Meridian Magazine*, 2002년에서 인용됨, <http://www.meridian-magazine.com/photoessay/020522nauvoo/020522nauvoo3.html>.
12. 이디서 12:6 참조.
13. Whitney 참조, 491쪽.
14. Heidi Swinton, "I Gently Closed the Door", *Heroines of the Restoration*, ed. Barbara B. Smith and Blythe Darlyn Thatcher, Bookcraft, SLC, Ut, 1997년, 128쪽 참조.
15. Bathsheba W. Smith, *Heroines of the Restoration*, 134쪽.
1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벨기세텍 신권 및 상호부조회 교재, 1997년), 177쪽.
17. 교리와 성약 122:7 참조.
18. 마태복음 5:45 참조.
19. 엘마서 7:12.
20. 창세기 41:29~31 참조; 고든 비 힝클리, "청년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1쪽.
21. 교리와 성약 38:30.
22. 니파이후서 4:4 참조.
23. 엘마서 36:30 참조.
2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77쪽.
25. 교리와 성약 68:6.
26. 엘렌 야츠, 2008년 2월 16일에 유타 그랜츠빌 스테이크 토요 저녁 대회에서 전한 개인 경험.
27. 교리와 성약 19:18 참조.
28. 마가복음 14:36.
29. 마태복음 26:39.
30. 토마스 에스 몬슨, Gerry Avant, "Prophet's Birthday: Milestone of 81," *Church News*, 2008년 8월 23일, 4면에서 인용.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가 회원뿐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정을 표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선한 시민이 되고 우리 사회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 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대회가 너무도 영감을 주는 대회였다는 사실에

동감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신성한 사업에 대한 간증이 강화되는 가운데 주의 영을 풍성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을 대신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모로나이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억납니다. "또 그들의 모임은 교회에 의하여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신의 권능으로 인도되었나니, 이는 성신의 권능이 그들을 인도하여, 혹 가르치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또는 간구하거나, 또는 노래하게 하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졌느니라."¹

우리가 이 연차 대회 동안 들었던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들은 다음 달 엔사인과 리아호나 잡지에 실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연구하고 그 가르침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해임된 형제님들께, 우리는 여러분이 오랜 세월 동안 베푸신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헤아릴 수 없는 공헌은 모든 교회 회원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의 세상적인 어려움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찾으려 노력할 때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세계 어디서든 교회 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뿐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정을 표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선한 시민이 되고 우리 사회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정직하고 고결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는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덜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보살피면서 베푸는 봉사에 더하여, 교회 기금에 기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거의 항상, 가능한 지원이면 무엇이든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이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일부 사람들의 삶에는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중에는 약물, 부도덕, 폭력 조직 및 이들과 관련된 모든 심각한 문제들에 비극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망인과 홀로된 아버지를 비롯하여 친구를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항상 염두에 두고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마음을 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이 실제로 열려 있고, 오늘날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으며, 교회가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계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정한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와 조화, 사랑 속에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매일 구주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의 형제 자매이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모든 총관리 역원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연극 중 하나인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탄의 길을 따르자 선택한 파우스트 박사라는 한 사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악한 인생의 끝에서, 잃어버린 기회와 틀림없이 받을 형벌에 대한 절망에 직면하여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것, 이것이 지옥의 불길보다 더욱 타는 듯

한 고통이구나.”²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가장 타는 듯한 고통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목표입니다.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우리가 이 가장 소중한 상을 추구하는 데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되고, 우리 구주가 살아 계시며 그분이 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6개월 후에 다시 만나 볼 동안 여러분께 작별을 고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로나이서 6:9.
2. “Deviled Marlowe,” *Time*, 1964년 10월 16일, 77쪽 참조.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달성함

줄리 비 백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딸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그들을 조직하고, 가르치며, 격려하기 위해 상호부조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매우 깊은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지난 해에 세계 곳곳에 계시는 여러분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독일, 덴마크, 호주 및 가나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인도, 및 스리랑카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브라질, 칠레,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및 미국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고양되고 교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권 소유자들을 돕는 방법을 알기 위해 주님께 영감을 구했습니다. 상호부조회가 그 목적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성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상호부조회가 설립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조금 복습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공유하는 세 가지 책임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개인으로나 조직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은 신성한 임무를 어떻게 성취하기를 바라시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 상호부조회가 설립된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교회에 왜 여성 조직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후기에 다칠 재앙들에 관해 아셨으므로 "... 신앙이 ... 땅에서

증가되게 하고, [그분의] 영원한 성약이 굳게 세워지게 하며 [그분의] 복음의 충만함이 연합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에 의하여 세상 끝까지 ... 선포되게 하려..." 그분의 종인 조셉 스미스 이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명하"1셨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그분의 복음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2되고 그분의 영원한 성약이 성전 의식을 통해 확립될 때 성취됩니다.

신약 시대에 구주께서 마리아와 마르다3에게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하셨던 것같이, 이 경륜의 시대의 여성들은 주님의 사업에 참여할 공식적인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복의 초기부터 여성들은 선교 사업을 지원하고, 성전 건축에 공헌하며,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일을 활발히 도왔습니다. 1842년에 상호부조회를 조직한 것은 여성의 총체적인 힘과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들의 특정한 임무를 결집시켰으며, 이것은 신권 정원회 조직이 남성들에게 특정한 책임을 부여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조직된 이래로,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지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큰 여성 조직"4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상호부조회가 회복의 공식적인 한 부분이었으며 유사한 여성 조직이 고대의 교회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을 압니다.5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가 주님이 "사람에게 ... 영생을 가져다 주"8도록 돕기 위해 "하늘의 법에 따라"7 "하나님에 의해 신성하게 조직되고, 신성하게 승인되었으며, 신성하게 설립되고, 신성하게 제정되었다"6고 가르쳤습니다.

상호부조회를 통해 여성들은 교회에서 "성전 사업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포함하여"9 큰 책임이 따르는 공식적인 역할을 갖습니다. 더욱이 상호부조회는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간증의 씨앗을 심고 키우며"10,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고"11, "모든 가족의 의무를 다하도록"12 도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궁핍한 사람



의 필요”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상호부조회가 해야 할 더 큰 임무는 “교회의 모든 여성 회원의 영적인 복지와 구원을 돌보는 것”¹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주님이 이 조직을 설립하신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딸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그들을 조직하고, 가르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부조회의 목적은 주님이 이 조직을 설립하신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딸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그들을 조직하고, 가르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II. 우리의 책임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님은 상호부조회의 각 자매들과 그 조직 전체가 다음과 같이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1.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운다.
2. 가족과 가정을 강화한다.
3.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한다.

이 세 가지 책임들 중 한 가지를 수행하는 것은 나머지 두 개의 책임을 지지하고 보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키우면,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의 가족이 강화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면, 우리의 신앙과 의로움이 커집니다. 이 세 가지 책임은 서로 분리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부터 살펴봅시다.

1.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운다. 주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몫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워야 합니다. 이 교회의 회원은 신앙을 지녀야 하며, 우리는 이 신앙을 일생 동안 “부지런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¹⁴으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초기의 여성들이 지녔던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유산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개척자 여성들은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화재와 홍수를 겪으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대양을 건너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었으며 먼지와 질병, 굶주림까지도 견뎌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여성들이 도중에 남편, 자녀, 부모, 및 형제 자매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에서 타오르는 신앙의 불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여성들은 좋은 옷, 더 좋은 여가, 대저택, 또는 더 많은 재산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참되며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그들의 역할을 다 해 주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확신과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회개, 경전 공부, 기도,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리고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기 위해 조직되고, 한 목소리를 내며, 결집해야 합니다. 저는 오래 전 갓 결혼했을 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웃에 계시던 저의 부모님이 다른 나라로 이사가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양육과 지혜, 격려의 모범에 의지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오랫동안 떠나 계실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메일, 팩스, 휴대폰 및 웹캠이 있기 전이었으며, 우편물 배달은 매우 느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 날, 저는 앉아서 어머니와 함께 울며 물었습니다.

“누가 제 어머니가 되어 줄까요?” 어머니는 신중히 생각하시더니 그분과 같은 여성들에게 오는 계시의 영과 권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네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면, 내가 다시는 네게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없다면, 상호부조회에 의지하렴. 상호부조회가 네 어머니가 되어 줄 거야.”

어머니는 제가 아프면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저를 돌보아 줄 것이고, 아이를 낳아도 그들이 도와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장 큰 소망은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이 저에게 강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덕망과 신앙을 지닌 여성들로부터 수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멀리 계시는 세월 동안 저의 와드에는 상호부조회 회장 부름을 받은 세 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앨타 챔벌린은 제게 시간 관리와 가정 조직을 다른 자매들에게 가르치도록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그 자매님은 제가 그러한 기술들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진 흠은 저의 첫 번째 진지한 물론

경 공부를 끝까지 해내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노마 힐리는 제게 통조림 공장에서의 첫 번째 임무를 주었으며 봉사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훌륭한 여성들은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이해했습니다.

3.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한다. 이 교회에 속하는 모든 여성들의 세 번째 책임은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게 있어서 어머니가 멀리 계시는 여러 해 동안, 제가 와드 초등학교 회장으로, 이후에 와드 청년 회장으로 봉사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저는 감독단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와드 평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많은 형제들의 봉사가 대 신권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회와 초등학교에서] 비이기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상호부조회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¹⁷ 우리가 다른 보조 조직에서 봉사할 때 상호부조회 자매 신분에서 해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호부조회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항상 상호부조회의 목적과 책임에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신앙이 충만한 목자가 되는 모든 기회를 갖는 축복을 받습니다.

상호부조회가 지닌 임무에는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봉사의 기회가 몇 가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자매들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저는 남편이나 자녀가 없는 수천 명의 자매들이 엄청난 신앙과 재능과 헌신의 원천임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선교사로 봉사하며,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치고, 억압된 자들을 돕는 일을 여러분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또한 이제 막 청년 프로그램을 마치고 상호부조회의 일원이 된 여러분의 젊음과 활기에 경탄합니다. 세상의 선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여러분의 소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보았습니다. 저는 종종 가족 역사 사업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자 기기를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¹⁵을 추구함으로써 좀 더 구주와 같이 되기 위해 개인적인 의로움을 추구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2. 가족과 가정을 강화한다. 우리의 두 번째 책임은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가족들은 부도덕한 관습과 그릇된 가르침으로 공격받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혼이든 미혼이든, 나이가 많은 젊은 우리에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나와 있는 진리들을 옹호하고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다른 필요사항이나 활동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가족들만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신성하게 부여된 의무를 대신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¹⁶ 오늘날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점점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에서 성장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매일같이 악과 맞서는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는 가족을 강화하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으로부터의 신성한 피난처가 되도록 돕

다루는 기술(저와 같이) 나이 든 자매들과 나눌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만히 앉아서 나이와 연륜이 있는 여성들이 상호부조회의 모든 계획과 조직과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 보기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젊음과 활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III. 목적을 달성함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받으며, 그에 따라 행할 때 주님의 사업을 그분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계시 없이는 성공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계시에 귀 기울인다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우리에게 성신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¹⁸을 보여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후기에 주님이 그분의 성령을 그분의 여종들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¹⁹ 이것은 우리가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만히 고요히 귀 기울일 때 일어날 것입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부름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계시를 받는 것은 “우리 쪽에서 치열한 정신적 노력을 요합니다 … . 계시는 벼튼을 누르는 것 같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노력을 요하는 일이며, 종종 금식과 경전 공부 및 개인적인 명상에 의해 촉진됩니다. 무엇보다도 계시를 받으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충분한 의로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계시는 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인에게 올 수 있습니다.”²⁰

IV. 결론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여러 해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직에는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 않은 힘이 있습니다. 자매들과 신권 형제들이 상호부조회의 미래상을 보기 전에는 그 힘이 발휘되지 않을 것입니다.”²¹

주님께서는 그분의 딸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그들을 조직하고, 가르치



며, 격려하기 위해 상호부조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모임, 모든 공과, 모든 활동이 교회의 여성들에게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을 키우고, 그들의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주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개인적인 책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받으며, 그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 세계적인 자매들의 실질적인 힘은 각 여성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길 수는 있으나, 우리 모두는 고귀한 유산을 물려받았으며 앞서간 훌륭한 충실한 여성들에 못지 않은 신앙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도록 돕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그분의 딸들의 도움 없이는 그분의 사업을 성취하실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더 크게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성취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것과 오늘날 살아계신 선지자가 그분의

사업을 이끄신다는 것을 기꺼이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17, 21~23.
2. 교리와 성약 133:37.
3. 누가복음 10:38~42 참조.
4. 보이드 케이 패커, “자매들의 세계”, 성도의 빛, 1981년 11월호, 109쪽.
5. Eliza R. Snow, “Female Relief Society”, *Deseret News*, 1968년 4월 22일자, 1쪽 참조.
6. *교회 회장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엘기시)의 신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 1998년, 184쪽.
7. 교리와 성약 102:4.
8. 모세서 1:39.
9. 델린 에이치 옥스, “신권과 보조 조직”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17쪽.
10. 제일회장단, “Memorandum of Suggestions”, 1940년 3월 29일, 2쪽.
11.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17쪽.
12. 교리와 성약 20:47, 또한 51절 참조.
1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185쪽.
14. 엘마서 32:43.
15. 신앙개조 1:13.
16. 제일회장단 서한, 1999년 2월 11일자.
17. 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110쪽.
18. 니파이후서 32:5.
19. 요엘 2:29 참조.
20. 닐 에이 맥스웰, “계시”, *첫 번째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5쪽.
21. 스펜서 더블류 김볼, “상호부조회-그 약속과 잠재력”, *성도의 빛*, 1977년 3월호, 4쪽.

거룩한 성전, 신성한 성약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성전은 신성하고도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영적인 권능과 힘의
원천이요 계시를 받는 곳입니다.



이 비길 데 없는 전 세계적인 여성 모임을 생각하며 제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소망으로 단합된 이 커다란 자매 단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성전 예배라는 매우 신성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 때 영의 인도가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교회의 합당한 회원들로서 하나님과 신성한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갈망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

습니다. 또한 우리는 필요한 구원 의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성전을 짓는 것의 심오한 의미와 더불어, 왜 성전에서 집행되는 의식이 우리 구원에 필수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회원들이 성전에 가기 위해 감내하는 희생을 보았으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스타리카에서 살고 있던 1976년, 선교부 회장님은 제 남편에게 선교부에서 성전으로의 첫 여행을 계획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당시 중미 선교부에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및 온두라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전은 에리조나 주 메사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데는 여섯 개의 국경을 넘어 편도로만 닳새가 걸렸습니다. 그곳을 방문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 재정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텔레비전, 자전거, 스케이트 및 그 밖에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았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두 대의 버스로 밤낮을 여행했습니다. 몇몇 회원들은 버스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모든 돈을 다 써 버려서 크래커와 마가린만을 먹으며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왜 교회 회원들은 성전에 가기 위해 그토록

기꺼이,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런 큰 희생을 치를까요?

저는 메사 성전에서 보낸 3일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위대한 영의 임재하심을 결코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영원히 인봉된 후에 서로 부둥켜안은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4년 후에 코스타리카 산호세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헌납식에 참여한 회원들 중에는 그 첫 번째 성전 여행을 다녀온 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룩한 순간을 충실하고 합당하게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제 최근에 헌납된 파나마 성전과 성전 건축이 발표된 온두라스 성전을 통해 성전에 자주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도록]”¹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은 이동식 성막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행 중에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그 양식과 구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 후, 솔로몬 왕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건축 자재들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²

지상에서의 성역 동안, 주님은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여기시고 그에 대한 경외심을 가르치셨습니다.

니파이인들 또한 미대륙에 주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성전 주위에 모였습니다.³

이 경륜의 시기에 교회가 회복되고 얼마 후, 주님은 성도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⁴

그에 따라, 성도들은 상당한 희생을 치르며 커틀랜드 성전을 건립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중요한 신권 열쇠가 회복되었으며 구주

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⁵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8개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더 많은 성전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의식들이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해 행해질 수 있도록 성전을 건립하라는 지시를 받아 왔습니다. 이 의식들에는 예비 의식을 비롯하여 엔다우먼트, 결혼, 인봉, 대리 침례 및 성임이 포함됩니다.

예비 의식은 특수한 경우의 즉각적인 축복과 미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엔다우먼트는 거룩한 성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맺은 성약들에 충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시, 높은 곳으로부터의 권능, 그리고 약속된 축복들을 포함합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엔다우먼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엔다우먼트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서, 주님의 집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을 받는 것을 일컫는데 이는 여러분이 이생을 떠난 후에 ...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며 ... 돌아가서 영원한 승영을 얻게 해 줍니다.”⁶

성전 결혼과 같은 인봉 의식은 가족을 영원히 묶어 줍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받는 의식들과 관련하여 맺은 성약들은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는 허가를 위한 증명서가 됩니다. 이 성약들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시각의 한계 너머로 우리를 들어들여 줍니다. 우리는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 성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성약 아래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성약의 백성이 됩니다. 약속된 모든 축복들은 이 성약에 대한 우리의 충실함에 따라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전은 배움의 집입니다. 성전에서 주어진 많은 가르침은 상징적인 것이며 영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높은 곳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성약들과 의식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지시를 받지만 의식과 성약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가르침 받는 영원한 진리를 깊이 명상하면서 자주 성전에 갈 때 커질 것입니다.

성전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을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족 역사 연구는 성전 밖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신 조상들의 승영을 위해 필요한 거룩한 의식들은 성전 안에서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은 사용될 조건과 집행되어야 할 의식,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표준을 지시하십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⁷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⁸ 그분의 집은 거룩하며 어떠한 부정함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⁹

주님은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에게 그분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 추천서를 받게 되는 개인들의 합당성을 판단하는 책임을 지명하셨습니다. 성전 추천서를 발급받기 전,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과 접견할 때 우리는 철저히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단으로 가져가는 선물은 순수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개인적인 합당성은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노력함으로써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성전에 가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 준비를 시작하셔서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고 합당한 상태가 되게 하십시오.

성전에 갈 때, 우리는 성전에서 갖게 되는 거룩한 경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 마음, 또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또한 정숙하고 적절하며 품위 있는 복장을 합니다. 이 거룩한 순간을 위한 우리의 복장은 주님과 그분의 거룩한 집에 대한 존경과 경의의 표시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정결함과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 옷으로 갈아 입습니다. 그런 다음 조용하고 경건한 성전 예배 의식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십시오. 이 영원한 축복은 그것을 받기

에 합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교회의 여성들은 성전의 축복을 요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아직까지 성전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무엇이든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일을 행하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 가서 그 경험을 다시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대한 시각과 이해를 넓히라고 권유하십니다.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기에 합당하게 됩시다. 우리 가족을 영원히 인봉하기 위해 성전에 갑시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갑시다. 돌아가신 우리 친척들에게 승영의 의식을 받을 기회를 드립시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받는 영적인 힘과 계시를 누립시다. 속죄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충실히 생활하며 성전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킵시다.

성전은 신성하고도 거룩한 장소임을 간중드립니다. 성전은 영적인 권능과 힘의 원천이요 계시를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이시자 구속주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출애굽기 25:8.
2. 열왕기상 5:5~18, 6 참조.
3. 제3니파이 11:1 참조.
4. 교리와 성약 88:119.
5. 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6. 신권의 의무와 축복, 29쪽.
7. 출애굽기 3:5.
8. 시편 24:3~4.
9. 교리와 성약 109:20 참조.

이제 함께 기뻐합시다

바바라 톰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상호부조회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여성으로서 우리의 영광스런 유산의 일부이자 축복입니다.



사 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일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주님의 조직”¹인 상호부조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상호부조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 가슴 떨리는 첫 걸음을 상기에 볼 때, 여러분은 마음에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842년 3월 17일 첫 번째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여성들이 [이렇게] 조직되고 나서야 교회는 비로소 완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²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신권의 관리 하에 신권의 형태에 따라”³ 여성들을 조직했습니다. 첫 번째 상호부조회 모임에 모였던 소수의 다양한 그룹의 여성들은 오늘날의 상호부조회 회원들

과 다르지 않은 헌신적인 여성들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과 나이 든 여성들이 있었으며, 정식 교육을 받은 여성들과 그렇지 못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기혼 여성들과 어머니들은 물론 독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여성들도 있었고 몹시 가난한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으며 봉사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과거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한 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 더 잘 이해하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자매들에게 요청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살피고 자애를 베풀 대상자를 찾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⁴ 형제들을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동정심에 따라”⁵ 행동하라고 자매들을 권고했습니다.

자매들은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자 헌신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에머 스미스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할 것입니다. 다수의 물물들이 승선한 배가 급류에 휩쓸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호부조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큰 소리의 구조 요청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들과 절박한 요청들을 기대합니다.”⁶

교회 초기에 자매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구제를 행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방문 교육이라 부르는 것을 행하며, 자매들은 모두를 보살피고, 돌보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고, 사람들에게 음식, 옷, 가구, 일자리, 거처가 있는지 확인했으며, 그들이 필요로 할 때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만약 어떤 자매에게 무언가 나눌 것이 있다면, 그녀는 자신을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그것을 기부했습니다. 만약 그 자매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방문하는 자매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⁷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이 권고한 대로 상호부조회에 헌신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자매 개개인을 강화시키고 성결하게 합니다. ... 여러분이 상호부조회에 헌신하고, 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참여할 때, 여러분은 상호부조회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여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지지하는 것입니다.”⁸

에머 스미스가 급류에 휩쓸린 배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묘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픈 이웃이나 훈계가 필요한 어린이, 친구가 필요한 청소년, 또는 수입이 없어서 자립하기까지 도움이 필요한 가족 등을 볼 때 그것을 우리 시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처에 있는 우리의 자매들이 인생에서 겪는 재난이나 시련 또는 개인적인 비극에 대해 듣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나 성취 목표를 찾으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가정, 이웃 및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종종 친절한 격려의 말 한마디, 감사의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사랑스런 미소 한 번, 도움이 되는 행동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 입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북돋우며 축복할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단지 일요일 공과 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초등학교나 청년 조직에서 가르칠 일이 없을 때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들을 위한 주님의 조직입니다. 상호부조회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여성으로서 우리의 영광스런 유산의 일부이자 축복입니다.

초기의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조셉 스미스

는 자매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상호부조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⁹ 라고 말했으며, 더 나아가 “저는 이제 그 열쇠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넘깁니다. 이 조직은 이제부터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며 지식과 예지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¹⁰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여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축복 안에서 기뻐하도록 저를 일깨워 줍니다.

상호부조회 여성들은 항상 배우며 발전하기를 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¹¹임을 알고 있습니다.

1830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의 아내인 에머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주님은 그녀에게 “나의 영이 네게 주는 바에 따라 경전을 해설하며 교회 회원을 권면”¹² 해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책임은 에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조셉은 모든 자매들이 이 은사를 추구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¹³ 여

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고 말과 행동으로 구주를 따랐습니다. 자매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서로를 양육했습니다.¹⁴

어떤 여성들은 대중 앞에서 말씀을 하거나 반을 가르치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것이 다소 두려운 일일 수 있음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자 알 스노우가 대중 앞에서 말씀하도록 부름 받은 그녀의 조카딸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조카딸이 일어나서 말씀을 하려 했을 때, 그녀는 물려드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엘리자는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녀에게 조언했습니다. “너무 신경쓰지 말거라, 하지만 네가 다시 말씀을 하도록 부탁 받는다면, 그때는 적어도 한 마디는 하도록 노력하렴.”¹⁵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자신이 준비한 만큼 무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¹⁶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전과 승인 받은 교회 자료를 이용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¹⁷를 주실 것이며, 우리는 모두가 교화될 수 있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훌륭한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엘리자 알 스노우는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서 말씀했고, 주님의 영이 정결하게 하는 물줄기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¹⁸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자매들이 안식일 공과에 참석하고 방문 교육을 하며 활동에 참여하거나 어떤 일에도 봉사 할 때, 항상 양육 되고 교화되며 향상되었다고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 책임감 있고 강인한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힘과 신앙과 담대함으로 진리를 선언하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 의로움의 본이 되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열망하”는 여성들이 필요합니다.¹⁹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행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딸들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최고의 성품”을 구할²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 도움을 받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선언했듯이, “만일 여러분이 받은 특권에 따라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천사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²¹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 슬퍼

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함으로써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 합니다.²²

우리는 매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주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 선전자, 계시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읽고, 연구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는 성스러운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돕기 위한 필수적인 의식을 받을 수 있는 성전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울 서로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여러분 훌륭한 여성들의 모습에 투영되는 하나님의 모습”²³을 봅니다. 여러분의 선행과 놀라운 헌신에 대해 듣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의 빛을 봅니다.

에머가 제안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오늘날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동정, 친절, 봉사 그리고 신앙으로 무장된 의로운 여성들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우리는 패커 회장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처럼 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피난처, 즉 안전과 보호의 장소인 고대의 성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그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보호벽처럼 각 자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²⁴ 우리에게 이 안전과 보호의 장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상호부조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과거의 이 고결한 여

성들이 행했던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도 인도받을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스펜스 더블류 김블, “Relief Society—Its Promise and Potential,” *엔사인*, 1976년 3월호, 2쪽.
2. *교회 회장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교과 과정, 2007년), 451쪽, 또한 질 멀베이 테어 및 그외, *Women of Covenant: The Story of Relief Society* [1992년], 주석 61번, 445~446쪽.
3. 사라 그랜저 김블, “자서전,” *Woman's Exponent*, 1883년 9월 1일, 51쪽.
4. *교회 회장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52쪽.
5. *교회사*, 4:605.
6. 에머 스미스, 상호부조회에서 인용됨, *Minute Book* 1842년 3월~1844년 3월, entry for Mar. 17, 1842, 12, Church Archives,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7. *Women of Covenant: The Story of Relief Society*, 32~33쪽 참조.
8. 보이드 케이 패커, “The Circle of Sisters,” *엔사인*, 1980년 11월호, 110쪽.
9. *교회사*, 5:25.
10. *교회 회장의 가르침*(2007년), 451쪽.
11. 교리와 성약 93:36.
12. 교리와 성약 25:7.
13. *교회 회장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54쪽, 또한 교리와 성약 25:16 참조.
14. 모로나이서 6:4 참조.
15. 엘리자 알 스노우, “에밀리 에스 리처드의 연차 대화: 상호부조회”에서 인용됨, *Woman's Exponent*, 1901년 12월, 54쪽.
16. 교리와 성약 50:14, 22.
17. 교리와 성약 121:26.
18. 엘리자 알 스노우, *Minute Book*, entry for Apr. 19, 1842, 33.
19. 교리와 성약 58:27.
20. 제이 르우벤 클라크, *Providing in the Lord's Way: A Leader's Guide to Welfare* [복지 지침서, 1990년에서 인용됨 표지].
21. *교회사*, 4:605.
22. 모로나이서 18:8~9 참조.
23. 엘마서 5:19.
24. 보이드 케이 패커, “The Circle of Sisters,” *엔사인*, 1980년 11월호, 110쪽.

행복, 여러분의 유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의 생득권과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위대한 항해의 목적은 영원한 행복을 찾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모임을 위해 함께 모이신 교회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저의 첫 번째 기회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몬슨 회장님과 아이어링 회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합창단의 노래에 감동했으며 톰슨 자매님, 얼리드 자매님, 벡 자매님의 메시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된 후, 저는 제 삶에 영향을 준 저의 훌륭한 아내 해리엇, 어머니와 장모님, 누나, 딸, 며느리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포함한 여러 여성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 세계는 영감과 가르침을 주고 격려했던

여성분들이 주변에 계셨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이런 놀라운 여성들 덕분입니다. 교회 자매님들과 만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놀라운 영혼의 소유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곳에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여러분의 재능, 사랑,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딸이라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여성과 남성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요리하는 것을 보면 이 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요리할 때는 환상적입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하며 종종 우리가 방문한 나라들의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녀의 요리를 보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먹는 게 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내의 요리는 미각뿐만 아니라 시각의 즐거움도 선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맛있을지라도, 아내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완전한 것이 있으면 사과합니다. 그녀는 “생강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네요.”라든가 “다음 번에는 카레가루를 조금 더 넣고 월계수 잎을 하나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아내와 저의 요리법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저는 아내에게 제가 가장 잘하는 요리가 무엇인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쪽만 익힌 계란 후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아닙니다. 저는 크누스 퍼천(Knusperchen)이라는 특별 요리도 할 줄 압니다. 이 요리는 어느 일류 레스토랑의 메뉴에나 나올 법한 진미 요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께 요리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바게트 빵을 얇게 썰어서 두 번 구우십시오.

그게 요리법입니다.

계란 후라이에 기름이 흥건하건 크누스퍼천이 탔건 간에, 요리할 때에는 제가 영웅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제 아내와 저의 차이점이 약간 과장일지도 모르나 그것은 식사를 준비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설명해 줍니다.

제 눈에는 이런 훌륭한 자매님들이 때때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듯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취한 것과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에게서 이런 특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이 또한 훌륭한 자질, 즉, 우리의 능력을 다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내적인 소망을 가리킨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것은 좌절, 기진맥진,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약한 자들에게

오늘 저는 자신이 부적격하다고 느끼거나, 의기 소침해지거나, 지치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있는 사람들, 즉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성신이 제 말씀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며 추가적인 의미와 통찰력, 영감을 부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사실, 변화무



쌍하고 어려움과 할 일이 태산인 이 세상에서, 때때로 고통과 슬픔에 압도되는 느낌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좌절시키는 부정적인 느낌들을 그냥 순식간에 없애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씀은 격려 연설도 아니며 모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해변가에서 휴식을 취하는 신기루와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진정한 걱정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깊은 슬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혹은 영혼을 근심하게 하는 두려움과 싸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은 모르는 외로움이란 시련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도 평화, 희망, 기쁨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 각자가 어떻게 역경 속에서도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행복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행복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답이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므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영광이니

라.”³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불멸과 영생이라는 이 두 가지 위대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행복에 기여하는 두 가지 목표입니다. 창조와 사랑은 그분의 영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일

창조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강렬한 열망 중 하나입니다. 재능, 교육 정도, 배경, 또는 능력과 관계 없이, 우리 각자는 그 전에 존재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창조하고자 하는 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돈, 지위, 영향력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조는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정리되지 않고 조직되지 않은 것을 취하여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때 자신과 타인을 발전시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리되지 않은 여러분의 심대 자녀들의 방을 청소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자는 “저는 창조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노래할 때면, 저는 언제나 음표보다 반음 높거나 낮게 불러요. 저는 자 없이는 직선을 긋지 못해요. 제가 만든 빵은 오직 종이가 날아가지 않도록 눌러 놓거나 문이 닫히지 않게 할 때만 쓸 뿐이에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우주에서 가장 창조적인 존재의 영의 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제적인 영이 영원히 창조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기능, 아름다움으로 창조된 걸작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는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특정한 목적과 잠재력을 띠고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득권과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위대한 항해의 목적은 영원한 행복을 찾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여러분은 자녀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사업에 그분과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머니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발전시키는 그 창조적인 재능은 이 세상 혹은 그 다음 세상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성은 종이 한 장 혹은 캔버스에 국한되지 않으며 붓, 펜, 피아노 건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창조란 그 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 예를 들어 다채로운 정원, 조화로운 가정, 가족 추억,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창조하는 것이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란 요리에 기름기가 많거나 토스트가 좀 탔으면 어떻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비판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직도 창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하려고 노력하고, 감사 편지를 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절한 장소를

찾아내어 그곳을 아름답게 꾸며 보십시오.

약 150년 전에, 브리검 영 회장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전진하고 향상시키며 주위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땅을 경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십시오. 도시를 건설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정원과, 과수원, 포도원을 만들고 지상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서 여러분이 기쁘게 한 일을 보고 천사들이 내려와 그 아름다운 곳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도록 하십시오.”⁶

여러분이 성신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수록, 여러분의 창조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삶에서의 기회이자 다음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자매 여러분, 성신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매일의 삶이 주는 평범한 기회들을 통해 여러분이 아름답고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창조할 때, 여러분 주변의 세상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세계도 향상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위대한 일이며 인간으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는 “약한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⁷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

다. 구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⁸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려 할 때, 우리의 삶도 축복받습니다. 봉사와 희생은 하늘의 문을 열며, 우리가 값진 축복들을 받게 해 줍니다. 분명, 우리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 중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들어 올릴 때, 우리 자신도 좀 더 높이 올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깃들게 됩니다.”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봉사에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내가 돌아가신 후, 힝클리 회장은 일에 매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교회에 커다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힝클리 회장은 남편을 잃은 한 자매님에게 “일이 자매님의 슬픔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잊고 이웃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과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렌조 스노우 회장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좀 우울해질 때, 주위를 둘러보아 자신보다 더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낸 후, 주님께서 여러분

에게 부여하신 지혜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우울증은 사라지고 가벼워짐을 느끼며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모든 것이 명백해짐을 느낄 것입니다.”¹⁰

오늘날 세상의 대중 심리학, 쓸모 없는 TV 프로그램, 자아 만족의 자가 치유서 속에서, 제가 드리는 충고가 통념과는 반대될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병을 고치는 해답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탐닉하고, 먼저 쓰고 나중에 지불하며, 주변 사람들을 희생하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먼저 만족시켜야 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사항을 먼저 돌봐야 하는 것이 현명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 안의 도구

저는 교회의 자매님들이 나이나 가족 사항에 상관 없이 *피터팬*의 저자 제임스 배리가 “타인의 삶에 햇살을 드리우는 사람은 항상 그 햇살 아래 있다.”¹¹ 라고 한 다음의 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저는 이타적인 사랑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고귀한 여성들의 친절과 사랑이 담긴 조용한 행동을 보아 왔습니다. 교회의 자매님들의 이야기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들이 신속하게 도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가슴은 뭉클해집니다.

교회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독신이거나 이혼했거나 남편을 여읜 자매님들은 자신들이 할 일이 있을지 의아해합니다. 교회의 모든 자매님들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행해야 할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전 이 모임에서, 문순 회장님은 “여러분 주위에는 ... 봉사할 기회로 가득합니다. ... 종종 봉사의 작은 행위가 다른 이들을 들어올리고 축복하기 위해 필요한 전부입니다.”¹² 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오. 성찬식 때, 자녀가 여럿인 젊은 어머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앉아 도움을 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에, 낙담한 젊은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있어 주겠다고 하며 그의 선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진실한 격려의 말은 오직 사랑과 보살피는 마음만 필요할 뿐이지만 여러분 이웃의 삶에 영원토록 영향을 줄 것입니다.

훌륭한 자매님들은 이웃에게 사랑이 가득한 봉사를 베풀 때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은 왕이셨지만 지위를 구하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이 알아줄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으신 구주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타인과 경쟁하려 하지 않았습니 다. 언제나 남을 도우려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해주고, 대화하며,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위대함이 외적인 부나 지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셨고 또 그 가르침대로 사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¹³

결국,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숫자도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수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아 낙담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좌절을 발견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조용한 기도를 느껴보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주님의 손 안에 든 도구가 되도록 합시다.

결론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제 신앙은 단순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그리고 충실히 지킬 때, 여러분이 신앙, 희망, 사랑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갈 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¹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매진할 때,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분은 여러분을 그분의 사랑의 팔로 안아 주실¹⁵ 것입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지치고, 부적합하다는 느낌은 의미 있고 은혜와 성취감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딸들로서, 행복은 여러분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한 딸들이며 여러분이 창조한 것들과 사랑이 담긴 봉사를 베풀므로 인해, 여러분은 영원히 위대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자신감을 가지고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님의 사도로서 여러분께 저의 축복을 남겨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주

1. 이사야 55:9.
2. 니파이전서 11:17.
3. 모세서 1:39
4. 니파이후서 2:25.
5. 교리와 성약 46:11~12 참조.
6. 브리검 영, *Deseret News*, 1860년 8월 8일, 177쪽.
7. 교리와 성약 81:5.
8. 모사이아서 18:9.
9.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년), 254쪽
10. Lorenz Snow, Conference Report, 1899년 4월, 2~3쪽.
11. J. M. Barrie, *A Window in Thrums* (1917년), 137쪽.
12. 토마스 에스 문슨, “여러분을 인도할 세 가지 목표”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20쪽.
13. 마태복음 23:11.
14. 교리와 성약 90:24 참조.
15. 교리와 성약 6:20 참조.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넷째 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를 위한 다음

지침은 신권 지도자 및 보조 조직 지도자를 위한 교과 과정 유의 사항, 2005~2008년(36904 320)을 대신합니다.

매달 넷째 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서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공과는 리아호나의 가장 최근 연차 대회 특집호에 실린 말씀들을 사용하여 준비합니다. 이러한 특집호는 매 5월과 11월에 출판됩니다. 말씀들은 또한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공과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말씀들을 사용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 회장은 어떤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거나 또는 그 책임을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권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에게 같은 일요일에 같은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강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권고를 구해야 합니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최근의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하고 그것을 공과 시간에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드 및 지부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들이

교회 잡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활용한 공과 준비 제안

-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때로는 연차 대회 말씀을 제쳐 놓고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대회 말씀들은 승인된 교과 자료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의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다.

- 말씀을 공부하면서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는 원리 및 교리를 찾아 본다. 또한 여러분이 원리 및 교리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및 문구들을 말씀에서 찾아 본다.

- 여러분이 원리 및 교리를 어떻게 가르치기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교안을 만든다. 교안에는 반원들에게 도움이 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에서 원리 및 교리를 찾는다.

-원리 및 교리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원리 및 교리들에 대한 반원들의 이해, 생각, 경험 및 간증들을 나눈다.

-이러한 원리 및 교리들을 생활에 적용한다.

-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의



31~32장을 공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원들이 영의 영향을 받아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향상되고 복음 원리를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며 복음대로 생활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는 일이다.”(교수법 지도서(2001년), 12쪽)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Curriculum Developmen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Roo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e-mail: cur-evelopment@ldschurch.org

월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2008년 11월~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에 실린 말씀*
2009년 4월	말씀*
2009년 5월~	리아호나 2009년 5월호에 실린 말씀*
2009년 10월	

*이 말씀들은 인터넷 www.lds.org에서(여러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연차 대회를 삶에 적용함



어떻게 여러분은 연차 대회에서 주어진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다음 내용과 질문들은 토론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깊이 숙고해 보기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www.lds.org를 통해 연차 대회 말씀들을 온라인으로 읽고, 듣고, 또는 시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 “우리가 회원뿐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정을 표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선한 시민이 되고 우리 사회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106쪽 참조).

- “하나님의 자녀들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차이점을 노여움의 원인이 아니라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없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경우, 주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68쪽 참조).

- “우리가 경전을 연구하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를 결심할 때 ...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21쪽 참조).

청소년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단합을 이루는 것에 대해 가르쳤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 관대하게 말할 때 평안과 기쁨을 느낄 것임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68쪽 참조)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청소년 여러분, 성찬식은 속삭이는 목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17쪽 참조)

-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는 “저는 영에 의해 인도된 한 사람의 텍스러운 청녀 또는 청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덕으로 회귀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했다.(78쪽 참조)

- 청소년들의 연차 대회 경험을 읽

어보려면 newera.lds.org를 방문한다.

성인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교회 초기의 후기 성도들이 직면했던 시련들 몇 가지를 열거했다. 그들의 신앙은 이러한 시련 중에 그들을 어떻게 강화했는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추가적인 개념을 위해 72쪽에 나온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말씀을 참조한다.)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우리가 시온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했다.(37쪽 참조) 이 각각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더 발전하기 위한 방법들을 담은 목록을 만들어본다.

-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 실비아 에이치 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위한 생일 선물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연차 대회 말씀 중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지난 8월 생신을 맞으신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전 세계의 회원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십시오.’”¹

어린이 여러분, 몬슨 회장님께 생일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해 줄 수 있는 봉사의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할머니가 집안일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아이가 친구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절한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 봉사의 행위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몬슨 회장님의 생일 달인 2009년 8월, *리아호나*와 친구들에서 다른 어린이들의 경험들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편지, 사진, 그리고 동의서를 아래 주소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Birthday Service

Friend [or Liahona] Magazine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1, USA

이메일: friend@ldschurch.org 또는 liahona@ldschurch.org.

다음 정보 및 동의서를 같이 보내야 합니다.

이름 _____

나이 _____

주/도, 국가 _____

자료와 사진을 인쇄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서명 _____

보내실 때는 2008년 12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편지를 보내는 어린이는 적어도 세 살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케리 아반트의 “Prophet’s Birthday: Milestone of 81”에 인용되어 있음, *Church News*, 2008년 8월 23일, 4쪽.



리드 자매는 지상의 나라들에 전파되고 있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다.(81쪽 및 10쪽 참조) 또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는 ... 자유롭게 복음을 나누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역이 개방되어 그들과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실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만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1895~1985)이 이와 비슷한 권고를 주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 권고를 따르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바를 이야기해 본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교회의 성장에 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복음이 새로운 지역들에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 우리가 겪는 시련이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시지 않으신다.(21, 29, 32, 41, 75, 102쪽의 말씀 참조)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얼마나 보고 경험했는가? ■



연차 대회에서 인용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이야기 된 경험과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개인 공부, 가정의 밤 및 그 밖의 교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는 그 일화가 담긴 말씀의 첫 번째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연사	일화	관련 교리 또는 원리
엘 톰 페리	페리 장로 부부가 월든 폰드를 방문함, 7쪽	평화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얼리드 자매	가족의 개종, 10쪽	선교 사업
닐 엘 앤더슨 장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인식하게 된 선교사, 13쪽 딸이 사고로 죽은 한 남자가 신앙을 갖기로 선택함, 13쪽 해들리 페이가 장애를 가진 소년에게 자신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함, 13쪽	사랑, 신앙 신앙 간증, 시련
마르코스 에이 아이두카이티스 장로	아이두카이티스 장로 아버지의 개종, 15쪽,	선교 사업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이들을 찾기 위해 기도함, 21쪽	신앙, 희망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어린 조셉 비 워스린이 풋볼 경기에 지고 난 후 그의 어머니의 권고에 귀를 기울임, 26쪽 워스린 가족이 함께 웃었던 당황스런 소개팅, 26쪽 자폐증에 걸린 아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받은 축복, 26쪽 계속적인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딸이 하나님을 신뢰함, 26쪽	낙천주의, 시련 유머 기쁨, 시련 신앙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홍수로 범람한 강을 건넌 아버지에 의해 구조된 소년, 29쪽	천사의 성역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동유럽에 있는 청년 독신 성인들이 연차 대회를 참석함, 37쪽 가정 복음 교사가 이민 온 가족에게 테이블을 제공함, 37쪽	단합 관대함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비극적인 시간 동안 베드나 자매가 감사의 기도를 드림, 41쪽	기도
제이 이 젠슨 장로	그랜드 캐니언에서 어린이를 구한 청년, 47쪽	사랑, 봉사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피아노를 옮기기 위해 “서 있는 자리에서 들어올린” 사람들, 53쪽 석수였던 존 로우 모일이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 여섯 시간을 걸음, 53쪽	봉사 끈기, 봉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마틴 해리스의 묘소를 방문함, 60쪽 폴란드에서 5년을 봉사한 부부 선교사, 60쪽 테론 보루프가 2차 대전에서 그의 비행기가 격추되자 기도로 도움을 구함, 60쪽	신권, 가르침 봉사 기도, 신권
키스 비 맥멀린 감독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한 중국 고위 관리가 금식하고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위해 금식 헌금을 냄, 75쪽 심하게 부상당한 소녀에게 주어진 신권 축복, 75쪽	금식, 복지 치유, 신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전쟁 포로 제이 헤스가 가족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냄, 84쪽 보르그힐드 달이 시력을 회복하기 전이나 후나 모두 감사드림, 84쪽	가족, 우선 순위 감사, 낙천주의
쿠엔틴 엘 룩 장로	헬렌 마 위트니와 바세바 스미스의 개척자 경험, 102쪽 엘렌 야츠 자매가 그녀의 남편을 앓아간 교통 사고를 낸 청년의 어머니와 함께 슬퍼함, 102쪽	신앙, 낙천주의 속죄, 용서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자매	중앙 아메리카의 회원들이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 재정적 희생을 감수하고 5일간의 여행을 함, 112쪽	성전



제178차 반연차 대회가 막을 내리다

지난 4월에 열린 성회에서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첫 반연차 대회에서 세계 여러 지역에 새로 건립될 다섯 개의 성전을 발표했다.

2000년 4월 이래로 그렇게 많은 성전 계획이 한번에 발표된 적이 없었다.(자세한 내용은 126 쪽에 실린 기사 참조)

얼 시 텅기 장로와 셸던 에프 차일드 장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명예 총

관리 역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제럴드 앤 런드 장로와 로버트 알 스튜어 장로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되었다.

칠십인 정원회의 제이 이 젠슨 장로는 얼 시 텅기 장로가 칠십인 회장단에서 해임됨으로써 생긴 공석을 채우도록 지지 받았다.(128 쪽에 실린 약력 참조)

8월 21일에 81번째 생일을 맞은 몬슨 회장은 연차 대회를 감리하고 그 중 세 모임에서 사회를 보았다. 그와 부인 프란시스는 10월 7일에 결혼 60주년을 축하했다.

교회 잡지 연차 대회 특집호 간행물 외에도 대회록을 LDS.org에서 볼 수 있다. 모든 연차 대회 모임의 동영상은 미국 수화, 영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또한 온라인에서



90개 이상의 언어로 음성 파일과, 30개 언어로 텍스트 이용이 가능하다. ■



몬슨 회장이 새 성전들을 발표하다

연 차 대회 동안 새로 발표된 다섯 개의 성전이 건립되면 더 많은 교회 회원들이 성전의 축복을 받게 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08년 10월 4일, 토요일 오전 모임의 개회 말씀에서 새로운 성전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성전은 캐나다의 앨버타 캘거리, 아르헨티나의 코르도

바, 미국의 미주리 더 그레이터 캔자스시티,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및 이탈리아 로마에 건립된다. 새로운 성전들의 부지는 취득이 완료되었다.

이 발표 뒤에 연차 대회 말씀을 했던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로부터 다섯 개의 새로운 성전 발표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이 얼마나 영

광스러운 날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앨버타 캘거리 성전은 이 도시의 북서쪽에 위치한 집회소 옆의 교회 소유지에 건립된다. 이 성전은 캐나다에서 여덟 번째이자 앨버타 지방에서 세 번째 성전이 된다. 캐나다에 있는 다른 성전들로는 노바스코샤 핼리



팩스, 앨버타 에드먼턴, 앨버타 카드스톤, 서스캐처원 리자이나, 온타리오 토론토, 퀘벡 몬트리올, 그리고 브리티시컬럼비아 밴쿠버 성전(브리티시컬럼비아의 성전은 현재 건립 중임)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코드도바 성전은 현 선교부 본부 옆에 있는 벨그라노 집회소 부지에 건립된다. 이 성전은 중남미에서 34번째이자 아르헨티나에서 두 번째 성전이

된다. 아르헨티나의 첫 성전은 1986년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헌납되었다.

미주리 더 그레이터 캔자스시티와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의 성전 계획 발표는 미국 내에서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반영한다. 이 성전들은 미국의 도처에 있는 수십 개의 다른 성전들에 추가된다. 더 그레이터 캔자스시티 지역의 회원들이 이용할 성전은 미주리 클레이

카운티의 캔자스시티 경계 안에 있는 쇼울 크릭 단지 내 주택가에 건립된다. 필라델피아의 성전은 맨해튼 및 홍콩과 같이 도시 지역에 건립된 성전들과 마찬가지로 중심가에 건립된다.

지중해 연안의 성도들은 이탈리아, 로마의 성전 계획 발표를 통해 큰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성전은 로마의 북동 지방을 둘러싸는 순환도로 근처에 교회가 소

유하는 6헥타르 부지의 일부를 사용하게 되며, 유럽에서 12번째 성전이 된다. 주변국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여행 시간은 물론 여행 경비가 감소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 128개의 성전이 헌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7개의 성전이 발표 내지 건립 중에 있으므로, 전 세계에 발표되었거나 운영 중인 성전은 총 145개에 달한다. ■

참고 지도서가 연차 대회 잡지로부터 분리되다

지 금까지 리아호나와 앤사인 연차 대회 특집호에 실렸던 아론 신권 및 청년 교사를 위한 참고 지도서가 별도로 출판되어 와드 및 지부로 직접 우송된다.

“이 지도서는 교사들에게 공과 주제에 관하여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최근 말씀을 제공함으로써 아론 신권 및 청년 교재를 보충하고 강화시킵니다.”라고 교회 교과과 정부의 마이클 지 메드슨이 말했다.

이 지도서에는 현 교회 지도자들의 최근 기사와 말씀, 그리고 교회의 다른 잡지 기사가 수록되어 정규 교재의 각 공과 자료를 보충한다. 이 새로운 지도서에는 교사들이 공과에서 더 많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질문, 인용문 및 제언사항이 추가되었다. 새로운 지도서는 현 교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충하고 자료를 갱신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이 참고 지도서는 일년에 한번 별도로 출판될 것이다. 새 지도서는 다음과 같이 4부분으로 구성된다. 질문, 추가 자료, 경험 및 공과 제언.

기회를 갖게 해준다. 많은 활동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및 개인 발전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일요일과 주중 활동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메드슨 형제는 말했다.

청남 및 청년 지도자들은 교재와 함께 새 지도서를 사용하도록 권고 받는다. 이 지도서에는 교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공과를 계획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11개의 상세한 제언이 수록되어 있다.

“교사들이 이 제언들을 따르면 그들의 공과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라고 메드슨 형제는 말했다.

2009년용 새 지도서는 2008년 9월 2일부터 배부 서비스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

제이 이 젠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최 근 칠십인 회장단으로 부름 받은 제이 에드윈

젠슨 장로는 콜럼비아 칼리 선교부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당시, 문제를 해결하느라 며칠을 보낸 후 선교부 사택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경전을 펼쳤던 일을 회상한다.

교리와 성약 3편 5절에 나와 있는 다음 말씀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네게 한 그 약속들도 또한 기억하라.”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항상 그 약속들이 더 크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듯 했습니다.”라고 젠슨 장로는 말한다.

젠슨 장로는 부모인 룰 와이팅과 에텔 오토 젠슨에게서 주님의 약속에 대해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1942년 2월 5일, 미국 유타 주 메이플턴의 “복음을 가르치고 생활화하는” 가정에서 열 명의 자녀들 가운데 여섯째로 태어났다고 말한다.

1961년부터 1963년까지 스

페니쉬 아메리칸 선교부에서 봉사한 후, 1963년 11월 1일 유타 맨타이 성전에서 로나 리 차일드와 결혼하여 여섯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세미나리 교사에 이어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과 과정 책임자, 선교사부 훈련 책임자 및 교회 교과 과정부의 경전 조정 책임자를 역임했다.

젠슨 장로는 감독,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회장단 보좌, 고등학교의원, 대제사 그룹 지도자, 청남 회장, 주일 학교 교사, 그리고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1992년 6월 6일 칠십인 제2정원회로, 그리고 1995년 4월 1일 칠십인 제1정원회로 부름받았다.

젠슨 장로가 평생의 봉사를 통해 배운 것은 일찍이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경전을 통해 얻은 경험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앨마서 31:5 참조) 그는 물론경의 기드온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말이 주님과 주님의 왕국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모사야서 22:4)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주일 학교



다니엘 케이 저드
제1보좌



에이 로저 메릴
회장



윌리엄 디 오스월드
제2보좌

상호부조회



실비아 에이지 얼드리드
제1보좌



줄리 비 벡
회장



비바라 톰슨
제2보좌

청남



던 알 버게스
제1보좌



찰스 더블류 달퀴스트 이세
회장



마이클 에이 나이더
제2보좌

청녀



메리 앤 쿡
제1보좌



일레인 에스 돌튼
회장



앤 엠 딘
제2보좌

초등회



마거릿 에스 리퍼스
제1보좌



체릴 시 렌트
회장



비키 에프 마쭈모리
제2보좌